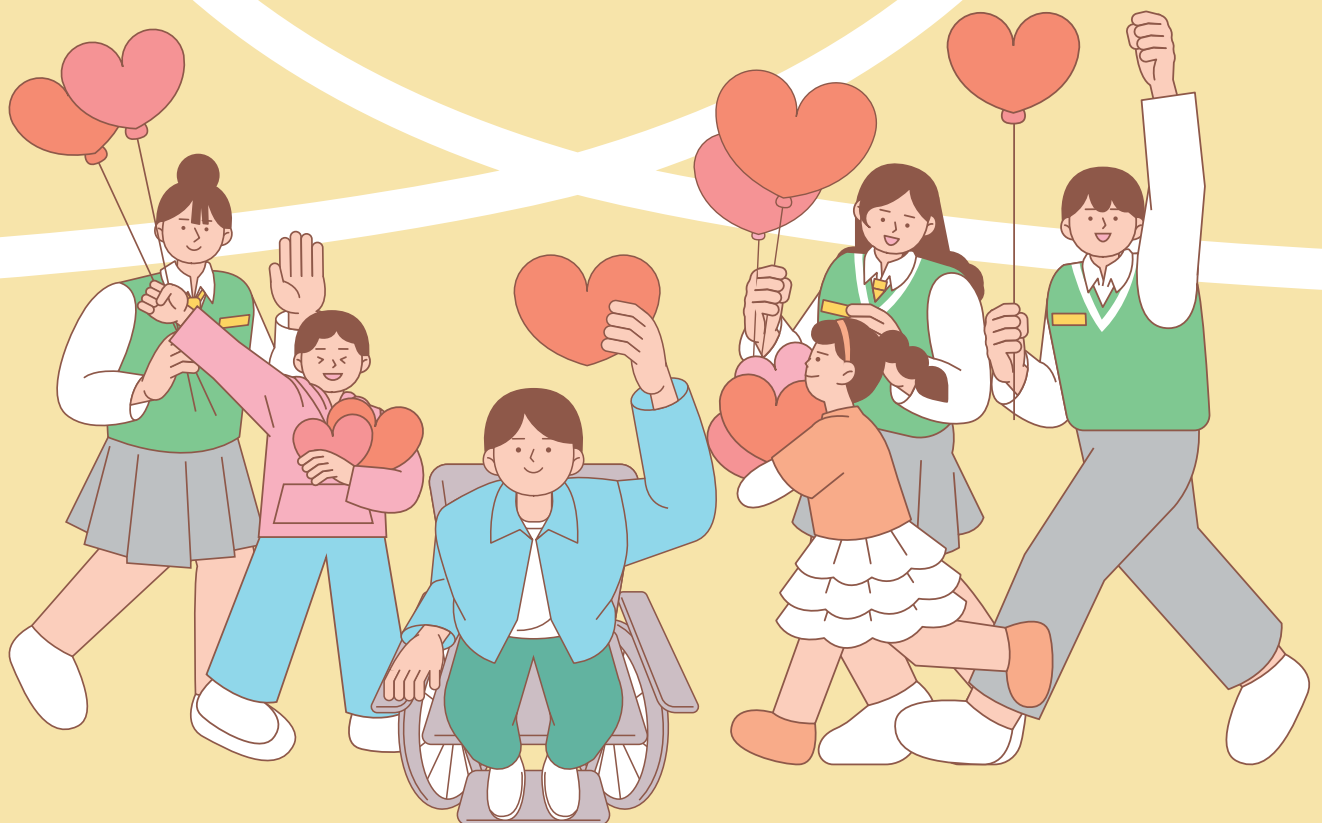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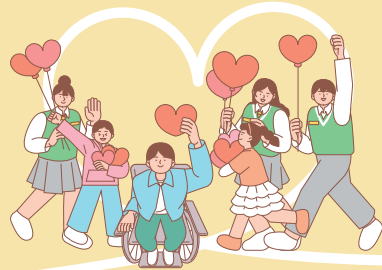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발 간 사



우리 운동본부는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백일장은, 학생들이 글이라는 창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넓은 시선을 갖고, 마음의 거리를 줄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 세대가 만들어 갈 세상이 한층 더 따뜻하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올해 백일장은 마음을 나누며, 차이를 넘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바람이 담겨 있는 의미로 주제를 ‘손잡고 한 발짝 더’로 정했습니다. 응모한 3만 9,760편의 작품 중에 2,225편이 수상하였고, 이 중에서 엄선한 157편으로 작품집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을 발간하였습니다.

작품집에는 세상을 향한 온기어린 시선과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담긴 글을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진정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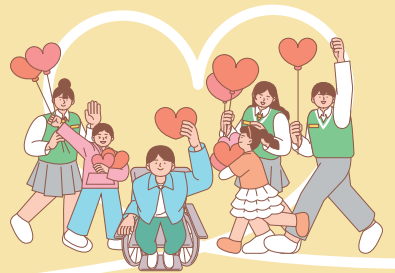
백일장이 매년 빛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공동 주최기관인 소년한국일보사와 삼성화재, 그리고 후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KBS한국방송, WBC복지TV,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IA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동본부는 백일장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 수 성

심사평



안녕하십니까.

올해 백일장 심사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제27회를 맞이한 이번 백일장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 부문이 신설되어 어린 연령대부터 장애 인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번 백일장은 <손잡고 한 발 짝 더>를 주제로, 유아는 그림·포스터, 초등학생은 시·산문·독후감·방송소감문, 중·고등학생은 시·산문·방송소감문과 웹툰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864개교에서 3만 9,760편이 응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784편 증가한 수치로,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응모작 전반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향상되었고, 문학적·예술적 완성도와 장애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잘 드러났습니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감정의 진정성,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솔직한 감정 표현과 표절 여부를 점검하며 평가하였습니다. 수상작들은 주제의식이 명확하고 소재가 다양하며 진솔한 감정을 담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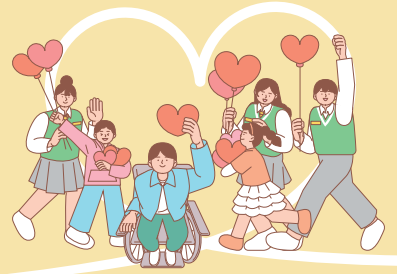
이러한 성과는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보호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일장을 통해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바른 시선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백일장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여는 공감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 9 .

심사위원장 김 은 주

행사 개요



행사명 |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주제 | 손잡고 한 발짝 더

주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

후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KBS한국방송, WBC복지TV,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IA

일시 | 작품모집 2025. 4. 9. ~ 2025. 5. 9.

수상발표 2025. 6. 11.

시상식 2025. 7. 18.

응모 편수 39,760편

응모학교 수 1,864개교

수상자 및 수상학교 2,229명, 16개교

심사위원장 | 김은주 前 서울맹학교 교장

심사위원 | 김금래 시인 / (사)한국동시문학회 부회장

김민혜 유한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조교수

김봉석 시인 / 現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김성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김영빈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회장

김용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김유정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태환 만화가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 / 중원대학교 특임교수

김현정 방송작가

노경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명경미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협력교수

박세정 서울강서뇌성마비복지관 관장

박소정 KBS라디오 방송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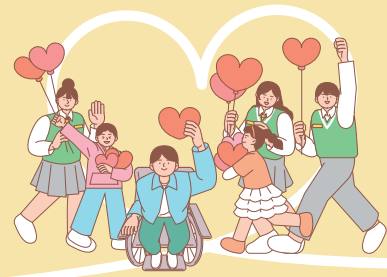
배현정 중앙 SUNDAY 기자

서원극 소년한국일보 상무이사

오덕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략기획팀 매니저

오해균 아동문학가

행사개요



원종욱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조교수

유재창 방송작가

유환숙 방송작가

은지영 방송작가

이민영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보육학과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장

임은경 아동문학가

전병호 前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조소정 아동문학가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채정미 아동문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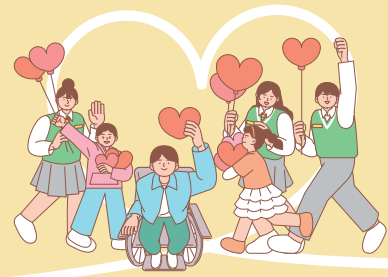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최명숙 작가 / (사)보리수아래 대표

최미영 한국장애인부모회 국장

홍미정 방송작가

황수대 문학평론가

수 상 자 명 단



단체상

교육부장관상

남양주 예은유치원, 광명 가림초등학교, 통영 총렬여자중학교, 수원 숙지고등학교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영신초등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경기 의왕초등학교,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양주 별가람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구미 인덕초등학교

삼성화재사장상

통영 동원중학교, 보령 한내여자중학교, 광주 정광고등학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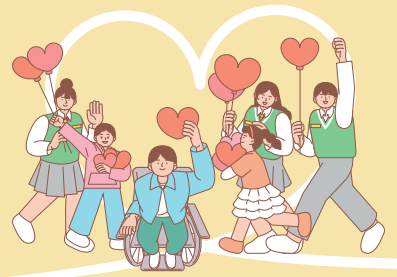
광양 엔젤유치원

공로 표창

교육부장관표창

- * 서울공덕초등학교 김나연 교사
- * 서울 국사봉중학교 이아민 교사
- * 원주 북원중학교 장혜연 교사
-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강광수 교사
- * 부천 상인초등학교
- * 경기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수상자명단



유아

대상

소년한국일보 사장상

◎ 그림(포스터)

김주안(서울 예림유치원 7세)

최우수상

소년한국일보 사장상

◎ 그림(포스터)

장유나(안산 자연생태숲유치원 7세), 김찬유(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유성빈(구미 천사유치원 7세)

우수상

◎ 그림(포스터)

박서은(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곽하음(대전 신탄진용정초병설유치원 6세),
김하윤(서울 예림유치원 6세), 육서아(인천 다운유치원 7세), 임지율(인천 자유유치원 6세)

장려상

◎ 그림(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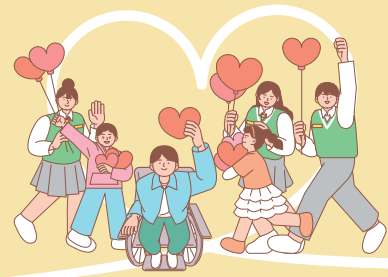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신희서(춘천 새봄유치원 7세), 김채유(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최시온(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프레차 아니카리(안성비룡초병설유치원 5세), 김서훈(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최예준(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김채희(인천 다솜유치원 7세), 정시현(광양 엔젤유치원 7세),
조수민(화순 이양초병설유치원 6세), 윤솔희(청주 예아뜨유치원 7세)

가작

◎ 그림(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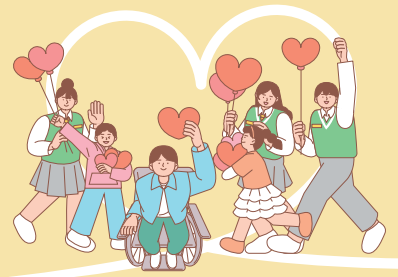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류 준(광명 해누리유치원 5세), 이아진(광명 해누리유치원 6세), 신원겸(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유영준(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이루다(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이유주(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홍지민(군포 여수륜유치원 7세), 김규리(남양주 예은유치원 5세), 김나울(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김리아(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성아윤(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손예은(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수상자명단



신예솔(남양주 예은유치원 6세), 권민서(남양주 예은유치원 7세), 이소을(남양주 예은유치원 7세), 최연수(남양주 예은유치원 7세), 황시후(남양주 예은유치원 7세), 임예나(분당 샘물학교 7세), 박수현(시흥 시립시화푸른바다어린이집 7세), 정다정(시흥 시립시화푸른바다어린이집 7세), 남시우(안산 자연생태숲유치원 6세), 김선율(안산 자연생태숲유치원 7세), 백지안(의정부 예지유치원 5세), 한서윤(의정부 예지유치원 5세), 이하랑(의정부 예지유치원 7세), 김연우(김해 주석초병설유치원 7세), 이지안(김해 주석초병설유치원 7세), 정니엘(김해 주석초병설유치원 7세), 이예원(양산 물금유치원 6세), 배우진(양산 물금유치원 7세), 이다인(양산 물금유치원 7세), 이하윤(경주 현곡푸르지오어린이집 7세), 표정민(고령 쌍림초병설유치원 7세), 김소윤(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박시아(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배수아(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윤채하(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이나울(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윤예준(예천 호명라운유치원 7세), 장시우(예천 호명라운유치원 7세), 문하성(광주 꿈그린유치원 7세), 이은결(광주 꿈그린유치원 7세), 정세아(광주 꿈그린유치원 7세), 이수빈(대구 사과나무유치원 6세), 권이주(대구 칠곡한솔유치원 7세), 신다은(대전 신탄진웅정초병설유치원 6세), 박나린(대전피노키오유치원 6세), 유지안(대전피노키오유치원 6세), 조아준(대전피노키오유치원 6세), 김지후(대전피노키오유치원 7세), 이로운(대전피노키오유치원 7세), 장유정(대전피노키오유치원 7세), 신율리(서울 목동다솜유치원 7세), 김은서(서울 예림유치원 6세), 설재이(서울 예림유치원 6세), 김서진(서울 예림유치원 7세), 신주아(서울 예림유치원 7세), 정수빈(서울 예림유치원 7세), 정시현(서울 예림유치원 7세), 양준서(서울 예일어린이집 7세), 장은솔(세종 가득유치원 7세), 김채경(세종 미르유치원 6세), 김단아(인천 발산초병설유치원 7세), 송제이(인천 발산초병설유치원 7세), 이채연(인천 발산초병설유치원 7세), 김현서(인천 솔빛유치원 6세), 김민혁(인천 솔빛유치원 7세), 손재이(인천 솔빛유치원 7세), 오인혜(인천 솔빛유치원 7세), 최하윤(인천 솔빛유치원 7세), 김규민(인천 용정초병설유치원 6세), 김우진(광양 엔젤유치원 7세), 박지호(광양 엔젤유치원 7세), 배은유(광양 엔젤유치원 7세), 배주한(광양 엔젤유치원 7세), 이효준(광양 엔젤유치원 7세), 장시연(광양 엔젤유치원 7세), 조하랑(광양 엔젤유치원 7세), 허지운(광양 엔젤유치원 7세), 권도윤(익산맑은샘유치원 7세), 오민설(익산맑은샘유치원 7세), 송강민(전주 가나유치원 6세), 김민건(제주서초병설유치원 7세), 김유준(공주 유구초병설유치원 7세), 유하온(논산 강경중앙초병설유치원 7세), 이루다(천안도솔유치원 6세), 임은강(천안도솔유치원 7세), 장서하(천안도솔유치원 7세), 정시원(천안도솔유치원 7세), 김노윤(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김도환(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김민서(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김비주(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노하울(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박지안(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송지안(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안병훈(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유지수(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조경준(천안 백향목유치원 7세), 유재이(충주 우암유치원 6세), 정예원(충주 우암유치원 6세), 윤수아(충주 우암유치원 7세)

수상자명단



초등학생

대상

교육부장관상

- 시 황채아(서울강남초 6)
- 산문 정태오(창원 현동초 3)
- 독후감 김태은(화성 수현초 3)
- 방송소감문 서은성(창원 평산초 5)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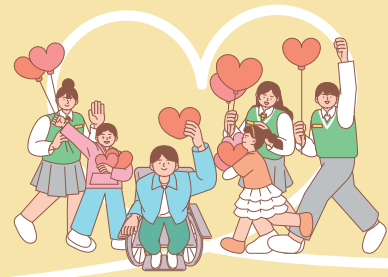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시·도지사상

- 시
전혜람(강릉 울곡초 6), 한지윤(성남 중부초 2), 유하영(광양덕례초 6), 김린아(부산 거제초 2),
김민진(제주 삼성초 4)
- 산문
조윤주(이리동북초 6), 박승유(청주 생명초 5), 김지안(광주 동림초 4), 주소율(인천구월서초 4)
- 독후감
김민재(대구성동초 5)
- 방송소감문
정소진(거창 북상초 6), 황시원(경주 동방초 3), 성시현(아산 탕정초 4), 임소윤(대전 두리초 6),
장하윤(서울을지초 6), 강하윤(세종 다정초 6), 최유성(울산 온양초 3)

시·도교육감상

- 시
김윤우(수원 영덕초 6), 정민준(영천 포은초 3), 정세빈(서울잠원초 5), 송민아(청주 미원초금관분교장 4)
- 산문
김보영(김해 봉명초 6), 권서준(대구국제학교 5), 김민성(울산 강남초 4), 김효림(제주 월랑초 6)
- 독후감
김문주(원주 무실초 4), 이지민(광주 고실초 5), 오승규(인천해든초 6)
- 방송소감문
심규민(성남 보평초 6), 하나린(대전 목동초 6), 김서우(부산 용문초 6), 심하은(세종 연양초 3),
박세은(보성 벌교초 6), 조연주(이리동북초 4), 박규람(계룡 용남초 6)

수상자명단



KBS 사장상

◎ 방송소감문

방라엘(용인 대일초 6), 이지호(경산 성암초 5), 진소민(경산 성암초 6), 홍서진(광주 건국초 5),
이도윤(세종 연양초 3)

우수상

◎ 시

김승주(경산 성암초 5), 유예솔(서울북성초 6), 김지우(서울신내초 5), 이유나(서울영도초 6),
이가영(청주 상당초 5)

◎ 산문

정효슬(강릉 유천초 6), 김세연(대전 한밭초 3), 정연우(서울구룡초 6), 하세정(서울구암초 3),
이연주(서울영신초 4)

◎ 독후감

유송현(김포 운양초 6), 손민성(경주 현곡초 5), 이리안(서울목운초 4), 신소연(세종 다정초 3),
최규은(울산 월평초 6)

◎ 방송소감문

오윤아(남양주 다산한강초 6), 여은서(남양주 다산한강초 6), 허유리(서울공덕초 2),
신지호(서울양재초 6), 이서영(인천담방초 6)

장려상

◎ 시

남궁선재(고양 지축초 5), 민효진(광명 가림초 6), 장시원(안양 호원초 6) 김연재(하남 위례초 3),
이하울(화성벌말초 6), 김지우(상주 청리초 6), 설채은(경북 영양초 5), 홍채은(광주 동림초 6),
김서하(서울 송의초 2), 김서우(인천해송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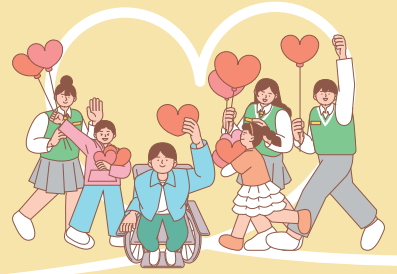
◎ 산문

황채윤(경주 황남초 6), 박서현(부산 가동초 5), 강다영(서울대치초 4), 이도은(서울새솔초 4),
정다미(서울휘봉초 6), 장사윤(인천연송초 5), 김시후(무안 남악초 5), 김지민(제주 삼화초 6),
성시현(천안 불당초 6), 황다현(천안 청룡초 6)

◎ 독후감

황윤하(원주 무실초 5), 김시우(사천 정동초 6), 박지유(광주 월봉초 4), 양소윤(대전새미래초 5),
임효영(부산 예원초 4), 국하연(세종 대평초 4), 한아윤(여수 도원초 6), 박시원(여수 여도초 6),
문윤아(제주 삼양초 3), 배윤아(천안 불당초 5)

수상자명단



◎ 방송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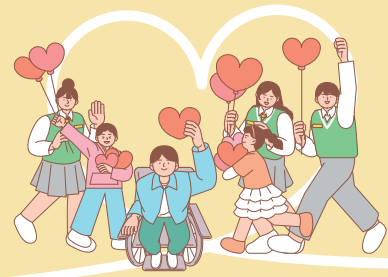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이소윤(부천대명초 3), 권은서(성남 불정초 6), 홍예리(수원 매원초 5), 윤라후(용인 대일초 6), 박예은(화성 예당초 6), 김예인(서울공덕초 5), 민지인(서울구룡초 6), 허윤제(서울구암초 6), 장현정(무안 남악초 5), 이서혜(금산 진산초 6)

가 작

◎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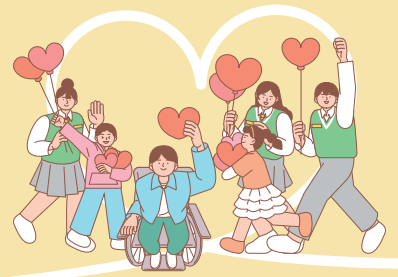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민은결(강릉 경포초 3), 김소린(강릉 유천초 3), 유소원(강릉 유천초 3), 심미송(강릉 유천초 3), 강 건(강릉 울곡초 6), 강민재(강릉 울곡초 6), 이정우(강릉 울곡초 6), 송민서(강릉 울곡초 6), 최지민(강릉 울곡초 2), 박연우(원주 학성초 6), 박지유(원주 학성초 6), 김한비(춘천 부안초 4), 정하윤(춘천 성림초 4), 전서윤(춘천 성림초 5), 이해원(고양 내유초 6), 손예원(고양 성라초 6), 강가울(고양 정발초 2), 강채윤(고양 정발초 3), 이서율(고양 지축초 5), 박하람(과천 문원초 6), 김연서(과천 문원초 6), 임예나(광명 가림초 5), 전채나(광명 가림초 6), 조다현(광명 가림초 4), 임재해(광명 가림초 6), 김리우(김포 사우초 6), 윤미래(남양주 다산하늘초 5), 이서린(남양주 다산하늘초 5), 이채윤(남양주 다산한강초 4), 최서윤(남양주 진건초 6), 반예나(부천대명초 6), 배서희(부천 상미초 4), 권나훤(부천 상인초 5), 김서하(부천 상인초 2), 최연우(부천 상인초 5), 김아인(부천 상인초 6), 한민혁(부천 상인초 6), 김정율(부천 상인초 6), 장은율(부천 상인초 3), 김채원(부천 상인초 6), 박훈(부천 상인초 5), 신수민(부천 상인초 6), 원채교(부천 상인초 5), 이소율(부천 상인초 6), 홍가연(부천 상인초 4), 이이다(부천 상일초 6), 김가현(부천 소일초 4), 심하린(성남 대하초 5), 김여울(성남송현초 4), 최하연(성남송현초 2), 남지호(성남송현초 4), 김리원(성남정자초 4), 박민지(수원 규장초 5), 김소은(수원 망포초 6), 홍예은(시흥 도일초 5), 강주안(안양 덕천초 5), 어윤석(안양 덕천초 5), 우민서(안양 덕천초 5), 이예림(안양 덕천초 5), 나주희(안양 동안초 6), 황정원(안양 동안초 6), 김미주(안양 별말초 5), 김도은(안양 부흥초 6), 용예솔(양주 만송초 4), 안시은(양주 삼송초 6), 이서준(양주 은현초 3), 김주하(양주 푸른샘초 3), 송태준(양주 푸른샘초 3), 김혜은(오산 문시초 5), 김예준(용인 둔전초 4), 홍채윤(용인 정평초 1), 복동건(용인 정평초 6), 곽유주(용인 죽전초 5), 박재범(용인 죽전초 5), 김서원(경기 의왕초 6), 이주아(경기 의왕초 6), 김기현(이천사동초 4), 이윤서(하남미사중앙초 6), 안유나(화성 서연초 4), 이시윤(화성 서연초 3), 강다운(화성 서연초 4), 조수인(화성 수현초 4), 손수호(화성 수현초 3), 황해온(화성 아인초 6), 양희준(의왕 갈매초 6), 주아인(의왕 갈매초 5), 황서현(의왕 갈매초 6), 이지유(의왕 갈매초 3), 최다현(거제 기성초 6), 이준서(거창 창남초 5), 장한별(김해 금산초 4), 한서율(김해 금산초 4), 정에서(김해 봉명초 6), 손예원(김해 주촌초 5), 정혜리(김해 주촌초 5), 김시연(김해 진영중앙초 2), 장도원(밀양 사포초 5), 정소민(사천 동성초 2), 김동건(양산 용연초 6), 김준서(양산 용연초 6), 오정현(양산 용연초 6), 하도경(양산 평산초 4), 김주하(진주 서진초 6), 유지선(창녕 명덕초 6), 이연서(창원 동부초 6), 성지은(창원 신방초 3), 김영서(창원합포초 6), 윤하원(창원 합포초 6),

수상자명단



이하린(창원 합포초 5), 김경민(창원 현동초 6), 정윤주(통영 벽방초 5), 홍다은(통영 죽림초 1),
조은지(함안 월촌초 2), 김나혜(김해 봉명초 6), 최여울(김해 봉명초 6), 한준서(김해 봉명초 6),
곽라엘(경산 금락초 6), 김이준(경산 금락초 5), 정여빈(경산 금락초 6), 손은재(경주 패릉초 4),
백다솜(경주 동방초 6), 이주온(경주 동방초 6), 임성민(경주 동방초 6), 김주혁(경주 산대초 3),
이지용(경주 서라벌초 5), 김사랑(경주 양동초 2), 노담희(경주 용강초 4), 박준서(경주 현곡초 1),
손민성(경주 현곡초 5), 최은솔(경주 현곡초 2), 이연지(경주 현곡초 1), 박수빈(경주 황남초 4),
이다현(경주 황남초 4), 정예린(구미 도봉초 4), 박채연(구미 도봉초 5), 김유준(구미사곡초 2),
문다현(구미 옥계초 5), 이지연(구미인덕초 5), 임서하(구미인덕초 5), 김금샘(구미인덕초 6),
김라운(김천 금릉초 5), 김준후(김천 금릉초 5), 전준우(김천 금릉초 5), 최지윤(김천 금릉초 5),
오준원(김천 울곡초 3), 이연서(광주 건국초 5), 이서율(광주지산초 4), 이 찬(광주지산초 1),
신유화(대구화동초 6), 박하린(대구화동초 3), 박지유(대구남산초 5), 이 현(대구대청초 2),
김은우(대구보건학교 3), 송 현(대구사수초 5), 김채윤(대구상원초 1), 안지유(대구왕선초 6),
이도형(대구왕선초 6), 이예설(대구왕선초 6), 이정우(대구왕선초 6), 조수완(대구중앙초 5),
변채연(대구 효성초 5), 장은서(대전둔천초 1), 강소울(대전산성초 6), 안혜주(대전중리초 4),
전은서(부산 명원초 2), 김가온(부산 민안초 4), 이정민(부산 백운초 3), 오채연(부산 가야초 5),
진다인(부산 개금초 4), 김리원(부산 낙동초 4), 노민지(부산 남명초 4), 양서준(부산 남문초 6),
박서우(부산 녹산초 5), 이윤석(부산 대신초 5), 오서연(부산 덕성초 2), 전효주(부산 명문초 6),
심규민(부산 민안초 6), 이채은(부산 민안초 6), 장서연(부산 민안초 6), 박시은(부산 분포초 6),
방윤선(부산 사직초 5), 한서윤(부산 양성초 5), 조이환(부산 창신초 5), 노지호(서울명신초 5),
박시은(서울수명초 6), 정아린(서울신남초 4), 최서현(서울영도초 5), 변준서(서울위례별초 4),
유아린(서울강남초 6), 이지하(서울고일초 5), 이 린(서울구룡초 6), 조윤지(서울대림초 4),
윤지우(서울도성초 3), 안서영(서울동자초 6), 이예진(서울동자초 6), 박수아(서울삼전초 5),
고담울(서울새솔초 4), 홍아윤(서울서래초 3), 이설아(서울서래초 5), 김주아(서울서래초 6),
백한비(서울선사초 6), 안세령(서울성일초 4), 남궁담(서울송천초 6), 이서연(서울신길초 6),
조운호(서울신길초 6), 박수아(서울신내초 5), 신주영(서울신도림초 6), 김민준(서울양재초 6),
박하은(서울언남초 3), 김성빈(서울영신초 4), 최수인(서울용산초 3), 이예슬(서울위례별초 4),
이나준(서울응봉초 6), 이다희(서울중랑초 6), 정시현(서울휘봉초 5), 안정인(서울휘봉초 4),
이서준(서울휘봉초 6), 김시안(서울휘봉초 4), 김주원(세종 연양초 3), 임서혁(세종 연양초 3),
김정원(세종 연양초 5), 김가형(울산 강동초 3), 김소이(울산 농소초 2), 김하경(울산 명촌초 6),
신현승(울산 여천초 4), 정세라(울산 옥동초 5), 김지연(울산 옥산초 3), 김태경(울산 월계초 4),
이연서(인천동암초 6), 임지안(인천송림초 1), 이윤서(인천한길초 5), 장서원(전남 고흥동초 5),
김가은(광양백운초 6), 박민서(광양중마초 6), 이하현(광양중마초 6), 윤세웅(무안 남악초 6),
임윤서(보성 벌교초 6), 김나경(보성 벌교초 6), 김서은(순천왕조초 5), 이서연(순천왕지초 6),
남세연(여수 관기초 4), 김라희(여수문수초 4), 김지울(여수송현초 5), 공서윤(여수 신기초 4),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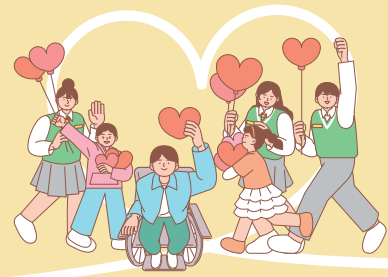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박상언(여수 신기초 4), 이지효(완도 금당초 5), 이 유(완도중앙초 1), 박소현(익산 옥야초 6), 김그린(제주 노형초 5), 강예린(제주 신제주초 3), 부가윤(제주 인화초 5), 강예나(제주 동광초 4), 김도윤(증평 삼보초 5), 박소윤(청주 미원초금관분교장 1), 송민혁(청주 미원초금관분교장 2), 송민호(청주 미원초금관분교장 5), 김하진(청주 상당초 5), 강하린(청주 청원초 5), 김나래(청주 흥덕초 5), 김동아(충주 남산초 6)

● 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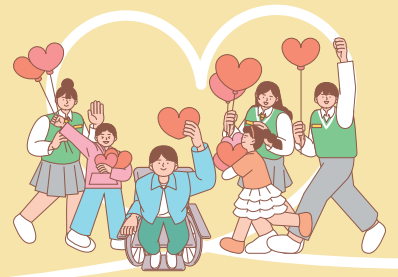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박채인(강릉 경포초 6), 고은결(강릉 교동초 6), 구서진(강원 정선초 2), 이태울(고양 내유초 6), 양다솜(고양 내유초 6), 김지후(고양 성라초 6), 이사윤(고양 지축초 5), 최승하(고양 지축초 5), 조세연(광명 가림초 3), 전다은(광명 가림초 4), 유시울(광명 가림초 4), 김예린(광명 가림초 6), 박하은(김포 유현초 6), 이수혁(김포 유현초 6), 김단아(남양주 다산한강초 6), 윤 수(남양주 수동초송천분교 3), 조한빛(남양주 수동초송천분교 6), 유다온(동두천 지행초 3), 이승민(부천대명초 4), 이윤하(부천 상인초 5), 장은채(부천 상인초 6), 김지수(부천 상인초 6), 곽은서(부천 소일초 5), 김태은(부천 옥길산들초 6), 전유진(부천 원미초 6), 고유리(성남 FIS국제학교 1), 전윤서(성남 내정초 4), 김수아(성남 늘푸른초 3), 오종우(성남 대하초 4), 서주완(성남 샘물학교 6), 강지울(성남송현초 3), 이유은(성남 신백현초 5), 권윤리(성남 안말초 4), 강예진(하남 위례초 6), 이지민(성남 위례푸른초 5), 임라희(성남 위례푸른초 5), 김채이(성남 위례푸른초 6), 임세온(성남 위례푸른초 6), 정지우(성남 위례푸른초 6), 김미소(성남 위례푸른초 6), 김재인(성남정자초 4), 이유준(수원 규장초 3), 김윤하(수원 망포초 6), 유아라(수원 망포초 6), 이현서(수원 망포초 6), 이지안(수원 매원초 4), 유다온(수원 서호초 3), 이현서(수원 서호초 3), 이승현(수원 서호초 3), 김민솔(수원 서호초 6), 박가연(수원 서호초 6), 유수호(시흥 대야초 6), 최서은(안양 별말초 5), 구다은(안양 샘모루초 6), 고영후(안양 호원초 6), 강민지(안양 호원초 6), 유혜원(양주 은현초 3), 이규리(여주 세종초 2), 이승현(여주 세종초 2), 여찬희(여주 세종초 5), 박범진(용인 미카인터네셔널스쿨 4), 윤다인(용인 대일초 3), 고유진(용인 정평초 6), 문서영(용인 죽전초 5), 김태은(용인 죽전초 5), 민윤서(용인 죽전초 5), 박서진(용인 죽전초 5), 박채현(경기 의왕초 4), 남희서(경기 의왕초 4), 박혜연(경기 의왕초 4), 김소담(경기 의왕초 5), 김지안(이천 송정초 1), 김라희(이천 송정초 4), 전지후(파주 가온초 5), 전서윤(파주대원초 2), 강태양(화성 서연초 3), 김지윤(화성 서연초 3), 표지원(화성 청목초 5), 김혜승(시흥 함현초 3), 김규리(의왕 갈매초 4), 김설아(거제 기성초 6), 김윤아(거제 연초초 4), 여지훈(거제 연초초 4), 김민채(거창 창남초 3), 옥수지(거창 창남초 3), 조예지(거창 창남초 3), 홍우빈(거창 창남초 5), 신은결(김해 삼계초 6), 김예인(김해신명초 5), 조혜원(김해신명초 6), 김지울(김해 주촌초 4), 김보민(김해 주촌초 4), 김도희(양산 황산초 4), 정 온(진주 신진초 5), 김예린(창원 신방초 3), 김휘준(창원 합포초 3), 김민지(창원 합포초 5), 김준영(창원 현동초 5), 김유림(창원 현동초 5), 서태윤(창원 회원초 4), 신민아(통영 벽방초 6), 이은채(김해 봉명초 6), 김서현(김해 봉명초 6), 백이현(경산 금락초 6), 유다현(경산 성암초 4), 김민아(경산 옥곡초 4), 박지울(경산 옥곡초 4), 김유진(경주 동방초 6), 박시온(경주 동방초 6), 손수지(경주 동천초 6), 김시윤(경주 산대초 4), 박민준(경주 산대초 6),

수상자명단



신옥현(경주 산대초 6), 한진홍(경주 산대초 6), 이예안(경주 아화초 4), 이원근(경주 아화초 6),
 하서진(경주 용강초 5), 김소정(경주 유림초 5), 김지유(경주 유림초 5), 신윤서(경주 현곡초 6),
 박준이(구미 도봉초 6), 김지유(구미 문성초 6), 서지윤(구미 문성초 6), 이서현(구미 문성초 6),
 천지아(구미 문성초 6), 이승은(구미 원남초 6), 최서연(구미인덕초 6), 김서하(김천 울곡초 5),
 이현석(김천 울곡초 5), 김보람(경북 영양초 5), 김시울(광주 고실초 6), 선민아(광주 동림초 4),
 김재현(대구동도초 4), 임지후(대구화원초 5), 손석호(대구경동초 5), 허수민(대구남산초 5),
 김민서(대구동도초 2), 김리하(대구동도초 3), 하지훈(대구사수초 6), 양유담(대구왕선초 3),
 조아인(대구왕선초 3), 정소은(대구왕선초 5), 권소연(대구용전초 6), 권성범(대구중앙초 6),
 윤수아(대전글꽃초 5), 이서울(대전매봉초 2), 권민교(대전매봉초 3), 박서연(대전버드내초 6),
 김남훈(대전북용초 5), 김도원(대전산성초 6), 김태연(대전산성초 6), 박나현(대전 신탄진용정초 6),
 한예서(대전 신탄진용정초 6), 황서연(대전한밭초 4), 박재현(부산 개금초 6), 김나경(부산 낙동초 6),
 김유진(부산 낙동초 6), 한서진(부산 낙동초 6), 전지연(부산 남명초 4), 이나경(부산 남문초 6),
 안시아(부산 명륜초 4), 박정현(부산 뽕엘국제스쿨 3), 권아송(부산 분포초 4), 이도윤(부산 분포초 4),
 이보영(부산 분포초 6), 이서윤(부산 용문초 6), 이설빈(부산 용문초 6), 손지우(부산 창신초 4),
 이지윤(부산 창신초 4), 이가온(부산 창신초 5), 남궁린(서울잠현초 6), 송태건(서울 BEK 4),
 김리아(서울강남초 3), 김소망(서울강남초 3), 양은재(서울강남초 3), 유나연(서울강남초 4),
 이해우(서울개일초 2), 심규연(서울개일초 4), 김원교(서울 경북초 5), 조나울(서울고일초 5),
 김우현(서울공덕초 5), 이하연(서울공덕초 6), 이서윤(서울구룡초 6), 김반이(서울구룡초 6),
 황서이(서울구룡초 6), 정지우(서울구암초 4), 한유정(서울구암초 4), 이승주(서울구암초 5),
 정혜원(서울구암초 6), 이예지(서울대도초 3), 문소윤(서울대도초 6), 박상원(서울대치초 4),
 김주하(서울대치초 5), 김서울(서울대현초 6), 조윤우(서울도성초 5), 김채민(서울동자초 6),
 서재이(서울목운초 5), 변주아(서울미래초 4), 엄지후(서울방산초 4), 홍서현(서울상수초 6),
 강시현(서울새솔초 4), 계신혜(서울새솔초 5), 김효찬(서울새솔초 6), 문지인(서울새솔초 6),
 김서아(서울서래초 3), 김채원(서울서래초 5), 이가윤(서울서래초 6), 김하임(서울신내초 5),
 강서은(서울신동초 5), 홍지우(서울신동초 5), 진서윤(서울양재초 4), 황수현(서울양재초 5),
 안윤서(서울언주초 5), 강다은(서울영신초 3), 노유민(서울영신초 3), 송서은(서울영신초 3),
 김휘율(서울영신초 4), 김윤하(서울영신초 4), 구나연(서울영신초 4), 한채원(서울영신초 6),
 남정원(서울영신초 6), 강다은(서울우면초 3), 조예원(서울을지초 6), 이채아(서울잠전초 5),
 장은우(서울중광초 6), 김현서(서울중랑초 5), 양나윤(서울휘봉초 6), 이 설(세종 연양초 4),
 이윤서(울산 삼호초 6), 김서원(울산 서생초 4), 정유민(울산 옥동초 5), 유도운(울산 이화초 6),
 김하늘(울산초 3), 노은유(울산초 6), 김민서(울산 화정초 5), 김시은(울산 화정초 5),
 최현아(인천 먼우금초 5), 김도윤(인천 양촌초 2), 이해원(인천한길초 5), 김가람(광양중마초 6),
 류정현(광양중마초 6), 서온유(광양중마초 6), 양건우(광양중마초 6), 최지원(광양중마초 6),
 김지윤(광양중마초 6), 김나윤(나주 라온초 4), 한승수(나주 라온초 4), 박하빈(무안 남악초 6),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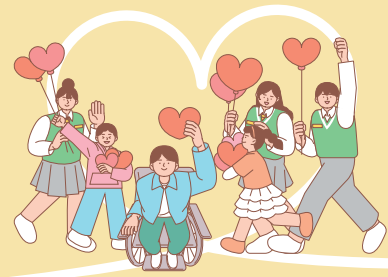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김민하(보성 별교초 5), 김민철(보성 별교초 6), 이태경(보성 별교초 6), 송예은(순천왕조초 4), 조성진(순천왕지초 6), 이윤주(여수 관기초 3), 김라희(여수 문수초 4), 이서윤(여수한려초 5), 신채민(정읍 한솔초 4), 김시현(제주 신광초 6), 김하울(제주 인화초 3), 송아름(제주 동광초 4), 고가은(제주 삼화초 5), 최은채(계룡 용남초 5), 김아원(계룡 용남초 5), 이하린(청주 생명초 5), 김은후(청주 청원초 5), 김영광(하노이한국국제학교 2), 조린아(하노이한국국제학교 2), 김연지(하노이한국국제학교 5), 전은율(하노이한국국제학교 6), 최리엘(하노이한국국제학교 6)

● 독후감

심 율(부천 계남초 5), 성하린(부천 상인초 4), 채정우(부천 상인초 5), 김세움(부천 상인초 6), 이해연(부천 상일초 4), 성하은(부천 상일초 6), 조아인(부천 상일초 6), 이가후(부천 석천초 6), 김로연(부천 신도초 5), 박진호(부천 신도초 5), 최다경(부천 신도초 5), 최슬아(부천 신도초 5), 임소윤(부천 옥길버들초 5), 박시연(부천 원일초 3), 신지윤(성남 내정초 4), 김도하(성남 보평초 3), 박주하(성남 샘물학교 4), 박주하(성남 샘물학교 5), 김수예(성남 샘물학교 4), 정이라(성남 샘물학교 4), 오설하(성남송현초 6), 전준성(성남 여수초 3), 채유나(성남 판교대장초 3), 안윤우(수원 규장초 1), 홍아린(수원 규장초 1), 마소율(수원 규장초 1), 이지안(수원 매원초 4), 이서은(안양 덕천초 5), 권가현(안양 샘모루초 6), 권서은(안양 샘모루초 6), 김평안(안양 호원초 3), 송하린(안양 호원초 4), 박서현(안양 호원초 4), 김모린(안양 호원초 6), 이수억(양주 은현초 3), 조아준(용인 교동초 4), 조성연(용인 대일초 2), 장 솔(용인 대일초 5), 김하은(용인 동천초 3), 오은채(용인 손곡초 3), 임도윤(용인 정평초 4), 엄소윤(용인 죽전초 5), 손수호(화성 수현초 3), 김지우(의왕 갈매초 3), 홍예슬(의왕 갈매초 4), 최예윤(의왕 갈매초 6), 김윤서(고성 하이초 4), 백시안(고성 하이초 4), 장아리(알찬(고성 하이초 4), 한지민(김해 신명초 6), 이윤서(양산 석산초 4), 이아현(진주 금산초 5), 손예진(창원 합포초 5), 김나영(창원 현동초 1), 이연우(통영 제석초 4), 정세현(통영 죽림초 2), 허준우(경산 금락초 5), 방서우(경주 현곡초 3), 김지안(경주 현곡초 3), 김지유(경주 현곡초 3), 유아린(구미 금오초 2), 이효주(구미 사곡초 5), 이유미(구미 옥계초 4), 임서윤(구미 인덕초 2), 정다인(구미 인덕초 5), 장하울(구미해마루초 6), 김지유(김천부곡초 3), 김지환(김천부곡초 4), 김근희(김천부곡초 6), 전지현(봉화 동양초 2), 김혜원(청송 진보초 5), 김슬아(칠곡 대교초 6), 류연지(광주 만호초 6), 윤세빈(광주 무등초 1), 장다인(광주 수완초 3), 이시온(광주 영천초 2), 정은후(광주학운초 1), 최리안(광주효동초 1), 김서울(대구달성초 5), 배승주(대구입석초 2), 박정원(대구성동초 3), 최서진(대전 대덕초도룡분교장 5), 신채율(대전도솔초 3), 이서율(대전매봉초 2), 권민교(대전매봉초 3), 오두영(대전버드내초 6), 이 담(대전선화초 3), 정이현(대전한밭초 3), 김지훈(부산 교동초 5), 이도담(부산 신정초 5), 백지유(부산 해빛초 3), 손우현(부산 해원초 4), 설혜원(부산 남문초 4), 조연우(부산 남문초 5), 이창민(부산 명륜초 6), 정시현(부산 분포초 4), 윤하윤(부산 사직초 5), 박지아(부산 상당초 6), 이서율(부산 오션초 5), 김민채(부산 창신초 6), 이서연(서울대도초 3), 조보민(서울명덕초 5), 박지원(서울잠현초 5), 이현찬(서울해누리초 3), 김유빈(서울개운초 3), 문서원(서울개현초 3), 남연아(서울거원초 5), 문주원(서울거원초 5),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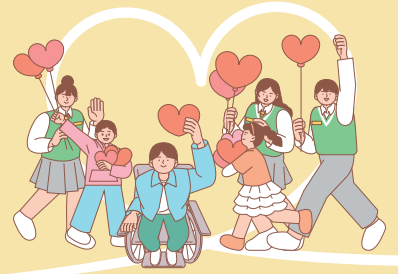


박윤슬(서울고명초 1), 김윤진(서울교대부설초 3), 황솔빈(서울구룡초 6), 한기선(서울남부초 6), 박현제(서울대모초 3), 오유빈(서울동자초 6), 이준우(서울동자초 6), 문로아(서울미래초 5), 손준후(서울미래초 5), 신세린(서울방일초 5), 송재빈(서울방일초 5), 김윤아(서울방화초 4), 김하민(서울방화초 5), 이다희(서울방화초 5), 이수연(서울방화초 5), 김샤론(서울방화초 6), 정준우(서울방화초 6), 이윤재(서울서래초 2), 이유하(서울서래초 3), 황준서(서울서래초 3), 조하은(서울선사초 6), 이해민(서울신내초 3), 함소미(서울신동초 5), 박준희(서울신동초 5), 박채은(서울신동초 5), 이봄(서울영문초 3), 강다경(서울응봉초 6), 박윤진(서울잠현초 3), 강지우(서울평화초 3), 이우진(서울포이초 4), 김나울(서울홍제초 6), 이어진(세종 연양초 5), 이동호(울산 호연초 5), 최민서(울산 옥동초 1), 박나은(울산 옥동초 2), 최솔아(울산 옥동초 2), 최세아(울산초 6), 고민설(인천경원초 3), 육서준(인천 경인교대부설초 3), 김유정(인천담방초 6), 노연우(인천해원초 4), 최윤서(구례 광의초 3), 조민성(담양 가사문학초 5), 오윤서(보성 벌교초 6), 조현서(여수 안심초 5), 조이안(여수 안심초 5), 정형욱(여수 여도초 6), 방상아(여수 웅천초 6), 김민설(여수 한려초 6), 이수애(이리초 1), 권지훈(천안 환서초 4)

◎ 방송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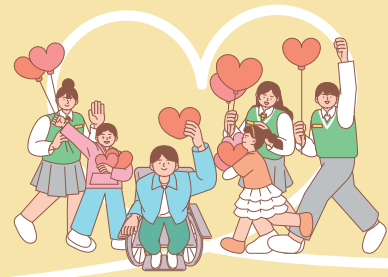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최정원(동해 청운초 6), 정가은(원주 북원초 4), 유서연(원주 북원초 6), 조예서(원주 북원초 6), 김유진(원주 샘마루초 4), 배가은(원주 샘마루초 4), 이시아(원주 샘마루초 4), 박채은(강원 남춘천초 5), 유아영(강원 남춘천초 5), 장윤아(춘천 부안초 4), 김윤서(춘천 부안초 5), 최다운(춘천 성림초 3), 이시은(춘천 성림초 4), 김하민(춘천 성림초 6), 이재하(춘천 성림초 6), 김태연(춘천 장학초 6), 강주은(고양 내유초 6), 박예진(고양 내유초 6), 김예찬(고양 내유초 6), 이민정(고양 내유초 6), 최지원(고양 양일초 5), 조아인(고양 정발초 2), 신해리(고양 정발초 2), 최시우(고양 정발초 2), 강준희(고양 정발초 2), 김아영(과천 문원초 6), 김다인(광명 가림초 3), 전리암(광명 가림초 4), 원서하(광명 가림초 4), 이시윤(광명 가림초 5), 박진아(광명 가림초 6), 김수아(경기 광주송정초 5), 이시후(김포 개곡초 6), 이하라(김포 고촌초 4), 손지후(김포 사우초 6), 오승준(김포 사우초 6), 최희성(김포 사우초 6), 홍서희(김포 사우초 6), 김병희(김포 사우초 6), 윤시훈(김포 사우초 6), 심다진(김포 신곡초 6), 김아린(남양주 다산한강초 6), 김채윤(남양주 다산한강초 3), 현지우(남양주 다산한강초 3), 정지효(남양주 다산한강초 6), 오주아(남양주 다산한강초 6), 조이든(남양주 다산한강초 6), 하도경(남양주 동곡초 4), 이용재(남양주 별가람초 3), 정하윤(남양주 별가람초 3), 이연희(남양주 별가람초 3), 김송윤(남양주 별가람초 4), 정아람(남양주 별가람초 5), 박재성(남양주 별가람초 5), 정하윤(남양주 별가람초 6), 방가울(남양주 별가람초 6), 최주아(남양주 별가람초 6), 안시은(남양주 별가람초 6), 권연서(남양주 수동초송천분교 4), 심지연(동두천 지행초 3), 박선영(동두천 지행초 6), 장유나(부천대명초 1), 서하은(부천대명초 2), 김보름(부천대명초 2), 박하윤(부천대명초 4), 김우진(부천대명초 5), 한은수(부천대명초 5), 문수현(부천대명초 5), 유지아(부천대명초 6), 송채원(부천대명초 6), 신나울(부천 상인초 3), 장은울(부천 상인초 3), 윤서진(부천 상인초 4), 김지우(부천 상인초 4), 신채은(부천 상인초 4), 배민서(부천 상인초 6), 고은채(부천 상인초 6), 김채원(부천 상인초 6),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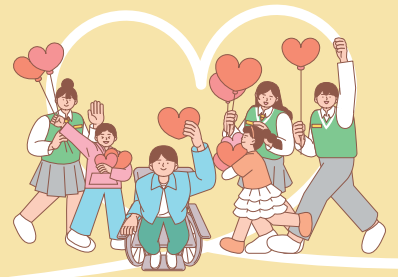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최서현(부천 소일초 3), 김로연(부천 신도초 5), 차시은(성남 대하초 5), 권리경(성남 불정초 3), 허예은(성남 불정초 3), 김도희(성남 불정초 3), 김시은(성남 불정초 3), 이도연(성남 불정초 3), 오혜성(성남 불정초 3), 박민호(성남 샘물학교 6), 오서윤(성남송현초 5), 김채연(성남송현초 6), 최민아(성남송현초 6), 김규리(시흥 은계초 6), 신은하(시흥 은계초 6), 이아윤(경기 안양서초 6), 지수아(안양 명학초 6), 정하린(안양 부흥초 6), 정규빈(안양 호원초 6), 이유나(양주 푸른샘초 3), 조유라(양주 푸른샘초 5), 강유진(양주 푸른샘초 5), 최소유(양주 푸른샘초 5), 유채은(여주 세종초 2), 이은호(여주 세종초 2), 이려원(여주 세종초 2), 신우진(용인 대일초 3), 장연서(용인 대일초 6), 김예훈(용인 독정초 3), 유하은(용인 서농초 5), 조아름(용인 어정초 5), 김시아(용인 정평초 6), 김유림(용인 청덕초 6), 김유진(경기 의왕초 6), 임유주(경기 의왕초 6), 노현주(경기 의왕초 6), 김라임(경기 의왕초 6), 김효빈(경기 의왕초 6), 김지안(이천송정초 4), 김하은(이천송정초 5), 김지효(이천송정초 6), 박윤서(파주대원초 4), 김예림(파주대원초 4), 김유리(파주대원초 4), 이연재(하남위례초 6), 천교보(하남 위례초 6), 박 찬(화성 서연초 4), 송도윤(화성 서연초 4), 박세은(화성 서연초 5), 박수연(화성 서연초 5), 안현서(화성 아인초 6), 이서연(화성 아인초 6), 김예찬(화성 청목초 6), 김도연(화성 한백초 3), 박은찬(시흥 함현초 6), 최요한(의왕 갈매초 3), 남아윤(의왕 갈매초 4), 주하울(의왕 갈매초 4), 강민지(거제 기성초 6), 김예린(거제 연초초 4), 권태희(거제 연초초 5), 김설희(거제 연초초 5), 박다연(거제 연초초 6), 박서현(거제 연초초 6), 임하준(거제 연초초 6), 김이안(거제 연초초 6), 김도연(거제 연초초 3), 김지원(거제 연초초 4), 이은지(거제 연초초 6), 주지우(거제 연초초 6), 임가연(거창 북상초 6), 주가온(거창 북상초 6), 김이준(거창 창남초 4), 김은우(김해부곡초 6), 장해듬(김해부곡초 6), 박은서(김해신명초 5), 황다윤(김해신명초 5), 정채은(사천 사남초 5), 심무송(진주 무지개초 2), 하윤아(진주 서진초 5), 박수연(진주 서진초 6), 김서우(진주 서진초 5), 박예빈(김해진영중앙초 6), 오민건(김해진영중앙초 6), 김윤하(창녕 명덕초 4), 김윤슬(창녕 명덕초 6), 김율하(창원 동부초 5), 문시은(창원 동부초 6), 황신욱(창원 상남초 6), 한지원(창원 신방초 3), 서유진(창원 신방초 6), 이주경(창원 신방초 6), 이윤아(통영 벽방초 2), 김지호(함안 월촌초 3), 황주은(함안 월촌초 4), 이라엘(함안 월촌초 5), 권태희(김해봉명초 6), 임정은(김해봉명초 6), 황세하(김해봉명초 6), 김유준(경산 금락초 5), 정규린(경산 성암초 3), 이비아(경산 성암초 4), 박채희(경산 성암초 5), 하은성(경주 동천초 5), 이은솔(경주 동천초 5), 김수지(경주 산대초 6), 김주환(경주 산대초 6), 이예서(경주 산대초 6), 장현경(경주 산대초 6), 추민재(경주 산대초 6), 김선우(경주 용강초 4), 김연아(경주 용강초 4), 최재영(경주 용강초 4), 최서연(경주 용강초 5), 박지유(경주 유림초 5), 이가온(경주 유림초 5), 정희연(경주 유림초 5), 최해루(경주 천북초 5), 강두현(경주 천북초 6), 김채원(경주 천북초 6), 임시현(경주 천북초 6), 박규빈(경주 현곡초 3), 임준섭(경주 현곡초 3), 김준기(경주 황남초 5), 김태현(경주 황남초 5), 박정은(경주 황남초 5), 조유빈(경주 황남초 5), 김지유(구미 도봉초 5), 정리아(구미 도봉초 5), 옥정민(구미 문성초 6), 정 윤(구미 옥계초 5), 김해준(구미 옥계초 5), 하지민(구미 옥계초 6), 양서연(구미 옥계초 6), 이서은(구미 원남초 4), 임지윤(구미 원남초 6), 권나은(구미 인덕초 3), 김지우(구미 인덕초 3), 장가윤(구미 인덕초 3), 황유진(구미 인덕초 3),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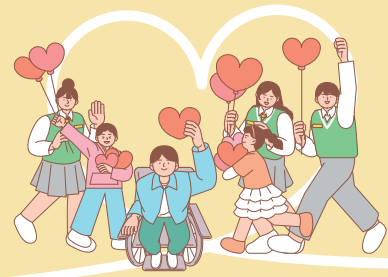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김민채(구미 인덕초 5), 이서연(구미 인덕초 5), 이 현(구미 인덕초 5), 현다겸(구미 인덕초 5),
 송지영(경북 문경초 6), 노은서(성주 벽진초 6), 오지윤(안동 서후초 4), 이서하(청송 진보초 5),
 이서아(포항 기북초 6), 김지원(포항제철초 4), 김건희(광주 건국초 5), 전재인(광주 매곡초 6),
 김나은(대구대청초 3), 이윤한(대구대청초 4), 박서윤(대구구지초 6), 배강규(대구남산초 5),
 이수민(대구남산초 5), 서보민(대구명덕초 4), 김서연(대구명덕초 6), 송지현(대구사수초 6),
 정윤수(대구왕선초 6), 이아영(대구왕선초 6), 이 봄(대구용전초 5), 서채연(대구용전초 6),
 김하울(대구월배초 4), 박새봄(대구월배초 6), 박혜주(대구월암초 4), 최수연(대구유가초 5),
 김민채(대구유가초 6), 안수민(대구조암초 4), 김현수(대구중앙초 3), 김영서(대구중앙초 5),
 이다울(대구중앙초 6), 이민서(대전목동초 5), 백서은(대전목동초 5), 임소울(대전목동초 5),
 김태환(대전목동초 6), 김하연(대전북용초 5), 안서연(대전북용초 6), 염승현(대전북용초 6),
 노승범(대전 신탄진용정초 5), 이서울(대전 신탄진용정초 6), 노민수(대전장대초 6),
 변선재(대전죽동초 3), 최서영(대전죽동초 3), 김윤건(대전죽동초 4), 김리안(대전죽동초 5),
 전예주(대전죽동초 5), 이서준(대전죽동초 5), 장소울(대전죽동초 6), 백승완(대전죽동초 6),
 임지윤(대전 한밭초 5), 김민서(부산 대신초 3), 남서진(부산 명원초 4), 조이현(부산 금강초 3),
 배여진(부산 낙동초 6), 한예원(부산 낙동초 6), 이진아(부산 남문초 5), 박서진(부산 남문초 6),
 이은재(부산 남문초 6), 이시윤(부산남문초 6), 이하준(부산 모덕초 5), 이수은(부산 모덕초 5),
 윤재웅(부산 분포초 2), 허채윤(부산 상당초 6), 김민서(부산 신명초 4), 이채희(부산 신명초 6),
 이현준(부산 엄궁초 3), 최인성(부산 인지초 5), 박민지(부산 창신초 5), 박은유(부산 창신초 6),
 복유담(서울도곡초 2), 김하엘(서울갈현초 6), 방준영(서울갈현초 6), 이유빈(서울강남초 3),
 이지우(서울강남초 3), 이지윤(서울강남초 3), 김다은(서울강남초 6), 이현서(서울고명초 4),
 김수안(서울공덕초 2), 박라온(서울공덕초 2), 이하준(서울공덕초 2), 허정원(서울공덕초 3),
 정가현(서울공덕초 4), 윤정현(서울공덕초 5), 김민성(서울공덕초 6), 임승주(서울공덕초 6),
 전서연(서울공덕초 6), 강탄영(서울공덕초 6), 문송찬(서울공덕초 6), 박세령(서울공덕초 6),
 양주희(서울구룡초 6), 안주성(서울구암초 4), 진은솔(서울구암초 5), 김태연(서울구암초 5),
 이주아(서울난향초 4), 김지율(서울남명초 6), 손연우(서울남명초 6), 오다은(서울남명초 6),
 전윤교(서울남명초 6), 문성준(서울노원초 5), 오단영(서울노원초 5), 최시환(서울노원초 5),
 이연호(서울대현초 6), 김지아(서울도봉초 5), 김채원(서울도성초 3), 한예규(서울도성초 3),
 김예준(서울동자초 6), 고인준(서울목운초 5), 김시윤(서울목운초 5), 남지원(서울목운초 5),
 성유리(서울목운초 5), 이지안(서울목운초 5), 허유민(서울목운초 5), 정하임(서울미래초 5),
 이연우(서울미래초 5), 김새론(서울방화초 2), 이시아(서울방화초 3), 한지호(서울방화초 4),
 강정윤(서울본동초 3), 박보영(서울북성초 6), 배수연(서울북성초 6), 정재이(서울북성초 6),
 유은송(서울상수초 6), 홍다은(서울상수초 6), 이지원(서울상천초 5), 김연우(서울서래초 6),
 김예지(서울서래초 6), 석하은(서울서래초 6), 진서윤(서울서래초 6), 김주아(서울서래초 6),
 강하준(서울성동초 5), 김소현(서울성동초 5), 김이안(서울성동초 5), 정윤후(서울성동초 5),
 황주아(서울세곡초 5), 서재이(서울신내초 4), 홍선우(서울양재초 5), 장세령(서울양재초 6),

수 상 자 명 단



주희진(서울양재초 6), 심연재(서울언남초 3), 이주안(서울언남초 6), 김시윤(서울언남초 6), 김보민(서울언남초 6), 한재희(서울언남초 6), 안태현(서울영도초 5), 이규빈(서울영도초 5), 김현주(서울영신초 4), 한해민(서울영신초 6), 강륜아(서울원신초 6), 김연수(서울원신초 6), 문리원(서울잠전초 2), 설채린(서울잠전초 2), 김예나(서울잠전초 3), 백소울(서울잠전초 4), 김준성(서울잠전초 5), 권아윤(서울잠전초 5), 임채아(서울잠전초 6), 천세하(서울정목초 6), 윤서정(서울홍제초 6), 김민진(서울홍제초 6), 안태훈(서울화계초 2), 권하린(서울휘봉초 4), 양현우(서울휘봉초 4), 이다은(서울휘봉초 4), 임송현(서울휘봉초 6), 한정우(세종 연양초 3), 이재윤(세종 연양초 4), 박소원(울산 농서초 4), 이은찬(울산 명촌초 5), 김강모(서울언주초 2), 박소울(울산초 6), 오형석(울산초 6), 박다인(울산 화진초 6), 박지민(인천동암초 6), 박하임(인천만우금초 2), 조예린(인천용학초 5), 김서은(인천효성남초 5), 조은수(광양 백운초 6), 김송연(광양 중마초 6), 김희성(광양 중마초 6), 양승울(광양 중마초 6), 김 님(목포용호초 6), 문선재(무안 남악초 5), 김지영(보성 벌교초 6), 이하은(보성 벌교초 6), 윤지원(순천 왕지초 4), 박세연(순천 왕지초 5), 배지현(여수 관기초 4), 선주한(여수송현초 5), 이채은(여수 신기초 6), 송지연(여수 종고초 5), 김채은(여수 종고초 6), 김지우(화순 능주초 6), 채서울(화순 능주초 6), 박유나(화순 이양초 5), 최시은(익산 어양초 1), 고채영(제주 인화초 4), 김나원(계룡 용남초 5), 탁예은(계룡 용남초 5), 김지우(계룡 용남초 6), 여윤서(계룡 용남초 6), 김민서(아산 온양초사초 5), 김지민(천안 환서초 4), 김나연(청주 내곡초 6), 남윤진(청주 내곡초 6), 오혜민(청주 내곡초 6), 하예원(청주 내곡초 6), 장한나(청주 생명초 5), 박나연(청주 청원초 6), 홍재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6), 김연아(하노이한국국제학교 6)

수상자명단



중학생

대 상

교육부장관상

- 시 이성민(서울 위례솔중 1)
- 산문 이예준(청주 원평중 3)
- 방송소감문 유리아(광주 동성여중 2)
- 웹툰 변재영(남양주 도농중 1)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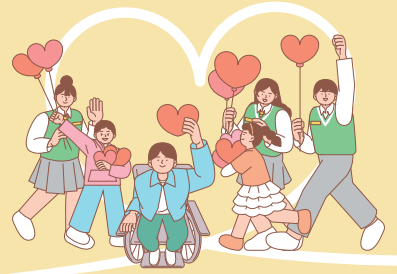
시·도회의의장상

- 시 서민지(원주 북원중 2), 조은서(대전 한밭여중 1), 오정현(부산 연일중 1), 노연우(충주북여중 3)
- 산문 권민서(경남 창원여중 3), 정제희(울산 다운중 3)
- 방송소감문 강지은(구리 갈매중 1), 정서영(칠곡 석전중 3), 백은서(광주 서광중 2), 한채현(대구 유가중 3), 전근영(인천 용현여중 3), 김주향(전주호성중 3), 문성원(제주 중앙중 2)
- 웹툰 임은재(서울 중암중 1), 김소율(여수 웅천중 1), 박서현(천안 성환중 2)

시·도교육감상

- 시 엄수정(고양 지도중 2), 김도혜(세종 도담중 3), 명하민(전주서중 2)
- 산문 이태인(대구 유가중 2), 위현주(울산 다운중 3), 서연지(인천 예송중 3), 전은조(충남 당진중 3)
- 방송소감문 허성유(원주 북원중 3), 노지현(김포 통진중 3), 손지윤(거제 장목예술중 1), 배세윤(칠곡 약목중 3), 성시온(서울 여의도중 2), 정아린(영암 삼호중 1), 진은서(제주 신창중 3), 김민서(청주 생명중 2)
- 웹툰 김정은(광주 치평중 3), 황지원(대전 한밭여중 2), 김민솔(부산국제중 3)

수 상 자 명 단



우수상

● 시

손지민(시흥 배곧해솔중 1), 김연후(통영 충렬여중 1), 김아량(대구 유가중 3), 김동민(대구 청구중 3),
안지현(인천동방중 3)

● 산문

성지연(경기 파주중 1), 박주연(거제 계룡중 1), 정예원(서울 공릉중 1), 윤채현(여수 안산중 2),
문준서(제주 중앙중 2)

● 방송소감문

김요셉(화성 송산중 3), 최민서(밀양동강중 2), 조유리(광주 서광중 3), 김주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황윤서(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 웹툰

정수안(고양 지도중 1), 김지유(부천 소사중 2), 이수현(용인 문정중 2), 강서해(김해 가야중 2),
송유진(경산 삼성현중 1)

장려상

● 시

김민준(안산해양중 3), 이혜림(통영 충렬여중 1), 홍은서(대구 새본리중 3), 박성윤(부산 남산중 1),
이민혁(부산 남산중 1), 전재윤(서울 중동중 1), 홍주아(인천가현중 1), 권지효(인천가현중 3),
임예은(목포혜인여중 2), 조수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 산문

김나현(남양주 도농중 3), 강금비(창원 마산제일여중 3), 김유남(포항 대흥중 3), 박예슬(대전 한밭여중 2),
정현준(서울대사대부설중 3), 조은별(인천 영종중 2), 양서현(목포혜인여중 2), 문지성(제주중앙중 1),
조정인(충남 당진중 1), 이서형(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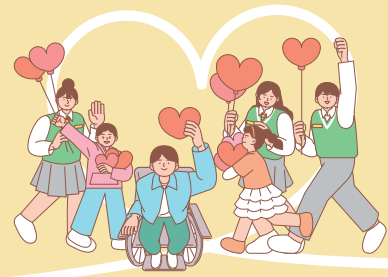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 방송소감문

전희엘(화성 송산중 3), 유민재(통영 동원중 1), 이지윤(통영 충렬여중 2), 홍수연(통영 충렬여중 2),
양승희(대전 한밭여중 1), 강서울(무안 남악중 2), 박지연(보령 한내여중 2), 문규리(천안서여중 1),
조유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2), 강수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 웹툰

정혜윤(안산 해양중 1), 강초운(김해 가야중 2), 윤민아(경산 삼성현중 3), 문주아(대전 한밭여중 2),
장서연(대전 한밭여중 2), 김혜성(서울 중암중 1), 안드레(울산 남목중 3), 문채린(인천동방중 2),
남예렘(인천동방중 2), 이수현(보령 한내여중 2)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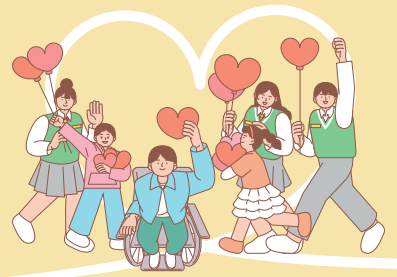


가 작

◎ 시

강혜원(원주 복원중 2), 이희정(원주 복원중 2), 조윤희(원주 복원중 2), 신호은(강원 정선중 2), 김소율(고양 지도중 2), 맹준영(고양 지도중 1), 심서율(고양 지도중 1), 손민서(고양 지도중 1), 장경준(김포 통진중 3), 이승구(김포 통진중 1), 전연우(남양주 도농중 3), 편다희(경기 시흥중 2), 이도환(시흥 배곧해솔중 1), 한재웅(안산해양중 2), 신주안(안산해양중 3), 김소윤(안산해양중 2), 김태율(안산해양중 1), 조민찬(안산해양중 3), 김주혁(안산해양중 3), 조은아(안산해양중 3), 김준협(하남 위례중 1), 조은채(김해 가야중 1), 유현진(김해 가야중 3), 박다빈(김해 가야중 1), 우지원(김해 가야중 1), 김서은(김해 가야중 3), 이승민(김해 가야중 1), 정다운(김해 가야중 1), 최정빈(김해 가야중 2), 김은서(김해 가야중 2), 노예린(김해 가야중 2), 김새희(김해 가야중 3), 김다현(밀양동강중 3), 김도윤(통영 동원중 1), 김민규(통영 동원중 1), 신우현(통영 동원중 1), 이지우(통영 동원중 1), 이도혁(통영 동원중 1), 임도윤(통영 동원중 1), 김지민(통영 총렬여중 1), 양가임(통영 총렬여중 1), 방울아(통영 총렬여중 1), 이나현(통영 총렬여중 1), 김민서(통영 총렬여중 1), 손연재(통영 총렬여중 1), 유지율(통영 총렬여중 1), 최민영(통영 총렬여중 1), 황서연(통영 총렬여중 1), 서하윤(통영 총렬여중 2), 성지희(통영 총렬여중 1), 김하선(영천 성남여중 2), 윤라녕(영천 성남여중 2), 조영은(영천 성남여중 2), 정혜윤(영천 성남여중 2), 권희현(영천 성남여중 2), 김나현(영천 성남여중 2), 형수연(영천 성남여중 2), 김예인(영천 성남여중 2), 이가윤(영천 성남여중 2), 고정민(영천 성남여중 2), 박시현(영천 성남여중 2), 김두하(경북 포항중 1), 고채영(포항 환호여중 3), 김윤민(광주 문화중 3), 정인우(대구 경상중 2), 탁예진(대구 새본리중 3), 김민경(대구 유가중 2), 박휘경(대전여중 3), 박예찬(부산 남산중 1), 장윤우(부산 남산중 1), 이 수(부산 남산중 1), 정건아(부산 남산중 1), 정다율(부산 남산중 1), 이다율(부산 온천중 1), 이예린(서울 송인중 1), 임하린(울산 화암중 2), 조유진(인천동방중 2), 홍다현(인천동방중 3), 전도윤(인천동방중 1), 강윤서(인천동방중 2), 김성영(인천동방중 3), 임해연(인천동방중 2), 장유빈(인천동방중 2), 김주혜(인천미송중 3), 김수진(목포혜인여중 3), 정다빈(목포혜인여중 1), 이루진(목포혜인여중 1), 배여원(목포혜인여중 2), 백은서(목포혜인여중 1), 양예민(목포혜인여중 1), 이윤서(목포혜인여중 1), 문혜랑(여수여천중 3), 강민걸(장흥 회덕중 1), 김민서(장흥 회덕중 1), 백연우(장흥 회덕중 1), 이상규(장흥 회덕중 1), 박정연(군산 나포중 2), 김동현(제주중앙중 1), 김리하(충남 당진중 2), 김지안(충남 당진중 2), 조 민(충남 당진중 2), 박사랑(충남 당진중 3), 김서연(보령 한내여중 1), 이예원(보령 한내여중 3), 이호연(보령 한내여중 3), 전지현(보령 한내여중 2), 김우민(보령 한내여중 2), 문가람(충남 부여여중 2), 김지원(서산인지중 2), 양해린(서산인지중 2), 진서영(충남 천안북중 3), 나정인(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유지후(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김시후(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박정윤(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이원용(하노이한국국제학교 7), 이동선(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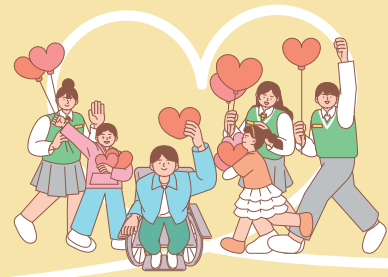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수상자명단



● 산문

최태민(남양주 도농중 3), 김지유(부천 상동중 1), 김도윤(부천 상일중 1), 양시현(부천 상일중 1),
 곽경민(성남 백현중 1), 이수민(안산해양중 2), 김시원(경기 파주중 1), 배현숙(경기 파주중 1),
 허다운(경기 파주중 1), 김사랑(경기 파주중 1), 구해민(경기 파주중 2), 박서희(경기 파주중 3),
 박하연(경기 파주중 3), 윤서연(경기 파주중 3), 이해진(경기 파주중 3), 김태은(경기 파주중 3),
 정서연(경기 평택여중 1), 손동건(평택 동삭중 2), 염동화(김해 가야중 1), 박다교(김해 가야중 1),
 김채원(김해 가야중 2), 박가령(김해 가야중 2), 정지효(김해 가야중 2), 하태양(김해 가야중 2),
 신영은(김해 가야중 2), 김부성(김해 가야중 2), 김수현(김해 가야중 2), 박주영(김해 가야중 2),
 서인서(김해 가야중 2), 김범수(김해 가야중 3), 노효정(김해 가야중 3), 김도연(김해 가야중 3),
 김영채(김해 가야중 3), 안재범(김해 가야중 3), 김소혜(김해 가야중 3), 양재희(김해 가야중 3),
 이다리아(김해 가야중 3), 김도엽(김해 구산중 1), 김태린(창원 마산무학여중 2), 변채윤(창원 마산제일여중 1),
 이정민(창원 마산제일여중 3), 안시후(통영 동원중 1), 이예성(통영 동원중 1), 엄태한(통영 동원중 1),
 정다인(통영 충렬여중 1), 서아인(통영 충렬여중 2), 이은아(통영 충렬여중 2), 박민서(통영 충렬여중 3),
 김재윤(통영 충무중 1), 김설리(영천 나무와중 2), 하지민(영천 나무와중 2), 김효원(영천 나무와중 3),
 김하성(포항 대도중 1), 권다현(대구 세본리중 1), 유연서(대구 세본리중 2), 최예주(대구 세본리중 3),
 신혜은(대구 유가중 3), 안병준(대구 청구중 2), 정민재(대구 청구중 3), 류소담(대전 매봉중 2),
 박민우(부산 남산중 1), 유승민(부산 남산중 1), 김규민(부산 남산중 1), 김윤재(부산 남산중 1),
 나유안(부산 남산중 1), 천재영(부산 남산중 1), 안유정(부산 사직여중 1), 강주원(부산 사직중 1),
 이찬영(부산 사직중 1), 정명진(서울 구산중 1), 성이세(서울 구산중 1), 김승준(서울 구산중 1),
 박세현(서울 국사봉중 1), 박예원(서울 국사봉중 1), 조은재(서울 대원국제중 1), 이용우(서울 신목중 2),
 권채은(울산 상안중 1), 김수빈(울산 상안중 1), 남영걸(울산 상안중 1), 한도성(울산 상안중 1),
 양희준(울산 상안중 1), 이서연(울산 상안중 1), 한보경(인천 남동중 2), 김아인(인천동방중 1),
 류나은(인천동방중 2), 노연재(인천동방중 2), 이채원(인천동방중 3), 이하람(인천동방중 3),
 김채원(목포혜인여중 1), 이가현(목포혜인여중 1), 박화린(목포혜인여중 1), 배유빈(목포혜인여중 1),
 박준아(목포혜인여중 2), 김채원(목포혜인여중 2), 이수정(목포혜인여중 2), 이나린(목포혜인여중 3),
 김수아(목포혜인여중 3), 이라윤(여수 여선중 2), 이윤채(여수 웅천중 1), 김유나(여수 웅천중 1),
 이지은(완도 금당중 1), 정윤서(남원 용북중 1), 송다경(제주서중 1), 양지혁(제주중앙중 1),
 지 환(제주중앙중 1), 김민후(제주한라중 1), 오유림(제주 한라중 2), 한윤서(제주 한라중 2),
 신예진(보령 한내여중 1), 채소원(보령 한내여중 1), 김민서(보령 한내여중 2), 김세하(보령 한내여중 2),
 박지우(보령 한내여중 2), 이다윤(보령 한내여중 2), 임정음(보령 한내여중 2), 김다인(보령 한내여중 2),
 장사랑(보령 한내여중 2), 김성연(보령 한내여중 3), 김유린(보령 한내여중 3), 강예린(서산 인지중 3),
 윤주아(예산 덕산중 1), 정지나(하노이한국국제학교 7), 김미연(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송승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배세인(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황윤희(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김현중(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정예은(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이새봄(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원하니(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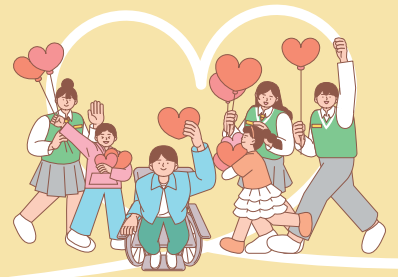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수 상 자 명 단



◎ 방송소감문

임지유(원주 단구중 1), 김태이(원주 복원중 1), 이소진(원주 복원중 1), 정아람(원주 복원중 1),
 이예빈(원주 복원중 2), 김태울(원주 복원중 3), 성예진(원주 복원중 3), 박하린(원주 복원중 3),
 심예원(원주 복원중 3), 전해주(경기 평택여중 1), 김수인(고양 지도중 1), 윤하을(고양 지도중 1),
 김지효(고양 지도중 1), 이서형(고양 지도중 1), 이다해(고양 지도중 2), 김시우(고양 지도중 2),
 윤지호(고양 지도중 2), 현재성(고양 지도중 2), 조하을(고양 지도중 2), 조 은(고양 지도중 3),
 박서영(김포 통진중 3), 박하영(김포 통진중 3), 정 원(김포 통진중 3), 최수빈(김포 통진중 3),
 고다연(부천 상일중 1), 김태연(평택 민세중 2), 조여원(평택 민세중 2), 안정인(화성 송산중 1),
 구동현(화성 송산중 3), 유지혜(화성 송산중 3), 신하준(화성 송산중 3), 황주예(화성 송산중 3),
 황동주(화성 송산중 3), 황현빈(경남 의령중 3), 박유민(밀양동강중 1), 조연희(밀양동강중 3),
 방서준(통영 동원중 1), 최주혁(통영 동원중 1), 박민서(통영 동원중 1), 유동화(통영 동원중 1),
 정호진(통영 동원중 1), 박지훈(통영 동원중 1), 홍윤호(통영 동원중 1), 황유준(통영 동원중 1),
 양근혁(통영 동원중 1), 김두현(통영 동원중 1), 유주혁(통영 동원중 1), 이유민(통영 동원중 1),
 정찬윤(통영 동원중 1), 김서울(통영 동원중 1), 양서현(통영 동원중 1), 이도혁(통영 동원중 1),
 조민서(통영 동원중 1), 김효원(통영 충렬여중 1), 조주연(통영 충렬여중 1), 강채원(통영 충렬여중 1),
 정예은(통영 충렬여중 1), 강초은(통영 충렬여중 1), 김민서(통영 충렬여중 1), 유지혜(통영 충렬여중 1),
 조은솔(통영 충렬여중 1), 이수연(통영 충렬여중 1), 서아인(통영 충렬여중 2), 신여량(통영 충렬여중 2),
 강윤서(통영 충렬여중 2), 윤소영(통영 충렬여중 2), 이해인(통영 충렬여중 2), 임지유(통영 충렬여중 2),
 정수인(통영 충렬여중 2), 김효원(통영 충렬여중 2), 황유진(통영 충렬여중 3), 나담희(통영 충렬여중 3),
 서유정(통영 충렬여중 3), 윤하린(함안 칠원중 3), 유서연(칠곡 약목중 2), 정은하(포항 대흥중 3),
 송우솔(대구 경상중 2), 류지후(대구 새본리중 1), 허연아(대구 새본리중 1), 김동휘(대구 유가중 2),
 서윤서(대구 유가중 2), 조온유(대구 유가중 3), 김진성(대구 청구중 1), 권 율(대구 청구중 2),
 이준석(대구 청구중 2), 마강현(대구 청구중 2), 배한결(대구 청구중 3), 김규림(대전 가오중 1),
 이지민(대전 내동중 3), 고대웅(부산 남산중 1), 이도연(서울 가재울중 2), 하아린(서울 고덕중 1),
 박은우(서울 국사봉중 1), 이루다(서울 국사봉중 1), 유지현(서울 명일중 1), 조예준(서울 창천중 3),
 김유림(인천동방중 1), 배유진(인천동방중 1), 최민서(인천동방중 1), 박태은(인천동방중 1),
 박셋별(인천동방중 1), 차현서(인천동방중 1), 김지우(인천동방중 2), 강민채(인천동방중 2),
 조민준(인천동방중 2), 이서연(인천동방중 3), 백부경(인천동방중 3), 정윤슬(인천동방중 3),
 우연정(인천동방중 3), 김민채(인천동방중 3), 최새아름(목포해인여중 2), 안수아(목포해인여중 2),
 차정원(목포해인여중 2), 강담비(신안 자은중 2), 곽아인(신안 자은중 3), 김성훈(신안 자은중 3),
 강이소(전남 함평여중 1), 이채원(전남 함평여중 1), 정지은(전남 함평여중 3), 최서화(화순 능주중 1),
 김정연(전주호성중 2), 이 봄(전주호성중 2), 김보민(전주호성중 2), 이연오(전주호성중 3),
 김태연(전주호성중 3), 최누리(전주호성중 3), 김서윤(보령 한내여중 1), 한혜은(보령 한내여중 1),
 염다인(보령 한내여중 1), 김민채(보령 한내여중 2), 박소율(서산 인지중 1), 명승아(서산 인지중 3),
 송재민(천안 부성중 1), 강민재(천안 부성중 1), 박소이(천안서여중 1), 윤수예(천안서여중 1),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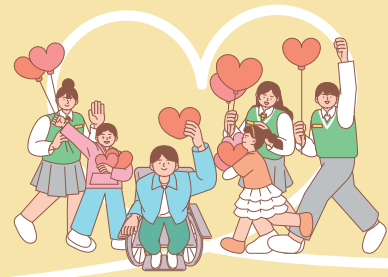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이윤하(천안서여중 1), 김예빈(천안서여중 2), 안나현(천안서여중 3), 이찬우(천안 천남중 1), 이한별(충남 당진중 1), 김민서(충남 당진중 3), 윤지혜(충남 부여여중 1), 차지원(충남 부여여중 1), 오은빈(충남 부여여중 1), 김경민(충남 부여여중 1), 박준영(청주 생명중 2), 강주은(청주 생명중 2), 김민혜(청주 생명중 2), 최선유(Saint Paul American school clark 1), 왕재인(웨이하이한국학교 2), 홍건우(하노이한국국제학교 7), 이사랑(하노이한국국제학교 7), 주하울(하노이한국국제학교 7), 김태양(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정주원(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황채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오세빈(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유세아(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주강찬(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전해원(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안다솜(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이시우(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이지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심연우(하노이한국국제학교 8), 김규연(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김민주(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김효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이성아(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윤서연(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이하진(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허가빈(하노이한국국제학교 9)

◎ 웹툰

신효은(강원 정선중 2), 서연우(고양 지도중 2), 김정민(남양주 도농중 1), 김나윤(남양주 도농중 1), 김나현(남양주 도농중 1), 윤하랑(남양주 도농중 1), 황유나(남양주 도농중 1), 송이윤(남양주 도농중 1), 방사랑(안산해양중 1), 정다윤(안산해양중 1), 김민서(안산해양중 2), 문수아(안양 범계중 3), 이윤서(평택 민세중 1), 구민솔(거제 장목예술중 1), 안예현(김해 가야중 1), 성예린(김해 가야중 1), 양윤서(김해 가야중 1), 배건영(김해 가야중 1), 신 비올레따(김해 가야중 1), 윤서희(진주 경성대사대부설중 1), 김유진(경산 삼성현중 1), 손하울(경산 삼성현중 1), 정예주(경산 삼성현중 1), 김채윤(경산 삼성현중 1), 조예은(경산 삼성현중 1), 서아현(경산 삼성현중 1), 홍윤주(경산 삼성현중 1), 성하윤(경산 삼성현중 1), 임서영(경산 삼성현중 1), 윤지현(경산 삼성현중 1), 박성주(경산 삼성현중 2), 김수연(경산 삼성현중 2), 이지민(경산 삼성현중 2), 전서영(경산 삼성현중 2), 강혜린(경산 삼성현중 2), 김다솔(경산 삼성현중 2), 정승은(경산 삼성현중 2), 김선아(경산 삼성현중 2), 박성은(경산 삼성현중 2), 신규원(경산 삼성현중 2), 이다솜(경산 삼성현중 2), 김미주(경산 삼성현중 2), 노하영(경산 삼성현중 2), 정하윤(경산 삼성현중 2), 권지연(경산 삼성현중 2), 손다울(경산 삼성현중 2), 이주영(경산 삼성현중 2), 정세영(경산 삼성현중 2), 신해솔(경산 삼성현중 2), 이윤은(경산 삼성현중 2), 송민서(경산 삼성현중 3), 배소연(경산 삼성현중 3), 전유진(경산 삼성현중 3), 김하윤(경산 삼성현중 3), 박근영(경산 삼성현중 3), 이서연(경산 삼성현중 3), 최예서(경산 삼성현중 3), 박수빈(영주 대영중 3), 권채은(대구 새본리중 2), 이채영(대구 새본리중 2), 최아련(대구 새본리중 2), 김민서(대구 새본리중 2), 김유빈(대구 새본리중 2), 신예은(서울 신서중 2), 조은호(서울 중암중 2), 이지아(울산 화암중 1), 차예린(울산 화암중 2), 한도희(인천가현중 2), 황수아(인천동방중 1), 유연재(인천동방중 1), 강지원(인천동방중 2), 김소윤(인천동방중 2), 박소연(인천동방중 3), 우현서(인천동방중 3), 이우림(인천동방중 3), 김대훈(인천동방중 3), 서이수(인천동방중 3), 박혜린(목포혜인여중 3), 김하영(여수 여선중 3), 김채경(전북 전주서중 2), 김지원(전주호성중 1), 최연재(충남 당진중 1), 김라희(충남 당진중 3), 박보람(보령 한내여중 1), 오민지(보령 한내여중 1), 신윤아(보령 한내여중 2), 김수연(보령 한내여중 3), 박혜연(보령 한내여중 3), 이효민(보령 한내여중 3), 최인선(서산 인지중 3)

수 상 자 명 단



고등학생

대 상

교육부장관상

- 시 김찬결(구미전자공고 3)
- 산문 구은아(충남 논산여고 3)
- 방송소감문 오승찬(제주한국국제학교 12)
- 웹툰 이현지(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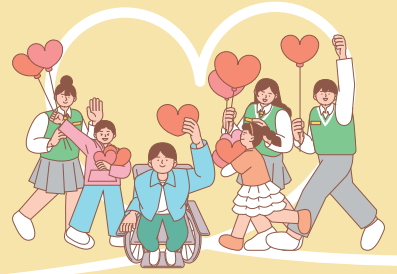
최우수상

- 시 김현아(광주 설월여고 1), 이채연(포항여자전자고 3), 박주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 산문 염기홍(서울 강일고 3), 이하은(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 이에나(민족사관고 3)
- 방송소감문 신혜린(세종 반곡고 2), 오민찬(평택 진위고 1), 예재현(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2)
- 웹툰 조하늬(경기 광주 경화여고 3), 구가빈(수원 한봄고 2), 김민지(수원 한봄고 2)

우수상

- 시 이범희(사천 삼천포공고 3), 김용한(수원 숙지고 3), 김다예(포항여자전자고 2), 이나경(포항여자전자고 2), 임서현(포항여자전자고 2)
- 산문 어예진(경기 광주 경화여고 3), 권예지(경주 선덕여고 3), 김민기(대구 현풍고 1), 장은혜(완도 수산고 3), 현예원(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 방송소감문 서정원(대전 계룡디지털고 1), 서주원(충남 논산여고 3), 이은성(포항여자전자고 1), 박예지(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박효은(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 웹툰 김여진(서울 홍익디자인고 1), 조예현(수원 한봄고 3), 이수인(원주 문막고 3), 윤서빈(포항여자전자고 2), 이승희(포항여자전자고 2)

수 상 자 명 단



장려상

◎ 시

우현희(부산문화여고 1), 배가영(수원 숙지고 3), 구본민(수원 숙지고 3), 유준상(수원 숙지고 3),
장동민(용인 한국외대부설고 3), 송설아(포항여자전자고 2), 김지니(포항여자전자고 3),
신주경(포항여자전자고 3), 이효정(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방소윤(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 산문

박지수(경기 광주 경화여고 2), 백지은(구미전자공고 1), 윤주아(대구 현풍고 2), 이지원(서울 대동세무고 2),
홍예서(세종 반곡고 2), 김의철(전북 정읍고 1), 장 준(전북 정읍고 1), 김지유(제주 중앙여고 2),
정소이(충남 논산여고 3), 백주은(포항여자전자고 1)

◎ 방송소감문

박은서(광주 장덕고 1), 정유빈(광주 정광고 2), 이에은(대구 현풍고 1), 이동현(사천 삼천포공고 1),
김영지(수원 숙지고 1), 이서윤(수원 숙지고 1), 박성희(옥천 청산고 1), 김민경(원주 문막고 2),
최서영(포항여자전자고 1), 주효주(포항여자전자고 2)

◎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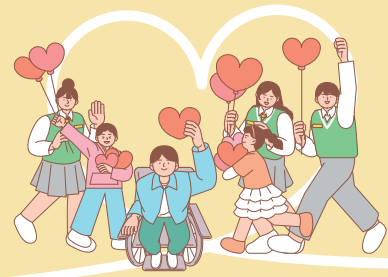
신 율(경기 광주 경화여고 3), 박예원(부산문화여고 1), 허윤서(부산문화여고 1), 박미현(수원 한뫼고 2),
이단비(수원 한뫼고 2), 조수희(수원 한뫼고 2), 윤서진(수원 한뫼고 3), 이효주(포항여자전자고 1),
김민선(포항여자전자고 2), 김아현(포항여자전자고 2)

가 작

◎ 시

전상운, 권영주(경기 광주 경화여고 1), 전지윤(경기 광주 경화여고 2), 전수아(경기 광주 경화여고 2),
차예진(경기 광주 경화여고 3), 박중현(고양 주엽고 1), 김수영(광주 정광고 2), 박은형(광주 정광고 3),
주아영(구미 오상고 2), 김근호(구미전자공고 1), 이채원(김해생명과학고 1), 김주용(당진정보고 2),
유지수(대구 현풍고 1), 이에지(대구 현풍고 2), 김예찬(대구 현풍고 2), 이민성(대구 현풍고 2),
이소현(대전 호수돈여고 3), 박명현(부산벨엘국제스쿨 2), 최정훈(부산해사고 3), 강지성(부산해사고 3),
백창익(사천 삼천포공고 1), 최성호(사천 삼천포공고 1), 채정우(서울 광양고 1), 임해교(서울 금천고 2),
양석현(서울 당곡고 2), 김태영(서울 동국대사대부속고 1), 김현서(서울 동명여고 1), 윤효린(서울 한국삼육고 2),
이서빈(서울 휘경여고 1), 김영진(세종 반곡고 1), 김아연(수원 숙지고 1), 이강민(수원 숙지고 1),
공지수(수원 숙지고 1), 김찬빈(수원 숙지고 1), 송민규(수원 숙지고 1), 이현호(수원 숙지고 1),
김나경(수원 숙지고 1), 김보민(수원 숙지고 1), 송유찬(수원 숙지고 1), 전수아(수원 숙지고 1),
엄윤아(수원 숙지고 2), 이시후(수원 숙지고 2), 최지윤(수원 숙지고 3), 서희준(수원 숙지고 3),
정수진(수원 숙지고 3), 이윤영(수원 숙지고 3), 김도염(수원 숙지고 3), 백서진(수원 숙지고 3),
이서원(수원 숙지고 3), 장성원(수원 숙지고 3), 조혜연(옥천 청산고 3), 정빈영(완도 수산고 1),

수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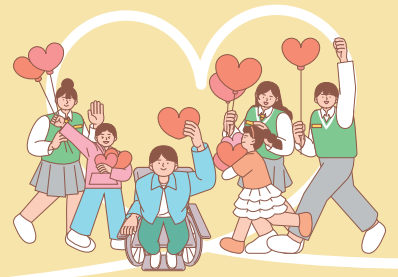
선하영(완도 수산고 2), 김지우(울산 다운고 3), 이수경(원주 미래고 3), 김대진(전주 동암고 3), 이철연(전북 정읍고 1), 배선웅(전북 정읍고 1), 최창한(전북 정읍고 2), 송하늘(제주고 3), 이현지(제주고 3), 홍시연(제주중앙여고 1), 황정우(청주 금천고 2), 이호준(청주농업고 1), 박자현(충남 논산여고 3), 길시연(충남 논산여고 3), 한수림(충북 충주여고 1), 김연진(충북 충주여고 3), 임예린(포항여자전자고 1), 이서윤(포항여자전자고 1), 임서하(포항여자전자고 2), 박서윤(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이태주(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 산문

원해린(경기 광주 경화여고 1), 강시은(경기 광주 경화여고 1), 문소연(경기 광주 경화여고 1), 임태연(경기 광주 경화여고 1), 강선희(경기 광주 경화여고 2), 이다인(경기 광주 경화여고 2), 임지우(경기 광주 경화여고 2), 권초현(경북 경산여고 2), 이다인(경산 대경문화예고 2), 정수지(경주 근화여고 1), 이현민(고양 주엽고 1), 김가은(광주 정광고 2), 김명준(광주 정광고 2), 노연화(광주 정광고 3), 염유리(광주 정광고 3), 유지현(광주 정광고 3), 형민기(김천 링컨중고 3), 김소윤(대구 송현여고 1), 정양건(대전 만년고 2), 김승민(동해 북평고 2), 박시우(부산해사고 3), 허가민(사천 삼천포공고 1), 전예준(사천 삼천포공고 1), 차민재(사천 삼천포공고 3), 김준서(수원 숙지고 1), 박선율(수원 숙지고 2), 심예빈(수원 숙지고 2), 허수정(울산 경의고 2), 엄주원(원주 미래고 2), 이민상(의왕고봉중고 2), 박수현(인천 이음고 1), 조여겸(전남 순천여고 2), 최혜림(제주고 1), 최민성(청주 금천고 1), 설예린(청주 금천고 2), 김진현(충남 논산여고 3), 백다경(포항여자전자고 2), 김지니(포항여자전자고 3), 김지원(포항여자전자고 3), 이다형(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 김나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임형규(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박하연(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김가람(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김은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 방송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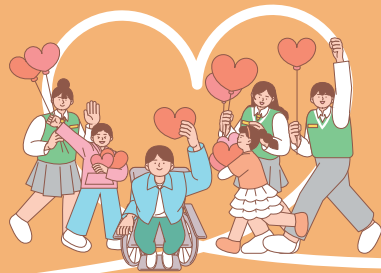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이서현(고양 주엽고 1), 윤은수(고창 자유고 1), 박시은(광주 정광고 1), 양진우(광주 정광고 1), 심현우(광주 정광고 1), 박다연(광주 정광고 3), 문서준(광주 정광고 3), 안세은(구미전자공고 1), 복주하(대구 현풍고 1), 김민서(대구 현풍고 1), 박나은(대구 현풍고 2), 한정민(부산 덕문여고 1), 김태경(부산 문화여고 1), 김우석(사천 삼천포공고 1), 송하윤(사천 삼천포공고 1), 김도현(사천 삼천포공고 1), 서준영(사천 삼천포공고 1), 김보현(사천 삼천포공고 1), 공규아(수원 숙지고 1), 우지윤(수원 숙지고 1), 성지윤(수원 숙지고 1), 손아영(수원 숙지고 1), 구선빈(수원 숙지고 1), 박지우(수원 숙지고 2), 손유진(수원 숙지고 2), 이태린(수원 숙지고 2), 전해리(수원 숙지고 2), 양윤서(수원 숙지고 2), 박수아(수원 숙지고 3), 김지유(원주 문막고 1), 조민지(원주 문막고 2), 기동휘(전북 정읍고 2), 강정강(포항여자전자고 1), 류혜빈(포항여자전자고 1), 박세은(포항여자전자고 1), 유다희(포항여자전자고 1), 이희진(포항여자전자고 1), 김하윤(포항여자전자고 2), 박새봄(포항여자전자고 2), 박수연(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2), 이세인(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3), 황예진(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 이에지(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 변희수(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 문나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이서은(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이채민(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정선희(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 노민서(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오세운(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권우혁(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



● 웹툰

김채연(경기 광주 경화여고 1), 김수민(경주 선덕여고 1), 조예진(논산 성광온누리학교 1), 김도희(부산 덕문여고 1), 이주은(부산문화여고 1), 조윤주(사천 삼천포공고 3), 김보민(수원한봄고 2), 김소현(수원한봄고 2), 김수현(수원한봄고 2), 신가영(수원한봄고 2), 이송현(수원한봄고 2), 이윤지(수원한봄고 2), 차시우(수원한봄고 2), 최서연(수원한봄고 2), 한효정(수원한봄고 2), 이연아(수원한봄고 3), 최재영(수원한봄고 3), 이에은(영천 성남여고 1), 홍주아(인천 부개여고 1), 송준희(창원 경남관광고 1), 서윤주(평택 신한고 1), 이아름(포항여자전자고 1), 장혜원(포항여자전자고 1), 정서연(포항여자전자고 1), 김채린(포항여자전자고 2), 김민선(포항여자전자고 2), 손준서(포항여자전자고 2)

목 차



유아 그림(포스터)

대 상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자! (서울 예림유치원 7세 김주안)47

최우수상

휠체어를 탄 농구선수들 (안산 자연생태숲유치원 7세 장유나)48

고마운 안전 지킴이 (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김찬유)49

장애인 친구들과 행복한 산책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구미 천사유치원 7세 유성빈)50

우수상

함께 걸어요 (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박서은)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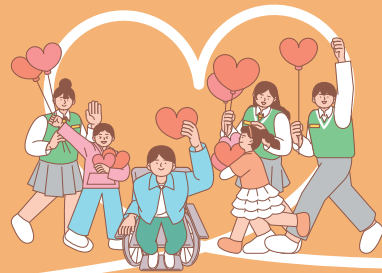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대전 신탄진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6세 곽하음)52

꽃 선물을 해줄래요 (서울 예림유치원 6세 김하윤)53

우리는 하나예요! (인천 다은유치원 7세 육서아)54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 무지개처럼 (인천 자유유치원 6세 임지율)55

목 차



초등학생 시

대 상

잉크로 피어난 이름 (서울강남초등학교 6학년 황채아)	5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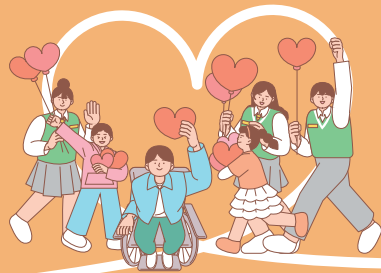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최우수상

무지개 운동장 (수원 영덕초등학교 6학년 김윤우)	60
너와 나, 우리는 친구 (영천 포은초등학교 3학년 정민준)	61
새끼손가락 한마디 (서울잠원초등학교 5학년 정세빈)	62
먼저 달려가 도와야 해요 (청주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4학년 송민아)	63
안녕? 도와줄게 (강릉 율곡초등학교 6학년 전해람)	64
우리 반 서울이 (성남 중부초등학교 2학년 한지윤)	65
너와 나 (광양덕례초등학교 6학년 유하영)	67
작은 꽃송이를 피우고 싶다면 (부산 거제초등학교 2학년 김린아)	68
내 친구 (제주 삼성초등학교 4학년 김민진)	69

우수상

우리 함께 해요 배려 나누기 (경산 성암초등학교 5학년 김승주)	70
프리그마 (서울 북성초등학교 6학년 유예솔)	72
꿈 (서울신내초등학교 5학년 김지우)	73
너의 마음이 느껴져 (서울영도초등학교 6학년 이유나)	74
걷는 법을 배운 날 (청주 상당초등학교 5학년 이가영)	75

목 차



초등학생 산문

대 상

사랑하는 나의 다리! (창원 현동초등학교 3학년 정태오).....	7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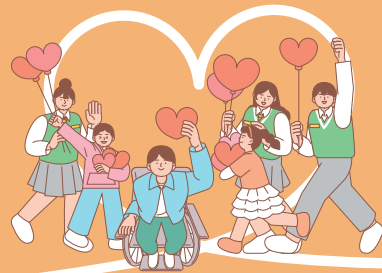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최우수상

용기내어 한 발짝 (김해 봉명초등학교 6학년 김보영)	80
우리 삼촌 (대구국제학교 5학년 권서준).....	82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갈 세상 (울산 강남초등학교 4학년 김민성)	85
편견이라는 벽돌 (제주 월랑초등학교 6학년 김효림)	87
우주의 별 (이리동북초등학교 6학년 조윤주).....	89
장애인=사람(人)=모두 다 인(人) (청주 생명초등학교 5학년 박승유)	91
너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광주 동림초등학교 4학년 김지안)	93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손 인사 (인천구월서초등학교 4학년 주소울).....	95

우수상

내 친구는 장애인 (강릉 유천초등학교 6학년 정효슬)	97
마음의 눈으로 다시 본 친구 (대전 한밭초등학교 3학년 김세연)	98
장애인도 할 수 있어요 (서울구룡초등학교 6학년 정연우)	100
다름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서울구암초등학교 3학년 하세정)	101
나는 특별하다 (서울영신초등학교 4학년 이연주).....	102

목 차



초등학생 독후감

대 상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읽고 (화성 수현초등학교 3학년 김태은) 105

최우수상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우리들에게 (원주 무실초등학교 4학년 김문주) 107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광주 고실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109

도움의 손길 ‘빠떼기’를 읽고 (인천 해든초등학교 6학년 오승규) 111

너는 할 수 있어 (대구성동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112

우수상

우리 누나야는 앵무새가 아니야 -‘어서옵쇼 분식점’을 읽고 (김포 운양초등학교 6학년 유송현)··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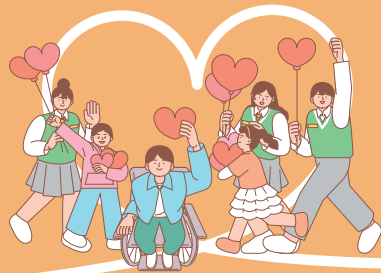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경주 현곡초등학교 5학년 손민성) 116

안내견 탄실이의 눈으로 본 장애인의 마음 (서울목운초등학교 4학년 이리안) 118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의 더 특별한 재주 (세종 다정초등학교 3학년 신소연) 120

‘손잡고 한 발짝 더’ (울산 월평초등학교 6학년 최규은) 122

목 차



초등학생 방송소감문

대 상

마음의 힘 (창원 평산초등학교 5학년 서은성)	1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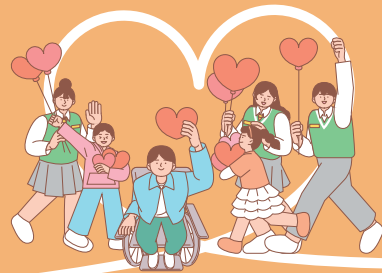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최우수상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성남 보평초등학교 6학년 심규민)	129
가능성의 꽃, 장애이해 교육 (대전목동초등학교 6학년 하나린)	131
함께 손을 잡아요 (부산 용문초등학교 6학년 김서우)	133
알려선 안되는 그들의 꿈과 노력 (세종 연양초등학교 3학년 심하은)	134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보성 벌교초등학교 6학년 박세은)	136
우리 함께 꿈꾸는 세상 (이리동북초등학교 4학년 조연주)	138
장애인식개선 영상 감상문 (계룡 용남초등학교 6학년 박규람)	140
‘대한민국 1교시’, 꼭 필요해 (거창 북상초등학교 6학년 정소진)	141
꿈을 꾸며 (경주 동방초등학교 3학년 황시원)	143
다름을 이해하는 영점 맞추기 (아산 탕정초등학교 4학년 성시현)	145
동등한 눈높이의 꿈 (대전 두리초등학교 6학년 임소윤)	147
우리의 꿈 (서울을지초등학교 6학년 장하윤)	149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 -‘대한민국 1교시’를 시청하고- (세종 다정초등학교 6학년 강하윤) ..	151
우리, 함께 꾸는 꿈 (울산 온양초등학교 3학년 최유성)	153
모두가 같은 세상 (용인 대일초등학교 6학년 방라엘)	154
장애에 대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경산 성암초등학교 5학년 이지호)	156
다르지 않은 우리 (경산 성암초등학교 6학년 진소민)	158
장애가 있어도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면 안돼! (광주 건국초등학교 5학년 홍서진)	160
작은 관심 (세종 연양초등학교 3학년 이도윤)	162

우수상

모두 다 함께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6학년 오윤아)	164
‘장애인의 날’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6학년 여은서)	166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서울공덕초등학교 2학년 허유리)	168
장애, 이것은 그저 특징일 뿐입니다 (서울양재초등학교 6학년 신지호)	169
용기와 희망 (인천담방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171

목 차



중학생 시

대 상

다음에는 같이 (서울 위례솔중학교 1학년 이성민)	1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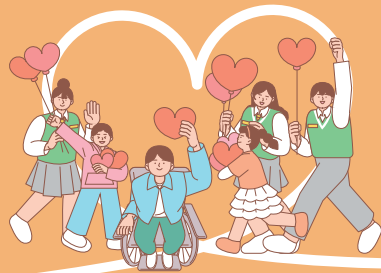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최우수상

퍼즐 조각 (고양 지도중학교 2학년 엄수정)	176
선과 원 (세종 도담중학교 3학년 김도혜)	177
똑같아요 (전주서중학교 2학년 명하민)	178
소리 없는 춤 (원주 북원중학교 2학년 서민지)	179
나는 고요 속을 걷는다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1학년 조은서)	180
손을 잡으니까 (부산 연일중학교 1학년 오정현)	181
같이 걷는 이 길 (충주북여자중학교 3학년 노연우)	182

우수상

오! 내 친구! (시흥 배곧해솔중학교 1학년 손지민)	183
함께 (통영 충렬여자중학교 1학년 김연후)	184
소원 (대구 유가중학교 3학년 김아랑)	185
꽃 그리고 그녀 (대구 청구중학교 3학년 김동민)	186
마음의 무게 (인천동방중학교 3학년 안지현)	187

목 차



중학생 산문

대 상

세상을 잇다 (청주 원평중학교 3학년 이예준)	19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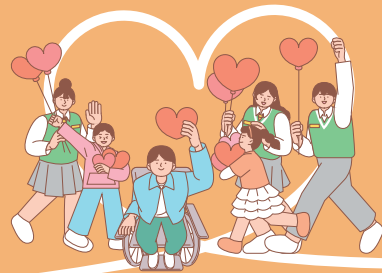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최우수상

함께하는 삶 (대구 유가중학교 2학년 이태인)	193
장애란, 다르지만 특별한 것 (울산 다운중학교 3학년 위현주)	195
단밤아! 사랑해! (인천예송중학교 3학년 서연지)	197
‘손잡고 한 발짝 더’ (충남 당진중학교 3학년 전은조)	199
파란 개미 (창원여자중학교 3학년 권민서)	201
공간도 함께 마음도 함께 (울산 다운중학교 3학년 정제희)	203

우수상

장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 (파주중학교 1학년 성지연)	205
함께 구르는 행복 (거제 계룡중학교 1학년 박주연)	207
밀어내기 금지 (서울 공릉중학교 1학년 정예원)	209
누구보다 가장 빛난 아이 (여수 안산중학교 2학년 윤채헌)	211
행복한 희망을 꿈꾸는 우리 (제주중앙중학교 2학년 문준서)	213

목 차



중학생 방송소감문

대 상

너의 소원은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2학년 유리아)	21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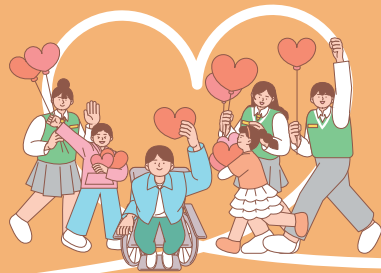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최우수상

성유의 소감문 (원주 북원중학교 3학년 허성유)	219
특이함과 특별함 (김포 통진중학교 3학년 노지현)	220
함께 춤추는 우리 (거제 장목예술중학교 1학년 손지윤)	222
진심이 들리는 순간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배세윤)	224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서울 여의도중학교 2학년 성시온)	226
너의 소리, 나의 소리, 함께 듣는 소리 (영암 삼호중학교 1학년 정아린)	229
‘렛츠 댄스’ 감상문 (제주 신창중학교 3학년 진은서)	231
특별한 ‘우대’보다는 평등한 ‘대우’ (청주 생명중학교 2학년 김민서)	233
우리, ‘함께!’ (구리 갈매중학교 1학년 강지은)	235
이해의 소중함 (칠곡 석전중학교 3학년 정서영)	237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장애인식개선, 만들어가요 (광주서광중학교 2학년 백은서)	238
‘렛츠 고!’ (대구 유가중학교 3학년 한채현)	239
그들이 원하는 소원, 그들에게 진정으로 닿길 바라는 나의 꿈 (인천 용현여자중학교 3학년 전근영)	241
렛츠, 함께! (전주 호성중학교 3학년 김주향)	243
지석이의 소원 (제주중앙중학교 2학년 문성원)	244

우수상

다름을 이해하는 일 (화성 송산중학교 3학년 김요셉)	246
춤과 미술, 꿈을 향한 도전 (밀양 동강중학교 2학년 최민서)	248
우리의 소원 (광주서광중학교 3학년 조유리)	250
‘렛츠 댄스’ 방송소감문 (하노이한국국제학교 8학년 김주혁)	252
세상을 깨우는 다름 (하노이한국국제학교 9학년 황윤서)	253

목 차



중학생 웹툰

대 상

무제 (남양주 도농중학교 1학년 변재영).....	25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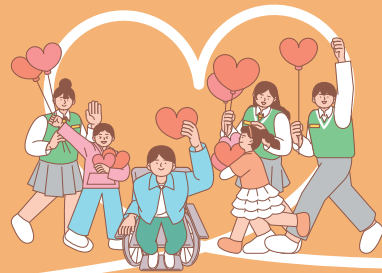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최우수상

다르다는 것 (광주 치평중학교 3학년 김정은)	260
내가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2학년 황지원).....	262
별처럼 빛나는 (부산국제중학교 3학년 김민솔).....	263
행복한 미래로! (서울 중암중학교 1학년 임은재)	268
보이지 않아도, 꿈은 보여요 (여수웅천중학교 1학년 김소울).....	270
함께 여는 행복한 길 (천안 성환중학교 2학년 박서현).....	273

우수상

꽃은 꽃이다 (고양 지도중학교 1학년 정수안)	276
눈 (부천 소사중학교 2학년 김지유).....	278
편견 없는 우리들 (용인 문정중학교 2학년 이수현)	280
문턱 없는 우리 (김해 가야중학교 2학년 강서하)	283
우리들의 마을 (경산 삼성현중학교 1학년 송유진)	285

목 차



고등학생 시

대 상

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찬결)	2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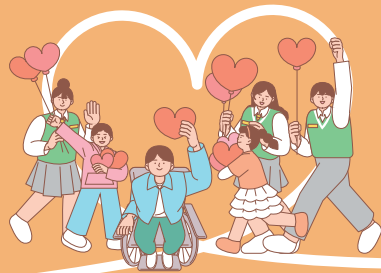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최우수상

네 세계는 빛으로 말하지 않아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현아)	290
너의 속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3학년 이채연)	291
미안해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학년 박주영)	292

우수상

춤이 말을 걸다 (사천 삼천포공업고등학교 3학년 이범희)	293
고요의 언어 (수원 숙지고등학교 3학년 김용한)	294
나는 나로 살아간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예)	295
한걸음, 더 가까이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이나경)	296
모두가 아름다운 꽃이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임서현)	297

목 차



고등학생 산문

대 상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충남 논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구은아)	3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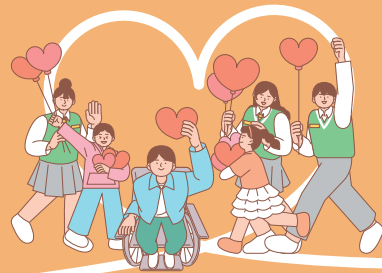
최우수상

내가 꿈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 강일고등학교 3학년 엄기홍)	303
무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학년 이하은)	309
다름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포용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이예나)	311

우수상

천천히 함께 걷는 시간 (경기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어예진)	313
같은 세상, 다른 시선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권예지)	315
10, 9 다른 듯 같은 (대구 현풍고등학교 1학년 김민기)	317
우리는 같은 사람 (완도 수산고등학교 3학년 장은혜)	318
하나의 세상, 같은 사람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현예원)	320

목 차



고등학생 방송소감문

대 상

함께 날아오르자 (제주한국국제학교 12학년 오승찬) 323

최우수상

우리는 함께할 때 빛난다 (세종 반곡고등학교 2학년 신혜린) 325

우리 함께 춤출 수 있을까? (평택 진위고등학교 1학년 오민찬) 327

‘렛츠 댄스’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예재현) 329

우수상

존중받는 존중하는 소중한 존재 (대전 계룡디지털고등학교 1학년 서정원)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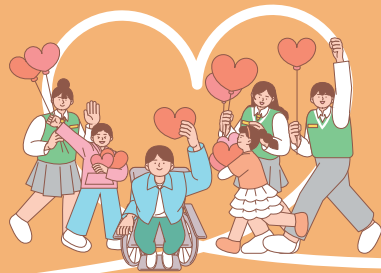
마음으로 듣고, 춤으로 나눈 우정 (논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서주원) 332

렛츠 댄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1학년 이은성) 333

‘렛츠 댄스’를 보고 - 인간관계와 상반된 다정함을 중심으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박예지) 334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박효은) 335

목 차



고등학생 웹툰

대 상

할 수 있었던 것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11학년 이현지)	339
---------------------------------------	-----

최우수상

달라도 아름다운 (경기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하늬)	342
나애 친구 (수원 한봄고등학교 2학년 구가빈)	345
덕분이야! 나의 꿈은 (수원 한봄고등학교 2학년 김민지)	352

우수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서울 홍익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김여진)	355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꿈 (수원 한봄고등학교 3학년 조예현)	357
무제 (원주 문막고등학교 3학년 이수인)	362
나, 너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윤서빈)	363
어둠을 밝힐 재료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이승희)	366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유 아

그림(포스터) 부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자!

서울 예림유치원
7세 김주안



휠체어를 탄 농구선수들

안산 자연생태숲유치원
7세 장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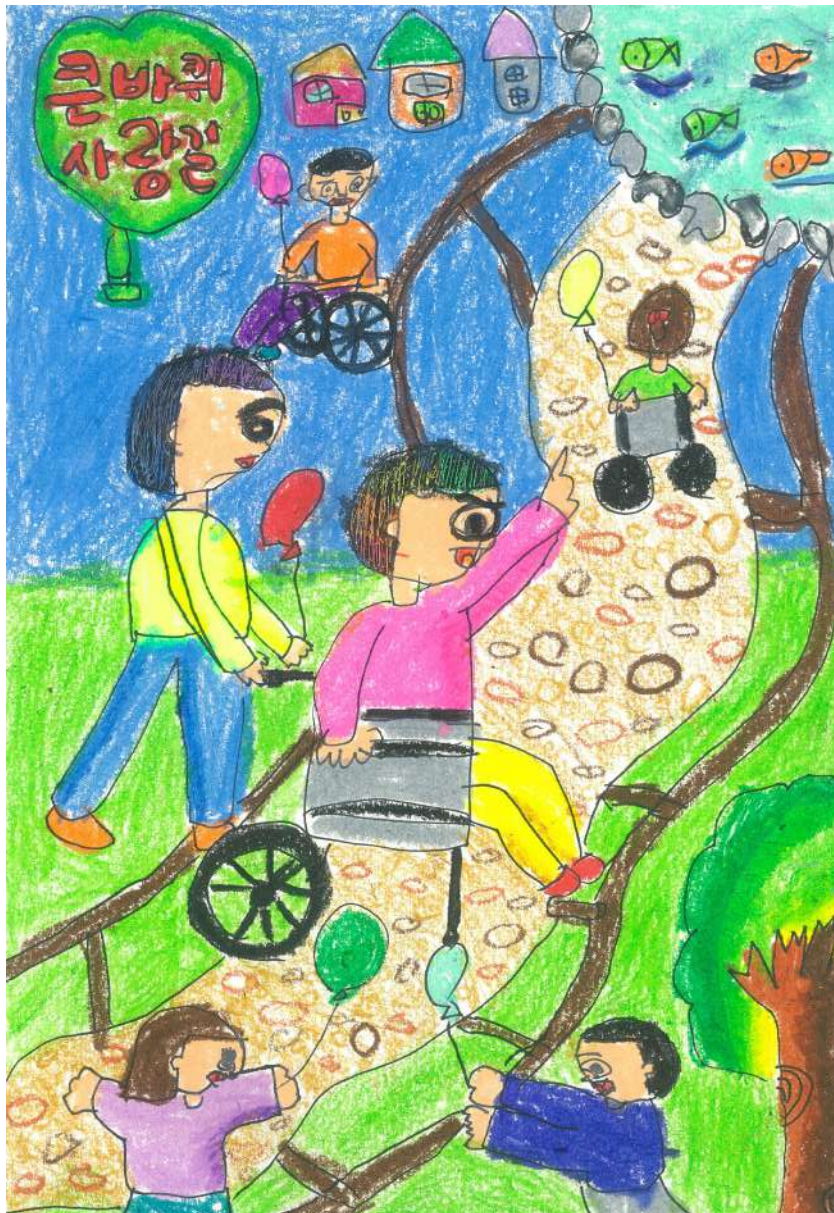
고마운 안전 지킴이

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김찬유



장애인 친구들과 행복한 산책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구미 천사유치원
7세 유성빈



함께 걸어요

구미 아이누리유치원
7세 박서은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대전 신탄진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6세 곽하음



꽃 선물을 해줄래요

서울 예림유치원
6세 김하윤



우리는 하나예요!

인천 다운유치원
7세 육서아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 무지개처럼

인천 자유유치원
6세 임지울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초등학생

시
부문

잉크로 피어난 이름

서울강남초등학교
6학년 황채아

흙 속에 묻혀진 이름들이 있다.
발자국 아래 사라진 이름들이 있다.
낮은 벽에 가려진 이름들이 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숨 쉬고
바람의 결을 따라 흔들리며
마음의 잉크로 상상을 한다.

손끝으로 읽는 대화
빛으로 듣는 음악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춤

세상은 그들을 지우려 했지만
그들은 더 깊이 새겨졌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가장 선명한 문장이 된다.

오늘, 잉크로 꽃이 피어난다.
기억되지 않은 이름들이
새로운 페이지에 다시 쓰인다.



무지개 운동장

수원 영덕초등학교
6학년 김윤우

빨강색 운동장은 멈추는 마음
잠깐 멈추고,
주위를 둘러봐요
놓쳤던 소중한 것들이 보여요

남색 운동장은 깊은 마음
넘어진 친구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따뜻한 손길로 그 깊이를 헤아려요

주황색 운동장은 따뜻한 마음
마음이 얼어붙은 친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아요
그 손이 친구의 마음을 녹여요

보라색 운동장은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빛을 더해요,

초록색 운동장은 생명의 마음
푸른 새싹처럼 우리는 자라요
속도와 모양은 달라도
함께 자라며 웃을 수 있어요

일곱 빛깔 무지개 운동장
빨강부터 보라까지
다른 마음, 다른 색이
서로 어우러져 달리고 웃어요
우리의 운동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일곱 빛깔 무지개예요.

파란 운동장은 믿음의 마음
하늘을 나는 공처럼
믿음은 멀리 날아요



너와 나, 우리는 친구

영천 포은초등학교
3학년 정민준

처음엔 조금 낯설었어.
나와 다른 모습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였거든.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웠어.
나의 서툰 말 한마디가
상처의 가시가 될까 봐
말조차 아꼈거든.

너는 먼저
작은 미소로 다가와
망설이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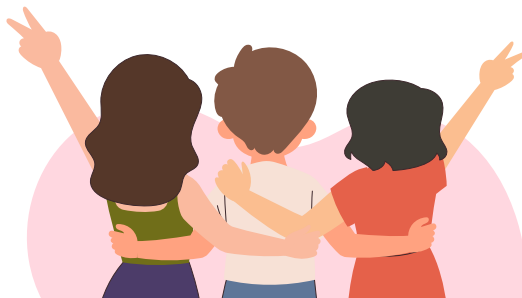
너는 먼저
수줍은 손길을 내밀어
서툰 내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었어.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대답이 느려도 괜찮아.
같은 교실 같은 시간 안에서
너는 햇살 같은 존재야.

달리는 속도가 달라도
바라보는 곳은 같아.
내딛는 발자국이 달라도
향하는 마음은 같아.

너의 느린 걸음에
나는 '기다림'을 배웠어.
너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진심'을 배웠어.

너와 나
우리는 친구.
함께 걷는 이 길이
세상을 조금 더 빛나게 할 거야.



새끼손가락 한마디

서울잠원초등학교
5학년 정세빈

작고 힘없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게 나는 왜 아픈 거냐고 묻는다.

너는 아픈 게 아니야라고 말해도
자꾸 아프다고 아프다고 외친다.

폴짝폴짝 잘 뛰는 토끼에게 물었다.
내 새끼손가락이 왜 아픈지 아냐고

그러자 귀여운 토끼는 말했다.
새끼손가락은 아픈 게 아니야!
봐봐 내 귀는 남들과 다르잖아.

파란 하늘을 보는 기린에게 물었다.
내 새끼손가락이 왜 아픈지 아냐고
그러자 길쭉한 기린은 말했다.
새끼손가락은 아픈 게 아니야!

봐봐 내 목은 남들과 다르잖아.
코로 목욕하는 코끼리에게 물었다.
내 새끼손가락이 왜 아픈지 아냐고

그러자 힘센 코끼리가 말했다.
새끼손가락은 아픈 게 아니야
봐봐 내 코는 남들과 다르잖아.

나의 새끼손가락은 웃으며 말했다.
“난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그제야 모자란 한마디가 채워졌다.



먼저 달려가 도와야 해요

청주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4학년 송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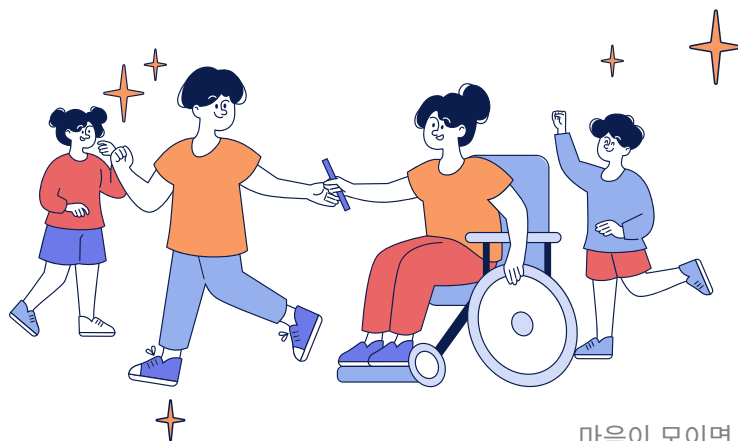
지난 가을 학교 옆 사과밭에서
검정 봉지 한 가득 싹 사과를 따어요
둥그란 모양, 찌그러진 모양
까치가 파먹은 사과까지
모양은 달라도 달콤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도 비슷하대요
아직도 구구단을 잘 못 외우는 친구
다리가 아파 목발이 필요한 친구
공부 시간에 제멋대로 하는 친구

그런데 아무도 못마땅해하지 않아요
서로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거든요.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빨리 피는 꽃도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다리면 달콤한 사과처럼 된다고요.



안녕? 도와줄게

강릉 울곡초등학교
6학년 전해람

시각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안내견
블록블록 점자블록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내견
키보드가 서 있는 점자블록

손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막는 건 차별이에요
안내견을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명 길이에요
점자블록을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어떻게 존중해 줄까요?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간단한 수어를 배워서 인사하기

휠체어에 탄 친구를 만나면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기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세요

안녕? 도와줄까?



우리 반 서울이

성남 중부초등학교
2학년 한지윤

우리 반 서울이는
조금 특별한 친구예요.
내 동생 서운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참 잘해요.

1학년 땐
햇살 반 교실에 많이 있었지만
이젠 우리랑
수업도 같이 해요.

서울이가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내가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와요.
시끄럽게 해도
"조용히 해!"하지 않고
참아줘요.

서울이는 말이 느려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땐
"그랬구나!"하고
대답해 줘요.

서울이는 키도 작고
말도 조금 느려요.
그래도 요즘은
햇살 반보다
우리 반에서
더 오래 함께 있어요.

그만큼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끔 생각해요.
"서울이도 나랑 놀고 싶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놀자고 해요.

나는 서울이와
같이 놀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나눔을 하고 싶어요.

서울이가 귀엽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서울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싶어요.

서울이는 내 동생처럼
정말 귀여운
햇살 반 친구예요.
미술도 열심히 해요.
조금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서울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더
같이 나아갈 거예요.



너와 나

광양덕례초등학교
6학년 유하영

빙그르르 휠체어 한 바퀴
앞에 앉는 너, 뒤에 선 나
우린 같은 곳에 있어

빙그르르, 두 바퀴
파란 하늘, 예쁜 꽃
우린 같은 것을 보고 있어

빙그르르, 세 바퀴
날 보며 웃는 너, 널 보며 웃는 나
우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빙그르르 네 바퀴, 다섯 바퀴...
손잡고 걷지 않아도
우린 알 수 있어

너와 내가 함께여서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작은 꽃송이를 피우고 싶다면

부산 거제초등학교
2학년 김린아

바람이 뽁뽁
거세게 불어도
단단히 붙잡아 주는 흙이 있어서
흔들려도 곧게 일어서 있어요.

차가운 비가 툭툭
아프게 느껴지지만
사실 더 튼튼해지라고
멀리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기다란 지렁이
꾸물꾸물 땅을 파헤쳐도
무서워 말아요.
흙 속 양분을 골고루 섞어주고 있거든요.

당신이 예쁜 송이를 피우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함께 자라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음의 꽃송이가 활짝 피어나면
세상으로 나갈 준비하는
새로운 씨앗을 품은 열매가
달콤한 향기를 내며 자랄 수 있어요.

내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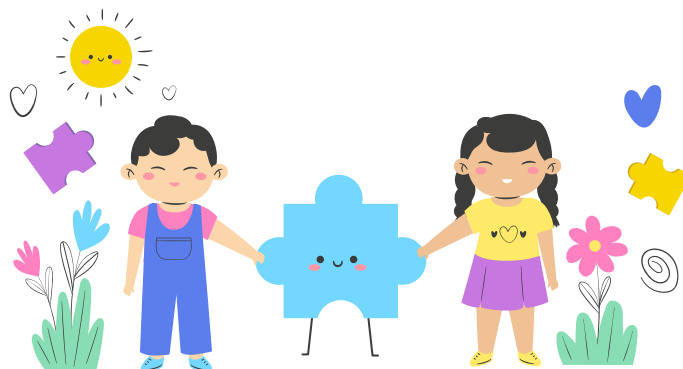
제주 삼성초등학교
4학년 김민진

나랑 내 친구는 색다른 인도를 걷는다네

난 알록달록한 인도
내 친구는 정사각형인 노란 인도를 걷는다네

나랑 내 친구는 모양이 다른 인도를 걷는다네
난 ㄱ, ㄴ 모양의 보도블록 인도
내 친구는 흰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구별해 걷는다네

나랑 내 친구가 걷는 인도는 색다르다네
그래도 우린 함께 같이 나란히 걷는다네



우리 함께 해요 배려 나누기

경산 성암초등학교
5학년 김승주

전에는 몰랐어요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계단을 오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학교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힘들 줄 몰랐어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목발을 짚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가 다가와서
“괜찮아?”하며 나를 도와주었을 때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급식 판을 받아주었을 때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에는 큰 따뜻함으로 남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장애는 특별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걷기 힘든 친구가 있다면 함께 걸어주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 함께 해요
작은 배려, 따뜻한 나눔
그것이 모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어요.



프리그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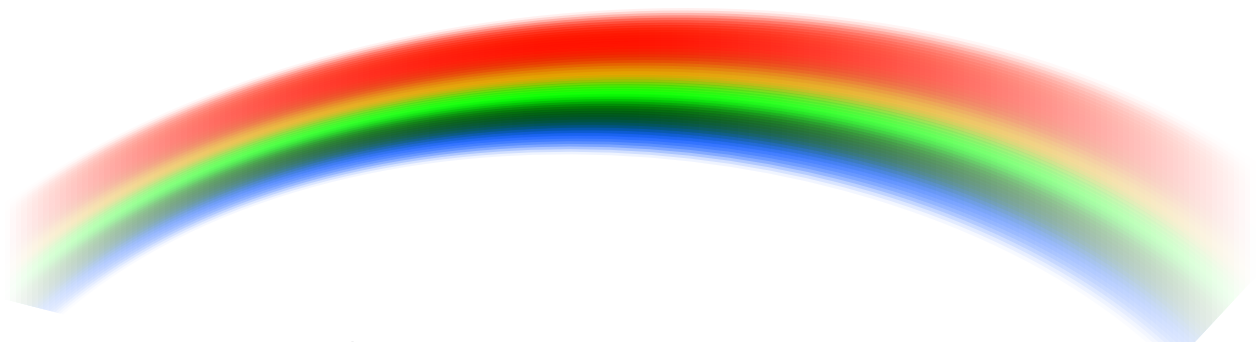
서울 북성초등학교
6학년 유예솔

‘손잡고, 한 발짝 더’
세상은 넓고 길은 이어져
세상은 느리게 열리지만
너의 걸음은 빛으로 새겨져

바람이 귀엣말하듯
너의 꿈은 조용히 자랄 거야
벽이 높아도, 길이 멀어도.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길이야

‘손잡고, 한 발짝 더’
장애는 단지 한 조각의 그림자야
네 용기는 그 위에서 춤출 거야

벽을 넘어 꿈은 더 깊어
장애는 이름일 뿐이야
무한한 하늘 아래 별빛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야



꿈

서울신내초등학교
5학년 김지우

꿈꿔 본 적 있니?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넓은 잔디밭을 뛰어노는 것

그려 본 적 있니?
우리와 조금 다른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

상상해 본 적 있니?
귀가 안 들리는 사람과
함께 노래를 듣는 것

말해 본 적 있니?
몸이 불편한 친구와 함께
꿈을 이루는 것

바라본 적 있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함께 무지개를 보는 것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와 조금 달라도
이상할 건 없어

우리의 실천과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의 눈부신 꿈을 이뤄나가

우리의 꿈
곧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될 거야



너의 마음이 느껴져

서울영도초등학교
6학년 이유나

저 커다란 해돋이가
고운 색깔 무지개가
푸릇푸릇한 나무가
춤추는 예쁜 꽃들이
나한테는 암흑이야
허나 보이는 것 같아
네 따스한 마음씨가

나무 위 새의 노래가
개구리들의 합창이
상쾌한 폭포 소리가
빗소리라는 연주가
나한테는 정적이야
허나 들리는 것 같아
네 그리운 목소리가

안 보일지라도 나는
안 들릴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이 느껴져



걷는 법을 배운 날

청주 상당초등학교
5학년 이가영

친구는 나보다 느리게 걸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 속에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돌부리에 걸려도, 턱에 부딪혀도
친구는 멈추지 않았다.
양말 속 발가락이 아파도
그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친구의 다리는 조금 느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누구보다 용감했다.

나는 늘 빠른 게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친구의 느린 발걸음으로 속도가 아닌 용기로
걷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친구를 따라 걷다가
어느새 마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가장 단단한 마음으로
먼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초등학생

산 문
부문

사랑하는 나의 다리!

창원 현동초등학교
3학년 정태오

나는 2016년도에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을 때 안 움직였다고 한다. 엄마, 아빠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나의 뇌 기능이 고장 났다고 들으셨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커 온 나는 두 살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운동을 시작하며 고장 난 뇌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에도 나는 보조 기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러 부모님과 정형외과의 진료를 보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곧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슴이 덜컥하고 무서움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같았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내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열심히 다리 재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는 못한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이랑 내가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다!

수술 후 나는 욕조에 다리를 올려서 앉아서 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고 게임도 재미있게 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도 있다.

나는 내 다리를 한 번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다. 내 다리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행복하고, 내 다리가 그 누구의 다리보다 사랑스럽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올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장애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할 수 있고 매일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본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나처럼 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나의 다리야, 내 다리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너를 영원히 아끼고 사랑할게!”

용기내어 한 발짝

김해 봉명초등학교
6학년 김보영

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내 또래들과 다름없이 매일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 학교 가기 10분 전 부랴부랴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지각을 피하기 위해 학교로 전력 질주한다. 휴, 다행히 오늘도 지각은 피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실로 들어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어?’ 우리 교실에 처음 보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오다가 교실을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복도로 나가 반을 확인했다.

“6학년 4반” ‘어라? 이상하다. 우리 반 맞는데?’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 찬 채로, 다시 교실로 들어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제후야, 전학 온 친구야.” 나는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ㄴ..네..” 그런데 전학 온 친구의 모습을 보니 몸이 불편한 것 같았다. 1교시 쉬는 시간, 전학 온 친구 자리로 아이들이 모여 온갖 질문을 쏟아냈다. “기찬아, 어디서 왔어?”, “너 무슨 음식 좋아해?” 그 아이의 이름은 기찬이라고 했다. 시골에 살다가 큰 병원이 있는 서울로 왔다고 한다. 휠체어를 탄 친구가 우리 반으로 전학 와서 신기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기찬이가 신기하다며 말도 걸어주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찬에게 장애인이라며 놀리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한쪽 다리 없는 아이’라며 심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찬이는 점점 웃음을 잃고 말수도 없어졌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기찬이를 도울까 생각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나는 그것도 못하는 내가 싫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이다. 지금은 다르다.

나는 용기를 내어 기찬이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ㅋㅋㅋ황기찬 다리 없대요~” 그 아이들은 계속 기찬이를 놀렸다. “하지 마”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하지 말라고, 기찬이 놀리는 거” 내가 진지하고 진심을 담아 말하니 그 아이들은 당황한 눈치였다. “뭘...?” 나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기찬이 놀리는 거, 너희는 장난이겠지만 기찬이한테는 큰 상처라, 기찬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짓 그만해.”

기찬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작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그때 나는 기찬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기찬이를 놀리던 아이들은 부모님까지 불러 선생님께 제대로 혼이 났고, 이제 기찬이를 놀리는 아이들은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기찬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제후야, 그때 고마웠어.” 일주일 전 기찬이가 나에게 한 말이다. 남들에겐 그냥 감사 표시로 보이겠지만 나에게서는 정말 행복이 차오르는 말이다. 그때 기찬이는 고맙다며 직접 만든 쿠키와 초콜릿을 주었다. 기찬이는 제빵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기찬이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찬이의 제빵 실력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 쿠키와 초콜릿은 정말 맛있었다. “반죽은 이렇게...” 기찬이네 집에서 제빵을 배워보기로 했다. 신이 난 채 나에게 설명하는 기찬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맞다. 처음 기찬이가 전학 왔을 때 이후로 기찬이가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기찬이는 웃는 게 정말 예쁜 것 같다. 기찬이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기찬이는 지금까지 웃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기찬이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다. 장애가 있다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나는 오늘도 기찬이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기찬이와 함께 등교한다. 휠체어를 밀어주느라 힘들지만, 기찬이와 함께라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온다.



우리 삼촌

대구국제학교
5학년 권서준

우리 삼촌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서른여덟 살이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간단한 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삼촌의 모습이 안타깝워 우리는 늘 마음이 아프다. 자폐가 있는 삼촌의 증상이 더 심해진 이유는 어렸을 때 차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친 탓도 있다. 그때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삼촌이 자폐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걸 평생 마음에 안고 계신다.

삼촌이 혼자 생활할 수 없어서 누군가는 늘 삼촌을 돌보고 있어야 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삼촌과 단 1시간도 떨어져 있지 못한다. 어딜 가나 삼촌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닌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늘 마음을 졸이신다. 자칫하다가는 몇 년 전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갔을 때처럼 삼촌이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우리는 늘 삼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촌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삼촌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무섭다고 하거나,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시선에 상처를 입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속상하다.

“나는 편견이 없어.”

“장애는 다르지, 틀린 게 아니야.”라는 멋진 말 뒤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꺼리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걸 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자주 느낀다. 길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막상 삼촌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는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뀐다. 사회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자를 우짜꼬.”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장애인을 한 가정의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또 하나의 주름살이 생겼다. 주름살 하나,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삼촌의 이야기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지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에서 삼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책이 나왔다는 거다. 나라에서 몇 없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사람이 적은 동네에 집을 마련하여 일주일 중 나흘 동안은 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설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뿔 듯이 기뻐다. 특히 그동안 삼촌을 돌본다고 애를 먹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야 한숨을 돌리겠다며 웃으셨다.

사실 이 시설도 할아버지의 노력이 한 방울은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는 방송사의 기자를 만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인터뷰도 하셨다. 돌봐주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달부터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다.

삼촌은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은 장애인을 위한 집에서 지내다가 금·토·일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다. 처음에는 과연 삼촌 혼자서 낯선 사람들과 며칠을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삼촌이 가져갈 짐을 정리하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근심이 산을 이루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삼촌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세 분이나 계셨고 아주 좋은 환경을 직접 보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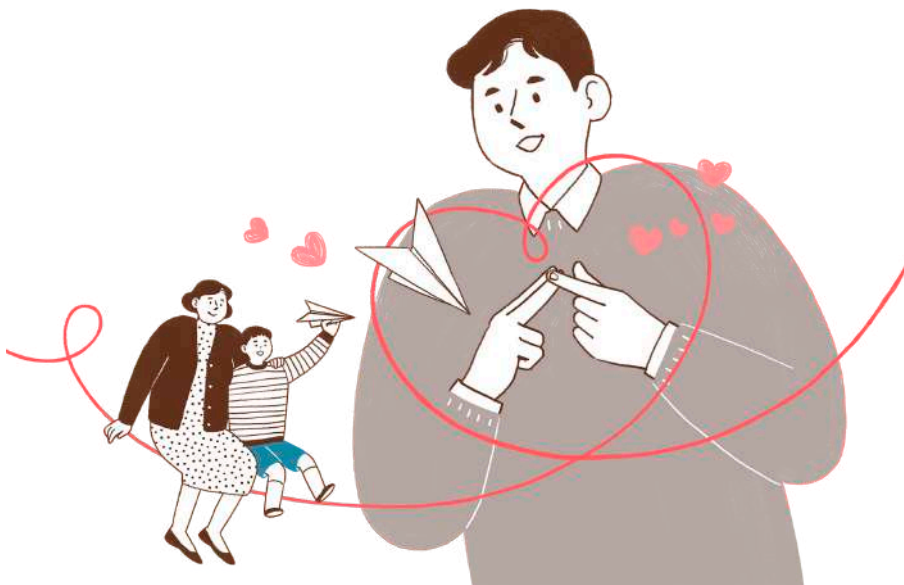
그곳에서는 삼촌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있었다. 놀이공원에도 가고, 산책도 할 수 있다. 삼촌이 혹시 가지 않으려고 때를 쓸까 봐 걱정했는데 그것마저도 필요 없었다. 삼촌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차를 타고 즐겁게 그곳으로 간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이 조금은 퍼진 것 같았다.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 많아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장애인을 둔 가정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우리 삼촌

떨어지면 좋겠다. 개인의 희생으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삼촌의 첫걸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삼촌이 바깥세상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갈 세상

울산 강남초등학교
4학년 김민성

「어느 숲속에 눈이 안 보이는 암컷 여우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암컷 여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숲에는 수컷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늘 눈이 보이지 않는 암컷 여우에게 “넌 나와 달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컷 여우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도망치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수컷 여우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 장애가 있는 것이 부끄러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밖에 푹푹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문 앞에 열매와 먹을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컷 여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일 문 앞에 음식이 놓여있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몰래 누군지 보니 바로 자신이 놀리던 그 암컷 여우였습니다. 매일 자신을 찾아와 주는 암컷 여우 덕분에 수컷 여우는 굶지도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갈 용기도 얻었습니다.

수컷 여우와 암컷 여우는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은 위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꾼다. 이번 달 나의 짝은 다운 반 친구가 되었다. 우리 학교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통합교육을 받는 ‘정다운학교’라는 연구학교이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수업하는 반을 ‘다운 반’이라고 한다.

처음에 다운 반 친구가 내 짝이 되었을 때는 시끄러울까 봐 싫었고 나를 다치게 할까 봐 걱정되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할까 봐 귀찮았다. 그런데 막상 짝이 되어 며칠을 지내보니 그런 생각들은 선입견이었고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일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그 친구에게 배울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 친구는 목소리가 크고 호응도 잘해준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엄마가 말씀하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장애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사실 모든 사람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불안장애가 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말을 더 많이 하거나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나에게 장애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장애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은 장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사고를 겪거나 병에 걸려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신체적 장애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든 사람이 각자 조금의 어려움을 가졌고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 학교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이 커다란 사회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살아가는 멋진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 시작은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고 나는 믿는다.



편견이라는 벽돌

제주 월랑초등학교
6학년 김효림

6학년 내 반 배정은 최악이다. 5학년 때는 애들과 무리 지어 다니면서 놀았던 느낌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6학년 지금은 나 혼자 자리에 앉아서 명만 때리고 있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기 위해 친구들의 성향을 알아보았다. ‘음... 재는 조용하고 예쁜 걸 좋아하네. 어! 재는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는 애가 한 명 있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가가면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피했다. ‘재는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아. 소리를 지르는 건 좀...’ 그 아이의 이름이 궁금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걸 거 같았다.

‘음... 고민된다. 안녕만 해볼까? 책에서도 어떻게든 친해지지 않아. 다른 애들은 다 무리를 만들어서 깔 수도 없어... 좋아! 인사만 하는 거다!’ 나는 조심조심 다가갔다.

“안녕?”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으아아악!” 그 애는 교실을 뛰쳐나가 버렸다. 난 어이가 없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나에게 껏속말로 말씀해 주셨다.

“이름은 해진이야. 해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 소리치고 그래도 친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매일 천천히 말 걸어줘.”

선생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난 너무 놀랐다. 해진이는 평범해 보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창피함이 몰려왔다. 그리고 내 눈치를 보며 들어오는 해진에게 살짝 웃어주었다.

그 이후로 하루에 한 번씩은 해진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지금은 소리 지르는 것도 나아지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음 교시에 쓸 책을 준비하는데 뒤에서 해진이가 말을 걸었다.

“나... 랑... 놀... 래?”

해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놀고 싶은지 내 옷의 끝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

나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다. 해진이는 나와 놀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서툰 것일 뿐이었다.

그 후에도 내가 먼저 말 걸기 전에도 해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느덧 나와 해진이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해진이가 정말 고마웠다. 나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나를 보시면서 엄지를 올리며 환하게 웃으신다. 그러면 옆에서 해진이도 선생님을 따라한다. 내가 한 발짝을 가면 한 발짝을 뒷걸음질 쳤던 해진이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해진이는 나의 편견을 없애준 친구이다.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보면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 그 친구들은 그냥 나와 같은 학생, 사람, 친구로 보였다. 어쩌면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과 편견이 생기는 것 같다.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만 더 오래 본다면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편견이라는 벽에 벽돌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면 우리는 더 소중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별

이리동북초등학교
6학년 조윤주

나는 은하초등학교 1학년 2반에 다니는 김우주다. 나는 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별을 가까이서 보고 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들은 나를 ‘자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등학교는 내가 다니던 유치원보다 재미가 없다. 별이 그려진 책도 없고, 별이 그려진 장난감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짝궁 자리에서 별을 발견했다. 짝궁의 연필에 별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연필을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짝궁이 한눈을 판 사이에 연필을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뒷자리 친구가 나를 ‘도둑’이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그때부터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물건이 없어지면 나부터 의심했다.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나와 멀리 떨어져 앉았다. 나는 이제 은하초등학교에 가기 싫어졌다.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우주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 삼 일째 되던 날, 평소 우주를 좋아하던 하나가 선생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선생님은 우주가 결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이들에게 우주의 자폐성 장애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우주가 별이 그려진 연필을 만져 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우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우주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아이들은 우주만의 소통 팔찌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별 모양 단추가 달린 팔찌였다. 우주가 관심 있는 것이 생기면 그 단추를 눌러 표현하는 팔찌였다.

이제 문제는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우주를 다시 교실로 데려오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우주가 좋아하는 별을 학교 교문에서 교실까지 그려서 우주가 별을 따라 스스로 교실까지 오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별을 그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학교 임원회에 요청하자 도와주고 싶은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별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이야기를 들은 우주의 엄마는 우주를 달래서 학교 앞까지 데려왔다. 엄마 품에 숨으며 다시 집에 가고 싶어 하던 우주는, 교문에 그려진 반짝이는 별을 보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디뎠다. 이어서 계속 이어진 별들을 따라 우주는 어느새 교실 앞까지 도착했다. 교실 문에는 햇빛을 받아 더 반짝이는 별이 붙어 있었고, 그 별이 우주가 교실 문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교실 안에는 우주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친구들은 우주에게 팔찌를 건넸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팔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우주는 별이 그려진 물건을 볼 때마다 별 단추를 눌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학년 2반에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나는 은하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우주다. 나는 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별을 가까이서 보고 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은하초등학교 1학년 2반은, 나에게 별이 되어 주었다.



장애인=사람(人)=모두 다 인(人)

청주 생명초등학교
5학년 박승유

우리 할머니는 보청기를 착용하신다. 몇 년 전 귀 수술을 하시고 난 후 청력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보청기를 끼고 계셔도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신다.

얼마 전, 엄마는 할머니와 대학 병원에 다녀오신 후 머지않아 할머니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실 거라며 할머니의 청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으악! 우리 할머니가 장애인이 된다고?’라며 어릴 적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장애인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무서워 피했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 할머니는 나만 보면 “우리 똥강아지~”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있을 땐 항상 할머니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 할머니가 장애인이라니... 나는 처음에 슬프기보다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생각했던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사고를 당해 몸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를 생각하니, 장애인에 대한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장애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할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장애인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다.

며칠 전 할머니와 같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께서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우리 똥강아지 목소리는 할미가 다 알아들어!”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할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웠다.

앞으로 나는 할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도우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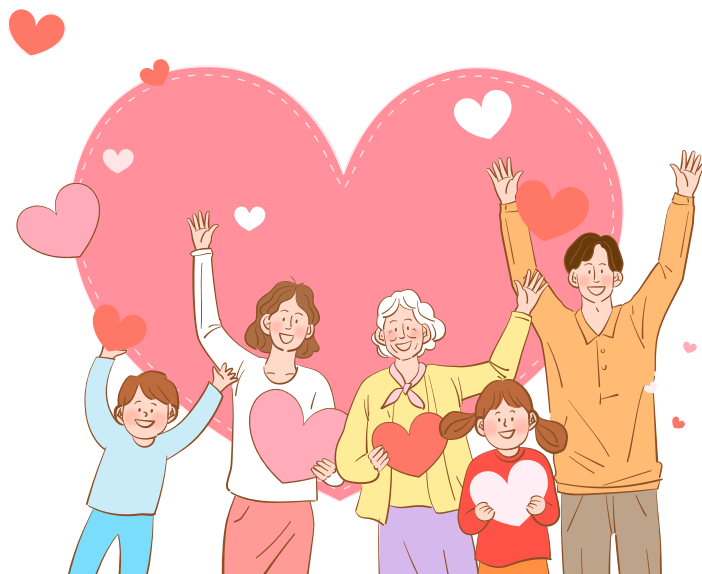
우선, 학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K-팝 아이돌 청각장애인 그룹 ‘빅오션’을 이야기하면서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치아’

장애인=사람(人)=모두 다 인(人)

경기를 보며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몸의 일부가 불편할 뿐이지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장애인이어서 특이하고, 비장애인이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면 손잡고 한 발짝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나의 소중한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의 최신형 AI 보청기가 되어 드릴 테니 저랑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요! 사랑해요!



너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광주 동림초등학교
4학년 김지안

긴장되는 3학년, 새 학기 첫날, 나는 제법 설레었다. ‘새로운 반에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내가 아는 친구도 있을까? 선생님은 누구실까?’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 앉아 반 아이들을 한 명씩 살피다가 갈색 머리카락에 진한 초록색 티를 입고 얹전히 앉아 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너, 2학년 때, 몇 반이었어?”

“나랑 친하게 지내자!”

아이들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애는 마치 불 꺼진 어두컴컴한 텅 빈 교실에 있는 듯 조용했다. 나는 그 아이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나 몸을 살짝만 기울여 귀를 보았지만, 이어폰은커녕 귀지도 보이지 않았다.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꼭 막아도 들리는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조용히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만!”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와 반 아이들은 놀라서 ‘저 애, 왜 저래?’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며칠 뒤, 그 남자아이는 김하빈이라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하빈이를 무시하고, 피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과학 시간에 하빈이와 같은 모둠이 되었다. 누군가

“하빈이는 이런 거 못 하지 않아? 그냥 우리 셋이서 하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분명 하빈이도 과학실험을 하고 싶었을 텐데... 내가 하빈이었다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빈이는 과학 준비물을 들고, 우리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무척이나 실망한 하빈이를 보고 나는 정말 미안했다. 서투르고 부족해도 우리가 도와주면 하빈이도 할 수 있는데, 편견 가득한 말들이 하빈이를 찢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쉬는 시간에 하빈이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하빈이한테 가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나 이거 하나만 주라 응?”

하빈이가 정성스럽게 잘라놓은 그림들 하나를 집으며 말했다. 하빈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표정으로 ‘싫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야, 왜 말이 없어. 짜증 나게”

아이들은 계속 하빈이를 헐박하고 있었다. ‘장애인이라고 하빈이를 무시하는 것인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야, 적당히 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아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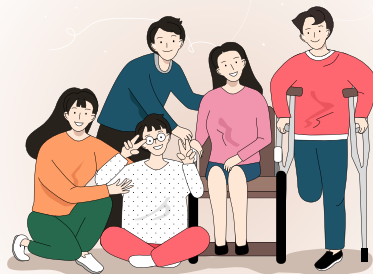
“네가 무슨 상관이나.”

하면서 화를 냈지만, 금세 풀이 죽어 썩 가버렸다. 하빈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계속 그림을 그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만화 속 히어로가 된 듯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빈이를 보니,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했다. 나는 하빈이 그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알록달록 찬란하게 빛나는 색들이 섞여서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내가 다채로운 그림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하빈이는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입꼬리가 초승달처럼 올라간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때, 나는 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잘하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재능을 받쳐주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빈이는 그림을 그릴 때, 무척 행복하게 보였다. 하빈이의 빛나는 모습을 나는 그저 응원해 주고 싶다.

하빈이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으면, 하빈이도 마음껏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빈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빈아,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너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김하빈이라는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손 인사

인천구월서초등학교
4학년 주소울

우리 집 근처에는 나만의 비밀 간식 아지트인 와플 가게가 있어요. 바삭하고 딱딱한 와플을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를 "행복 달콤 와플 가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 가게에 방문했을 때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게 사장님 부부는 청각장애인이셔서 말을 전달할 때 수어를 사용하신단다."

나는 문득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왜 말을 못 할까?' 하고 궁금했어요. 엄마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져"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수어가 언어의 하나라고 생각하니 흥미롭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어 사장님 부부께 수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해보는 손 인사가 서툴렀지만, 사장님 부부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의 손 인사와 사장님의 미소가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아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날따라 와플이 더 바삭하고 달콤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행복 달콤 와플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가게에 갈 때마다 수어로 인사하고 환하게 웃음을 지어 주시면 우리 가족은 달콤한 와플을 나누어 먹으며 더 행복함을 느꼈어요.

며칠 뒤,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평소에는 지나쳤던 점자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점자를 만지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세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라면 봉지와 과자 봉지 음료수에도 점자를 보며 세상의 비밀 코드를 발견한 것만 같았어요. 횡단보도의 노란 점자블록도 그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점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니 점자도 수어처럼 장애인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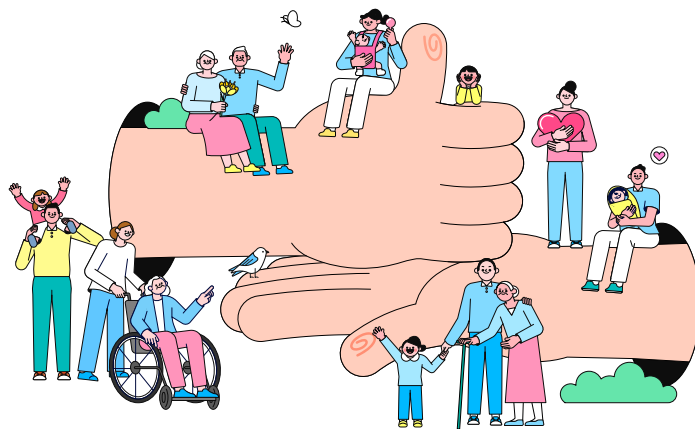
'수어도 점자도 모두 서로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언어구나!' 수어는 눈으로, 점자는 만지며 느끼는 언어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손 인사

‘행복 달콤 와플 가게’에서 시작된 조용하지만, 따뜻한 인사는 세상을 좀 더 가깝고 포근하게 만들고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해주었어요. 수어나 점자처럼 모두를 이어주는 언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말이 다르거나 몸이 불편해도 누구나 웃으며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모두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작은 손 인사였지만 그것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달콤 와플 가게’에서 느꼈던 따뜻한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사가 세상을 더 달콤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 친구는 장애인

강릉 유천초등학교
6학년 정효슬

하늘이 흐릴 때 나에게 밝은 하늘이 되어주는 형준이. 아침마다 환한 얼굴과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해 준다. 숲 반에 같이 가서 놀 때는 싱글벙글하고 수업 시간에는 멍한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다.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과 수업 시간에는 멍한 표정인 걸 보면 나랑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몸이 자유롭지 않을 뿐, 형준이의 씩씩한 모습과 장애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니 우리 반 친구들이 형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장애가 있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부끄럽고, 싫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장애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보니 깨달았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싫은 것도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내 몸에 찾아온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형준이와 같은 모듬이다. 그래서인지 자주 보고, 도와야 하게 되는데 한 번 한 번 도와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딪힘과 흡족함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진다. 기분이 정말로 좋다. 그런데 매일 마음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다. ‘도움 없이 혼자 하고 싶은 건 아닐까?’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언제나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데 말 못 하고 묵묵히 도움받는 순간이 있을까 봐 걱정되고 언제나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도움 줄 때마다 “도와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내가 주로 가는 식당 중에 출입문부터 계단이 있거나, 앉아서 먹는 식당이 꽤 있다. 그런데 허리가 불편하거나 형준이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내가 출입을 못 한다면 매우 슬플 것 같다. 이처럼 형준이도 이런 적이 있을 것이다. 웬지 모르게 내가 미안했다. 제발 이것과 관련된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법으로 장애인이 행복해지고, 자유 국가인 대한민국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장애인 관련 책도 읽어봤고 장애인 이해 교육도 많이 받아 보았다. 그렇지만 ‘비용과 지원’에 대해 알아본 적은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몸이 마비된 사람을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점자, 장애인 자동차 등 여러 돈이 드는 장치들은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지원받기도 하는데, 저번에 뉴스에서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게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생활도 불편한데, 혼자서 살아가려면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에도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 방송 등으로 장애인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으로 다시 본 친구

대전 한밭초등학교
3학년 김세연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에 올라왔다. 학기 초에 학급 반장으로 뽑혔다. 기쁘면서도 긴장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며 해주셨다. 주혁이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혁이 옆자리에 앉아 잘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처음 주혁이는 조용해 보였다. 나는 선생님 말씀대로 옆에 앉았지만 말을 걸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혹시 못 알아들으면 민망하지 않을까 싶었다. 며칠 동안 주혁이는 내 입 모양을 보며 대답했고, 어떨 때는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힘들겠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국어 시간 선생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하셨다. 주혁이는 작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노래 듣기’라고 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귀가 안 들리는데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고? 모두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주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른쪽 귀는 들리지 않지만, 왼쪽 귀로 듣는 소리는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속에 큰 파도가 생겼다. 단지 귀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를 좋아하지 못할 거로 생각하다니, 내가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주혁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마다 먼저 말을 걸었고 주혁이는 언제나 웃으며 “이쪽 귀로 말해주면 더 잘 들려.”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점점 친해졌다. 다른 친구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술 시간에 주혁이의 그림을 본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 칭찬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놀았다.

음악 시간에 주혁이의 맑은 노랫소리에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장애가 있으면 뭔가 부족할 것, 못할 것이라는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4월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셨다.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영상을 보고, 모둠별로 장애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었다. “예전엔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랑 똑같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 말에 나도 용기를 내어 내 생각을 말했다. “나도 처음엔 장애가 있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장애가 있어도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 주혁이처럼 말이야. 나도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날 교실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변화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믿는다. 나는 꿈이 생겼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혁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다. 장애가 있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장애인도 할 수 있어요

서울구룡초등학교
6학년 정연우

우리 삼촌은 시각장애인이다. 삼촌은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지만,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청각이 엄청 예민해졌고, 밖도 잘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다. 한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린 삼촌의 캄캄한 두려움과 절망을 상상할 수 없었다.

삼촌은 시각장애인이 된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걸려, 예전의 밝고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직업과 집안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평소에 좋아하던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예민해진 청각 때문에 조금만 시끄럽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매우 고통스러워졌다.

하지만 삼촌은 극복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직은 서투르지만 처음보다는 혼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갔다. 삼촌에게 놀러 가면 함께 천천히 보드게임도 할 수 있었고, 함께 걸어 다니며 밖에 나갈 수도 있었다. 생활에 적응한 뒤 삼촌은 ‘시각장애인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게다가 삼촌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안마 자격증을 따서 멋진 ‘안마사’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었다. 삼촌의 용기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삼촌은 안마로 돈을 벌며 자신감이 생겨 예전만큼의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 그리고 안마사로 일하며, 거의 보이지 않았던 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두렵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만 달라서 속상할 수 있고, 우리 삼촌처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이상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어울리며 생활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고쳐져, 장애인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재는 못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름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서울구암초등학교
3학년 하세정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우리와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가끔은 혼자 창밖을 보거나 교실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 한편이 찢히고 슬펐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우리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친구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그 순간, 나는 ‘조금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가끔 실로암 헬스케어에 안마를 받으러 가신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일하시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다. 또, 우리 동네 구청 안에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메모아’라는 카페가 있다. 스타벅스처럼 유명한 카페는 아니지만, 맛있는 음료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이다. 나는 도서관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다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친구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손을 잡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 손을 잡고, 함께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나는 특별하다

서울영신초등학교
4학년 이연주

나는 청각장애가 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 후에 돌발성 난청으로 나는 청각장애가 생겼다. 하지만 2~3살 때 발견하지 못했고 4~5살 때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5살 때 수술을 하게 되었다. 처음 수술할 땐 왼쪽은 인공와우, 오른쪽은 보청기로 왼쪽만 수술하게 되었다. 그 후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면서 언어평가나 다른 활동으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또 오게 되었다.

내가 8살 때 예고도 없이 보청기를 착용한 오른쪽 귀가 안 들렸다. 그래서 난 그날엔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서 5시간 동안 진료를 받았다. 그렇다, 난 난청이 다시 왔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회복했다. 하지만 2학년 11월에 난청이 다시 왔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2학년 크리스마스에 입원해서 26일 9시에 다시 수술하였다. 그래서 난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인공와우를 착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청각장애가 있는 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런 내가 좋다.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넌 특별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야.”라고 말씀해 주신다.

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난 우리 반에서 남녀 통틀어 3위를 차지한다. 또 난 그리도 잘 그리고 컴퓨터를 잘해서 내 꿈은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꼭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단한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난 노력해서 꼭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특별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은 손잡고 한 발짝 더 가는 세상이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초등학생

독후감
부문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읽고

화성 수현초등학교
3학년 김태은

2학년 때 우리 학교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고 표정 관리도 하지 못했었다. 어떤 질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응”이라고 대답하고 어색한 웃음과 함께 자리를 피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의 나는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던 중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책을 발견했다. 발달장애인만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청각장애인도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해서 더듬거리기 때문이다. 발표를 망친 아이는 슬퍼했고, 주인공의 아빠는 우울한 아이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아빠는 아이에게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라고 말해주고 그 순간 아이는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에 가서 아빠의 위로를 떠올리며 찬찬히 그 강에 대해 발표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나는 항상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해 생각할 때 귀로 듣지 못하는 상황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학생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 책의 주인공처럼 더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대화 참여를 할 때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눈치를 보게 되고 잘 알아듣지 못해서 찡그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다. 발달장애인 친구의 말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피했던 지난날이 생각나면서 정말 미안했다.

주인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내가 청각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할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취미는 노래 듣기이다. 노래를 여러 번 듣고 난 후 가사를 외워서 흥얼거리는 것이 내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다.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아찔하고

놀랐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말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공유하고 수다를 떠는 행동도 당연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지금의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해졌다. 이 책에서 아빠가 강물을 보면서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라고 담담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딪히고, 부서지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신이 말만 더듬을 뿐 생각을 더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큰 위안을 받고 변하게 된다. 아이는 두려운 마음에 울 것 같을 때 아빠의 말을 생각하며 울음을 참을 수 있었다. 아빠의 말을 마치 마법 주문 같았다. 이 장면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나 수어 교육 같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위로와 공감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힘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각장애인은 많은 불편함과 시련을 겪고 있다. 나는 내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따뜻한 눈빛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배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나부터 실천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우리들에게

원주 무실초등학교
4학년 김문주

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전화 통화나 대화 등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는 평소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작가가 쓴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청각장애인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청각장애인 친구를 꼭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간호사 하나의 환자 중에 슬픈 아이 준이 있다. 하나는 준의 부모님도 자기의 부모처럼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는 준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면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하나라는 인물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간호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준에게 수어를 가르쳐 줘서 부모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에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는 엄마와 아빠를 모른 척하는 준이를 보면서 어릴 때를 생각한다. 하나 엄마는 딸기를 달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멜론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엄마처럼 나를 알아주고 말하라고 고함치면서 부모님을 미워했다. 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가 안타까웠다.

하나는 엄마가 귀가 안 들리니까 화가 나고, 엄마는 화내는 딸을 보며 미안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아주 맘에 안 드는 부분이 두 가지 있었다. 그것은 의사의 불친절이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더 잘 설명해 줘야 하는데, 들리지 않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슬펐다. 그 의사를 혼내주고 싶었다. 또 아이들이 하나 엄마를 놀리는 장면이 있다. 나는 이 행동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다. 자기 가족이 귀가 안 들린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남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고 실례를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점이다. 나도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 내가 수어를 배워서 친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책에 있는 수어 몇 가지를 엄마와 함께 해봤는데, 동작으로 뜻을 말하니 신기했다. 수어를 배우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우리들에게

둘째, 밖에서 놀이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으로 뛰어노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아도 재미있을 것이다. 친구와 함께 그네나 자전거 타기, 공놀이나 줄넘기를 하면서 동네를 신나게 달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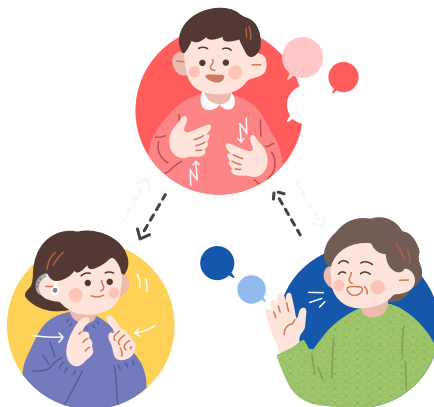
셋째, 실내 놀이도 재미있다. 수어로 퀴즈 놀이도 하고 보드게임, 인형 놀이도 같이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편지를 서로 쓰면 좋을 것 같다. 나도 요즘 글씨를 잘 못 쓴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친구와 편지를 쓰면 글씨도 예뻐지고 친구와 소통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핸드폰 메시지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수어를 배워 의사소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모두 좋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은 수어 지식이 생겨서 좋고 장애인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신기한 기계를 봤다.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쓰는 질문지를 수어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미래에는 마음속을 알아내는 기술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들리지 않아도, 말하지 못해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다.

“내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수어를 배워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광주 고실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우리 학교에 직접 지체장애인 선생님이 오셔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장애인이 안경 쓴 친구, 머리 짧은 친구처럼 살짝 다른 친구처럼 생각하면 좋겠다는 선생님 말씀에 공감했다. 그 이후로 장애인에 관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 중 고정욱 작가님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많은 장애인 관련 도서를 쓰신 대단한 분이시다. 그중에서도 ‘나는 천사가 아니야’가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다.

이 책은 여러 단편 동화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 그중 ‘나도 효자’ 동화가 가장 재미있었다. 아빠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범준이는 아빠를 따라 상하이에 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른 범준이는 2층, 3층에 계단이 있는 것을 보자 아빠를 업고 올라간다. 아빠를 위해 노력하는 범준이가 진정한 효자 같았다. 임시정부에 계단만 있는 것을 보면 임시정부에는 지체장애인이 없지 않았을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진 않는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쳐보려 해도, 항상 장애인 하면 ‘불쌍한 사람’ 또는 ‘도와줘야 하는 사람, 혼자서는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쳐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장애인식개선교육보다 장애인 관련 시스템 설치가 훨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전거 대여소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휠체어 대여소도 자전거 대여소처럼 흔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책에서 나왔던 범준이 아빠를 편하게 올라가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더 많이 생긴다면 범준이 아빠가 당황하는 일이 더 적을 것 같다. 물론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를 쓰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경사로가 더 좋을 것 같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점자블록이 더 많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다. 또 험한 길이나 끊겨 있어서 위험한 길은 조금 더 평평하고 좋은 길을 위험한 길옆에 만들어주면,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아래에 제공하는 시설도 좋을 것 같다. 만약 귀가 잘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들리는 사람,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던 사람 등은 아래에 나와 있는 자막 덕분에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생각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는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도움의 손길 ‘빼떼기’를 읽고

인천 해든초등학교
6학년 오승규

나는 뚜렛증후군인 내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내 친구는 나의 도움을 받고 한 발씩 나아가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 나는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항상 빼떼기를 생각한다. 생명이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 같다.

빼떼기는 지극히 평범한 병아리였다. 하지만 어느 날 아궁이에 들어가서 몸이 다 타버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 지극히 평범하던 병아리의 일상은 확 바뀌었다. 빼떼기가 화상을 크게 입는 순간 빼떼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랐지만 한편 평생의 장애를 갖게 될 빼떼기를 생각하면 가슴 한 곳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역시나 내 걱정은 맞아떨어졌다. 빼떼기는 화상으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런 빼떼기를 금순이네 가족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살려냈다. 화상으로 부리도 다리도 뭉그러지고 온몸의 털은 타고 살은 쪼그라들어 모습이 많이 변한 빼떼기를 엄마 닭과 형제 병아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고 배척했다. 하지만 가족의 지극정성으로 털도 나고 벼슬도 생기고 울음소리도 낼 수 있으며 걸을 수도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장애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빼떼기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무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닭장에 있는 화에 올라가지 못해 무리에 있는 다른 닭들의 동을 맞아야 했지만 그래도 걷는 법도 모르던 과거의 자신보다는 훨씬 성장했다. 그리고 조금이지만 그는 지능도 상승했다. 어릴 때는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바둥바둥하는 병아리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가 더 잘 생활하면 좋겠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르므로 자기 신체 조건과 다른 것들이 불공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빼떼기처럼 작은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니 더 성장하고 나중에는 무리에서도 어울렸다. 그렇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정중히 물어보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너는 할 수 있어

대구성동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선수가 되고 싶지만, 그 꿈을 반대하는 엄마가 나에게 이 책을 권해주셨다. 엄마가 야구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던 나는 가우똥하며 책을 읽었다.

이 책은 타이완의 조막손을 가진 아이가 학교 야구부의 투수가 되는 이야기다. 열렬한 야구팬인 주인공 '아창'은 태창 초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오른 손바닥이 오그라들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글러브를 낄 수 없기 때문이다. 왼손을 사용하지만, 두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쥘 수 없고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던 중 친구들의 추천으로 야구부에 들어가게 된 아창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꾸준히 연습한다.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팀인 쓰창 초등학교와의 마지막 회에 구원투수로 나오게 된다. 결과는 아쉽게 졌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싸운다. 그 후에도 장애를 넘어서 열정적으로 야구부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멋지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창은 나와 조금 다른 방식일 뿐, 나와 다를 것 없이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왜 엄마가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꿈꾸는 것은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똑같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동안 내 부족한 부분만 보고 불평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꾸준한 연습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경기할 때는 다른 친구들의 약점을 먼저 보기도 했다. 아창은 '불편한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나와 다른 방식일 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창이 투수로 설 수 있었던 건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를 믿어줄 친구들과 구원투수로 선발해 준 감독님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감독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창은 무리야'라고 판단했다면, 아창은 마운드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나 기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그 친구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애를 가진 친구도, 그렇지 않은 친구도 서로가 서로의 '감독님'이자 '팀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학교도, 사회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짐 에보트' 선수도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꿈을 이루었다. 이 책의 아창처럼, 그리고 짐 애보트처럼, 나는 누구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장애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앞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누나야는 앵무새가 아니야 -‘어서옵쇼 분식점’을 읽고

김포 운양초등학교

6학년 유송현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적장애인 누나와 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였다. 나와 동생 같은 남매가 주인공이어서 마음이 갔고, 평소에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즐겨 읽는 탓에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이 책에는 지적장애인 누나 아즈사와 누나에게 가려져 사랑받지 못하는 동생 쇼,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와 아빠, 아즈사와 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할머니가 나온다. 넉넉하지 않은 아즈사네 가족은 할머니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한다. 아즈사는 뜨개질을 좋아하는 소녀로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게 된다. 아즈사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며 꼬박꼬박 인사해서 예쁨을 받았지만 쇼는 학교에서 앵무새 누나를 뒀다며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다. 내가 쇼였어도 가족을 상대로 놀리는 것도 싫지만 지적장애 누나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게 더 싫고 누나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 같다.

어느 날 아즈사는 손님 음식 서빙하다가 음식을 쏟는 사고를 쳤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엄마는 손님에게 사과하며 아즈사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날 이후 아즈사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식당 일을 피했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쇼는 엄마의 구박을 피해 가출을 결심했지만, 엄마가 먼저 가출을 해버렸다. 다음 날 아즈사가 토를 하며 아파했고, 아빠와 쇼는 아즈사의 핑계들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다.

결국 아즈사는 입원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집에 돌아오고 아즈사의 입원을 계기로 가족들은 뿔뿔 뿔뿔 각자의 몫을 해낸다. 아즈사가 퇴원한 뒤 쇼는 가족으로서 아즈사의 장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쇼는 아즈사 누나를 앵무새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또다시 놀렸을 때 평소라면 누나를 부끄럽게 생각했겠지만, 누나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이야기는 끝난다.

쇼가 누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나의 장애를 이해해서 친구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쇼가 대단해 보였다. 쇼의 엄마가 쇼에게 해준 말인 “꿈은 이루어질 거야”라는 대사가 특히 인상 깊었다.

평소에도 자주 쓰는 말이었지만 뭔가 글로 보니 벽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장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평소 장애인과 함께 할 기회가 없어서 그 느낌이 잘 떠오르지는 않는다.

이 책의 쇼가 되어보며 잠시나마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장애인과 함께라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기 초 어색했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는 친구들처럼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기회가 많이 있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쇼의 경우처럼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놀림, 편견이 줄어들면 좋겠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경주 현곡초등학교
5학년 손민성

부모님이 장애 공감 백일장을 해보겠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다. 무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지 고민하는데 아빠가 이 책을 추천하셔서 시립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이 책을 표지를 보았을 때는 평범한 아이들인 거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읽으면서 수아가 마음대로 병에 걸렸단 걸 알게 되었다.

영무는 예쁜 사춘 수아가 전학 와서 들떠 있었는데 점점 수아의 맘대로 행동을 보고 영무는 망신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다. 수아가 선생님 컴퓨터를 만지고 학급문고 책도 공부 시간에 읽는 등 맘대로 행동하자 영무의 생각대로 친구들은 수아를 차별하거나 괴롭히기도 했다. 그리고 영무도 수아 때문에 힘이 들자 수아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한다. 마지막에 수아는 큰 깨달음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안겨 주고 전학 갔다. 그 깨달음은 우리가 남에 대해 서투르고 부족한 면만 판단하였던 것이고 이제는 잘하고 좋은 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나에게 인상 깊은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영무가 급식실에서 밥 먹고 돌아와 보니 수아가 교실에서 선생님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병수가 괜찮대서 영무도 하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께 친구들 모두 혼나게 된다. 하지만 수아는 쭉쭉바 먹으면서 알뜰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영무와 친구들이 빙치게 되고 영무는 화가 나서 수아를 가끔 괴롭히게 된다. 내가 만일 영무의 상황이었다면 수아를 말렸을 것이고 수아가 계속하였더라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중지시켰을 거 같다.

그리고 생각나는 다른 내용은 읍내 체육관에 마당놀이를 구경 가서 생긴 일이다. 영무가 할아버지, 수아랑 함께 마당놀이를 관람하는데 갑자기 수아가 사라져 버렸다. 수아는 공연 보는 걸 참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고 교과서에 나오는 연극을 할 때도 정신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수아가 사라져 영무랑 할아버지가 찾아다녔는데 웬걸 무대 위에서 발견되었다. 수아는 배우를 따라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을 관객들이 박수 치면서 흥겨워했다. 수아가 그런 아이인 줄 나도 몰랐고 그렇게 흥이 많고 춤을 잘 추는 아이인 것이다. 내가 수아였다면 부끄러웠을 텐데 수아는 그러지 않았다. 영무도 나처럼 수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한다.

마지막으로 고모가 수아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 도시로 전학 가기로 했다. 수아가 전학 가고 나자 선생님이 수아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좋은 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성남이는 수학 못 하는 아이라는 것보다 양보 잘하고 싸우지 않는 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반 친구들도 수아가 떠나자 좋은 점을 너도나도 얘기한다.

이 책에서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나 또한 남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의 서투르고 부족한 것보다 잘하고 좋은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다.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남을 보는 시선과 마음을 가두지 말라고. 그 울타리와 생각의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더 넓은 세상을 보며 마음도 넓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거 같다.



안내견 탄실이의 눈으로 본 장애인의 마음

서울목운초등학교
4학년 이리안

작년에 ‘복희탕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썼다. 주인공인 호테의 아빠가 인어가 되어 ‘발 연구소’에 잡혀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내 아빠가 만약에 인어가 된다면 아빠와 함께 놀지도, 같이 책을 보지도 못하고 아빠가 돈을 벌기 힘들 테니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했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호테가 다시 아빠와 같이 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에 관심이 생겼다.

이번 백일장에 참여하면서 ‘안내견 탄실이’라는 책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탄실이는 안내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탄실이는 자신이 어미 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시각장애인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훈련을 성실히 받는다. 그리하여 탄실이는 시각장애인인 예나가 의지할 수 있는 안내견이 된다. 예나와 탄실이는 서로 친해지고 같이 학교에 갔다. 예나의 가족은 예나에게 달리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나와 탄실이는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나에게 탄실이는 가족만큼 소중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예나가 탄실이를 만남 것이 예나에게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예나가 나중에 꿈을 이루는 데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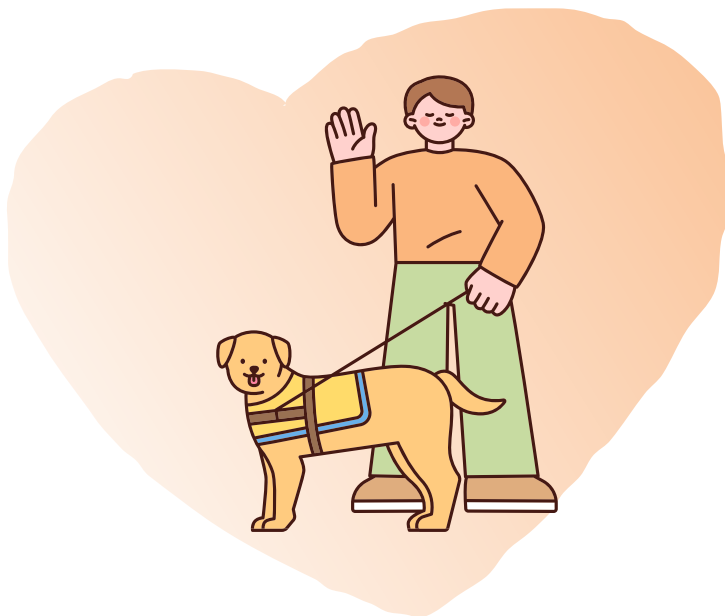
나는 이 책에서 예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인 예나가 달리기를 그 정도로 잘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예나가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아내서 기뻐기 때문이다. 대회를 보러 온 사람들도 안내견과 함께 뛰는 예나를 보고 장애인도 여러 가지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인 예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비장애인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나가 말했듯이 장애인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장애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러 안내견까지 데리고 오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하셨을 때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 장애인이 꼭 불편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 안내견의 역할도 크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우영우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변호사가 된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 많은 이들을 돕게 된다. 이 드라마처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소설, 그리고 영화가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 방법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장애인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또,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소설, 드라마가 더 만들어져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 좋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장애인을 존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생활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장애인식개선에 더욱 힘을 써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의 더 특별한 재주

세종 다정초등학교
3학년 신소연

나는 패럴림픽에서 장애인이 피땀 흘리며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감동스럽게 본 적이 있다. 다리가 없어 마치 로봇 같은 장치를 몸에 설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기하는 모습을 볼 때는 눈물이 핑 돌기까지 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자신의 장애를 남과 다르다거나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여 목표를 향해 당당히 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번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내가 읽은 책은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었다. 이 책에는 종민이와 장애를 가진 종식이 형이 등장한다. 종식이 형은 엄마가 난산하는 과정에서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다. 종민이는 종식이 형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생겼고, 더욱이 그 형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 지금까지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종민이는 갑작스러운 형의 등장에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너무나 속상하고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까지 들었다. 처음에 형을 좋아할 수 없었던 종민이지만, 형과 함께 지내면서 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였고, 또 형이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형이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비록 장애를 가진 형이었지만, 종민에게는 종식이 형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결국 아주 끈끈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다.

내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종민이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종식이 형이 복지센터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던 모습이다. 이어 종민이가 퇴원하자마자, 복지센터로 달려가 형과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코 끝이 찡했다. 처음 형의 존재를 알았을 때 형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종민이가 형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지막에는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끈끈해지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들 형제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형 때문에 가출을 했던 종민이가 가졌던 돈을 나쁜 소년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온갖 고생을 하다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종식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하였고, 그 편지를 읽은 종민이는 형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종민이는 형의 편지를 읽으며 형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형을 알아가며 더 아끼게 된다.

이 책은 장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를 더 강조한 책인 것 같다. 종식이 형을 통해 장애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다. 종식이 형은 비록 몸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글도 잘 쓰고 겸손하여 배울 점이 참 많았다. 내가 만약 종식이 형과 같은 장애인을 만난다면, 나는 그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재주의 특별함을 찾아 존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손잡고 한 발짝 더’

울산 월평초등학교
6학년 최규은

혀 없는 개, 복이!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이 세 개인 개는 봤지만, 혀가 없는 개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얼른 읽었다. 이 책은 혀 없는 유기견 복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복이는 새끼 낳을 곳을 찾다가 어느 조용한 골목에 오게 된다. 거기서 수다쟁이 아줌마를 만난다. 수다쟁이 아줌마는 떠돌이 개에게 그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복 많이 받아 행복하게 살라며 이름을 ‘복이’라고 지어주었다. 수다 아줌마가 장애를 가진 떠돌이 개의 손, 아니 앞발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줌마는 복이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

수다쟁이 아줌마는 복이에게 자신을 항상 ‘엄마’라고 했다. 그러자 골목 사람들은 아줌마를 복이 엄마’라고 불렀다. 아줌마는 복이가 혀 없다는 걸 알고 얼른 수의사를 불러 진찰하였다.

수의사는 복이가 원래 혀가 있는 개인데, 아마 어릴 때 잘린 것 같다고 했다. 아줌마는 그래서 복이가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으면서 움츠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던 복이가 아줌마의 사랑으로 점점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꼬리를 위로 세우고 다녔다는 장면을 읽을 때 눈물이 나려고 했다.

수의사는 복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수다쟁이 아줌마는 복이가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빌라 지하에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었다. 때가 되어 복이는 사랑스러운 새끼들을 낳게 되었다. 복이는 꼬물거리는 새끼들을 따뜻하게 핥아주고 싶었지만 혀가 없어 핥아주지 못했다. 반대로 복이의 새끼들이 침이 줄줄 흐르는 복이의 침을 핥아주었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이었다. 만약 떠돌이 개에게 수다쟁이 아줌마가 엄마가 되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집쟁이 복이의 두려움을 없애준 건 수다쟁이 아줌마의 따뜻한 손길이였다. 아줌마는 항상 복이 얼굴을 감싸안고 말했다. 또 매일 쓰다듬어 주고, 침이 줄줄 흐르는 복이 턱을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복이 두 앞발은 겨울에도 흘린 침 때문에 젖어 있었다. 아줌마는 앞발이 시릴까 봐 더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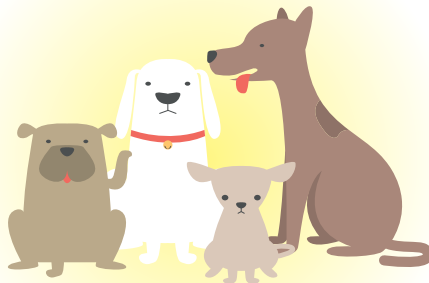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개도 여러 품종이 있다. 아주 멋지고 비싼 개도 있고 인형처럼 귀여운 개도 있다. 대부분 그런 개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수다쟁이 아줌마는 갑자기 나타난 혀 없는 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보살폈다. 그 결과 사람만 보면 슬슬 피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던 복이는 사랑받는 개로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개라고 외면했다면 복이는 이름도 없이 떠돌이 개로 계속 쫓겨 다녔을 거다. 차별하지 않는 아줌마의 사랑이 불행한 개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었다.

혀 없는 복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있다. 엄마랑 내가 밥 주는 길냥이가 있다. 이름은 탄이다. 탄이는 가까이 오지 않고 밥을 주면 뽀뽀 쳐다보다가 냠냠 맛있게 먹는다. 탄이를 볼 때마다 <혀 없는 개, 복이>에 나오는 수다쟁이 아줌마처럼 아픈 곳이 없나 살피게 된다. 엄마가 고양이도 감기에 걸리면 눈곱이 끼고 콧물이 난다고 하셨다. 다행히 탄이는 건강하다.

사람과 동물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좋지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면서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장애인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모든 것에서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걷기가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나 전동차가 필요하고, 무거운 걸 들 수 없는 사람에겐 대신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혀 없는 복이가 수다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새끼도 낳고 아줌마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듯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초등학생

방송소감문
부문

마음의 힘

창원 평산초등학교
5학년 서은성

마음의 힘은 정말 크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누구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같이 손잡을 수 있다. 사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대한민국 1교시’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다.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 오션’, 다리 장애를 가진 카이스트 연구원, 패럴림픽에서 훌륭하게 경기하는 보치아 선수들까지. 아무리 봐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음악을 하는 아이돌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지만 연구원이 될 수 있으며 몸이 자유롭지 못해도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단단한 마음의 힘으로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감동스럽기도 했다. 엄마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하신 것도 기억에 남는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나는 장애인도 그 마음만 있으면 비장애인 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하는 마음이 들었다. ‘대한민국 1교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중에서 카이스트 김승환 연구원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로봇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회인 사이배슬론에 관심을 가지고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총 10코스 중에서 6코스를 성공해 2등과 무려 4코스나 차이 나는 성과를 거두고 1등을 하게 된다. 김승환 연구원은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나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영상을 보는데 계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글자만 다를 뿐인데 말이다. 청각 장애인 아이돌 ‘빅 오션’은 내가 가장 신기했던 분들이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런데 연습할 때 진동 스마트워치를 끼거나 모니터의 깜박임을 통해 노래의 박자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노래가 안 들리는데도 노력을 통해서 가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 멋졌다.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청각장애인인데도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고 춤을 추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다. 외국 팬들도 많다고 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단한 마음이 너무도 느껴져서 새삼 더 놀랐다.

내가 자주 다니는 도서관이 하나 있다. 그 도서관에는 장애를 가지신 사서 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너무도 친절하게 반겨주신다. 나도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장애인이신 줄 전혀 몰랐다. 그분은 도서관에서 조금 오래 일하신 분이어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달려가 도와주신다. 저번에는 내가 키가 작아서 책을 꺼내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러자 바로 오셔서 책을 꺼내주시고 도와주셨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고 책들을 나르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기계도 잘 다루셔서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신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일을 멋지게 하시는 모습 때문일까? 남들을 돕는 직업을 하신 게 정말 대단했다. 솔직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직업을 제대로 가지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사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에는 꼭 먼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야지 하고 진심으로 다짐했다.

‘대한민국 1교시’에서는 굳건하고 멋진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된 분들이 나왔다.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마음을 함께 나란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면 함께 한 걸음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세상은 만들 수 있다. 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신의 꿈과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하늘에 별처럼 반짝여 언젠가는 마음의 하늘에 예쁜 별들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성남 보평초등학교
6학년 심규민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 그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꿈이 있고,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르지 않았다.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영상에 나온 채원이와 도윤이의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채원이는 파티세가, 도윤이는 웹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다. 둘 다 발달장애와 지체장애가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우리 반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우리가 그 친구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초록여행’을 하는 기아자동차의 이야기도 좋았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다. 우리는 가족끼리 차 타고 어디든 쉽게 다녀올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큰일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또 누군가에겐 큰 꿈이라는 걸 느끼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사이배슬론’에 나온 김승환 연구원 이야기였다. 그는 로봇을 직접 입고 걷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단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정말 멋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를 위해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멋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보치아’라는 스포츠도 처음 알게 되었다.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지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이었다. 특히 전용환 선수는 뇌병변장애가 있어서 몸이 자꾸 뒤로 젖혀지고 근육이 뻣뻣해졌지만,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걸 배웠다.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건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이었다. 세 명 모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눈부셨다. 진동으로 박자를 느끼고 화면으로 리듬을 보며 연습을 한다니, 그 노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데뷔했다는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학교에 있는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를 향해 누군가는 자꾸 똥어저라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심코 휠체어를 만지는 아이도 있었다. 그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겠지만,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 다름을 배려할 수 있어야 진짜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모두 꿈꿀 수 있어요.”

이 말이 단지 영상 속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반 친구들, 우리 학교,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 말처럼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오늘 배웠다.



가능성의 꽃, 장애이해 교육

대전목동초등학교
6학년 하나린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영상을 보며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이전까진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약간의 ‘외계인’과는 다를 바 없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다. 그렇지만, 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과 심지어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로는 가끔씩은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짜증나기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적도 정말 많다. 장애인 친구를 보며 그동안은 ‘저 친구들은 대체 어떤 단단한 마음가짐을 먹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나라면 너무 힘들어 세상에 내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에 난 그저 그 특별한 친구들이 그저 내가 ‘도와주어야’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인지만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29살쯤 되었을 때 사고로 평범했던 인생을 빼앗기고 하반신마비장애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분을 보았다. 그분은 그저 ‘장애인’이 아니셨다. 로봇을 입고 휠체어에서 내력 여러 가지 미션을 성공하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내신 자랑스러운 분이셨다. 그 순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 계속 앉아만 있던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들이 로봇을 입고 자유롭게 나와 노는 모습을 분명 그 친구는 중에서도 나와 마음이 비슷한 친구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난 그 부분이 열린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길 바랐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있었다. ‘빅오션’이라는 K-POP 아이돌 분이셨다. 2024년 4월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 청각장애인 아이돌이었는데 분명 소리와 음색도 들리지 않을텐데 어떻게?라는 생각뿐이었다. 근데 신기한 위치를 차고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노력을 계속해서 그런 것 없이도 합을 맞추는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내 옆에 청각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갖가지 영상들을 보며 난 생각했다. 장애라는 것은 나도 지나가다가 의문의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다. 어쩌면 내가 이대로 평생 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게 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간에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난 장애인 친구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와 매우 가까운 또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러니, 난 이런 영상을 보면 장애는 슬프고 우울한 ‘병’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시도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라는 걸 느꼈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노력’이라는 훌륭한 목표의 의미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는 하나의 빛과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이들은 나에게 이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라는 어둠을 몰아낼 여러 별들이라는 걸. 그런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의 ‘히어로’라는 것을.



함께 손을 잡아요

부산 용문초등학교
6학년 김서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한민국 1교시’라는 영상을 보며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친구들은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함께 어울리고 장애를 가진 친구도 나와 똑같은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나라 초등학교에 나오는 친구들은 각자 다른 점이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서로 돕고 이해하며 지내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영상 속과는 우리 주변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함께라기 보다 피하거나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막상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 모두 장애를 가진 친구나 사람들을 볼 때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었으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로봇 다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우승한 김승환 연구원, 장애가 있는 친구가 보치아 경기에 참가하여 힘을 합쳐 경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두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도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여주인공이 수어를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함께 꿈을 꾸고 응원해 주는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장애인의 관심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비, 따가운 시선들의 빗물이 장애인의 마음을 찌른다. ‘장애인의 날’에만 사람들의 관심 우산이 하나씩 퍼져 비를 맞던 장애인이 그날만은 비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동시처럼 이런 관심 우산이 매일 씌워진다면 마음을 다치는 장애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장애는 꿈을 막는 벽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넘을 수 있는 작은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얕바선 안되는 그들의 꿈과 노력

세종 연양초등학교
3학년 심하은

따뜻한 봄이 오고, 4월이 되어 '장애인의 날'이 되었다. 갑자기 '장애인의 날'을 4월로 정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새로 피어나는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정한 것일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강조시키는데 의미를 두어 결정했다고 한다.

3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대한민국 1교시'를 함께 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빛나라 초등학교 친구들 이야기였다.

빛나라 초등학교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도운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끌어주고, 친구들보다 어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채연이의 알맞은 수업 교실로 데려다주는 일, 채연이를 위해서 천천히 이야기 해주고 기다려주는 일 등 말이다. 만약 나라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로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일단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귀찮을 것 같다. 하지만 빛나라 초등학교 친구들은 달랐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족처럼 도와주었다. 꼭 해야 되는 행동도 아닌데 기쁘게 따뜻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멋져서 감동스러웠다.

사실 내가 2학년 때 채연이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조가 되었고 내가 조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조금 기다려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길래, 같이 하자고 물어봤다. 그 친구가 조장은 진짜 멋진 친구라면서 '그래! 우리 같이 놀자!'고 했고 진짜 재밌게 놀았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 귀찮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편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늘 멋진 조장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이야기는 김승환 연구원 이야기이다. 사이배슬론2024에서 혼자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서 우승한 김승환 연구원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레인 미션을 성공했다. 많은 하반신마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을 입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동안 휠체어에 앉아만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는 게 제일 기쁜 순간일 것 같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해서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빨라지면 장애인이 더 편안해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치아 선수 권환희, 전용환 학생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 선수들은 뇌성마비 장애로 몸의 근육이 내 맘대로 조절되지 않았다. 숨만 쉬어도 온몸이 마음대로 움직였다.

나는 리듬체조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 매일 연습해도 항상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한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울 때도 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은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손으로 정확히 하얀 공 근처로 빨간 공, 파란 공을 굴릴 수 있는지 신기했다. 나였다면 연습하다가 짜증 나고 힘들어서 쉽게 포기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대표까지 꿈꾸는 오빠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부족할 것 같고, 불쌍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알보는 것 같다.

이번 ‘대한민국 1교시’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비장애인보다 꿈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편견 없이 그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될 거다. 안녕!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보성 별교초등학교
6학년 박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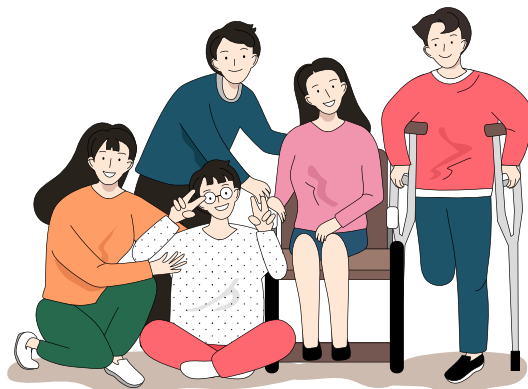
방송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몸이나 지능, 눈, 귀 등이 불편해서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영상을 보니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내며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장애인도 멋지다는 생각을 하였다. 비장애인도 잘 못하는 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장애인은 못 한다’라는 편견이 깨졌다. 요즘 친구들이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한테 장애라 하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도 장애인은 뭔가 부족하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고 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뒤로는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특별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인 중에는 장애인이 없지만 만약 장애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것이라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매년 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놀라웠다. 장애인이 로봇을 만들며 다른 장애인도 행복하게, 재미있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것도 자신이 장애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으로 로봇을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처럼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라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있다면 그 비장애인 친구는 장애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힘내라고 파이팅 하라고 장애인 친구에게 응원하고 싶다. 내 주변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생긴다면 그 친구를 소개할 때 다른 어려움이 있는 친구, 특별한 친구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애인이야, 장애 있는 애라고 하면 장애인 친구가 서러워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서인 것 같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같이 다니며 도와줘야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며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를 이해하며 비장애인이랑 다르니까 같이 놀면 안 된다는 편견 등을 버리고 같이 놀면서 친해질 것 같아서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장애인을 아픈 애, 좀 모자란 애, 장애우 등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리와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조금씩,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우리가 만나서 하나로 뭉쳐 모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하루 아침에 다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도 우리와 다를 것 없다. 조금은 다르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번 이 영상을 보고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며 자신감, 행복함 등을 느끼게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이 다시 비장애인이 되는 건 어렵겠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비장애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장애인이 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마음의 상처와 몸에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겪는다. 그렇게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걸 이번 영상을 통해 안 것 같다.



우리 함께 꿈꾸는 세상

이리동북초등학교
4학년 조연주

저희 어머니는 완전 통합 유치원의 특수교사입니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함께 꾸는 꿈’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보치아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힘겹게 한마디씩 이어가며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라고 말하는 중학생 오빠의 각오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신 카이스트 연구원님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한 로봇은 ‘입는 로봇’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로봇은 장애인에게 다가와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닌, 로봇이 입혀주는 신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10개의 임무 중 6개를 성공하며 금메달을 손에 넣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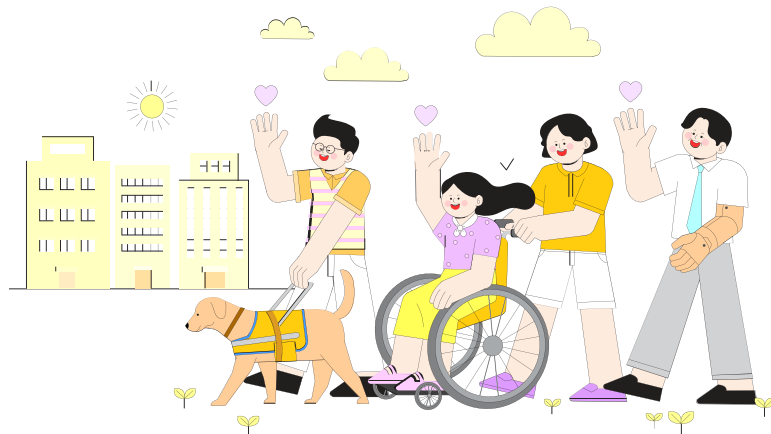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생들이 체험하러 간 딸기 농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딸기를 딸 때 ‘키에 따라서 높이 조절이 된다는 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 높이를 조절하거나, 휠체어나 유모차처럼 크기가 큰 물건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특수학급을 ‘햇빛 섬’이라고 부르던 장면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특수학급 이름을 정한 것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배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실 갔다 왔어.’라는 말보다 ‘햇빛 섬 갔다 왔어.’라는 말이 더 듣기 좋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도 개별실을 ‘빛나는 꿈의 장소’, ‘별빛 섬’처럼 여러 가지 예쁜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오션’이라는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저희를 청각장애인 아이돌로 보지 마시고, 그냥 K-POP 아이돌로 봐주세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빅오션 아이돌이 수어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한 번 따라 해 보았습니다. 뜻을 알려 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그나마 쉬웠습니다. ‘박자를 어떻게 맞추지?’ 생각했는데, 전동 스마트워치와 꼼꼼한 모니터링 덕분에 완벽한 춤 실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칼각이 나오지?”하고 정말 거짓말 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끈기 있게 노력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기면 빅오션 오빠들처럼 꿈을 향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세상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모두 함께 어울려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영상 감상문

계룡 용남초등학교
6학년 박규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부끄러웠다. 평소 나는 '장애인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몸이 불편한데 어떡해'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안 좋은 의도는 갖지 않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장애가 있다고 불가능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장애가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도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장애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나 잘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며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혹시 영상 시청 전 나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 장애가 있다고 불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도와주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점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남의 시선에 주눅 들지 말고 꿈을 이루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싶다. 앞으로 나도 영상에 나온 '빛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를 더 도와주고 배려하며 힘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 또한, '초록여행' 등과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더 많이 개발되어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으로 마주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마주하며 성장하는 우리 학교를 만들고 싶다. 몇몇 사람들만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 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그때까지 나도 노력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많길 바란다.

‘대한민국 1교시’, 꼭 필요해

거창 북상초등학교
6학년 정소진

이번 주는 장애이해교육 주간으로 반에서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초록여행 자동차가 가장에 남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가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가 있다는 것도 영상을 보고 알았고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렇게 좋은 지도 몰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기 농장에서도 딸기가 심어진 공간이 넓고 사람의 키에 따라서 높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딸기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재료를 따고 만드는 것이 좋았고 완성작을 보니 맛도 있을 것 같아 보는 동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로봇으로 장애인의 다리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든 다리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사람과 로봇이 직접 지나간다는 것이 신기하고 대단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님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장애인이 나갈 수 있는 보치아라는 올림픽 종목도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머리에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치아라는 종목이 뇌성마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을 굴려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하는 종목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빅오션이라는 아이돌 그룹도 신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그룹이란 것이 생소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연습은 순간순간의 빛을 보고 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라 해도 각자만의 불편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전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장애인을 색안경을

‘대한민국 1교시’, 꼭 필요해

쓰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면 서로 모두를 경계하고 살갑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사람 모두에겐 각자 못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있기에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은 답답하고 불편한 존재라 느끼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움직임이 느린 모든 사람을 모욕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자신의 약점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모르는 비겁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존중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장애인과 사람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장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절대로 잊고 싶지는 않지만 제 기억력에 이 모든 기억들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며

경주 동방초등학교
3학년 황시원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초등학교 3학년 1반 황시원입니다. 박지영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여주셔서 친구들과 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뇌병변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너무 일찍 나와서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인큐베이터에 3달 넘게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워만 지냈던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 아빠께서 저를 데리고 큰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집에 있었던 시간보다 친구들과 같이 놀았던 시간보다 치료실을 가기 위해 차에서 보낸 시간과 치료실 선생님과 만났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다리 보조기가 없으면 걷기가 힘들었고 키가 크면서 까치발이 더 심해지고 뼈가 틀어져서 제 발에도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1학년 겨울에 1, 2차로 나누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너무 큰 수술이었고 아파서 매일을 울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학년 겨울 방학 때 3번째 수술을 끝냈고 지금도 여전히 잘 걷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힘차게 걷고 뛰고 빨리 달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는 힘든 도전이자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장애는 있지만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도윤이와 채원이는 도움 반 친구들입니다. 딸기농장 체험 후 친구들과 각자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니는 동방 초등학교에는 도움 반은 없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자원봉사 선생님, 보건 선생님 반 친구들이 학교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KAIST 김승환 연구원은 사고로 하반신마비장애를 갖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열심히 연구를 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언맨 슈트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재활 로봇 보행 치료를 받았는데 러닝머신을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단계씩 성공하였습니다. 이 보행 로봇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송덕학교 보치아 팀은 뇌병변장애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공을 던져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맞추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재밌어 보였지만 보치아 팀의 좋은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집중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특수 체육을 배우면서 농구와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여기저기 튀어가고 굴러가는 공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수영도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농구공 드리블도 잘하게 되고 수영 발차기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나왔는데 무대를 보면서 전혀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1명의 장애인이 활동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멤버전체가 청각장애인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멤버 중 1명의 인터뷰 중에 ‘저희를 청각 장애 아이돌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그냥 k-팝 아이돌이라고 바라봐주세요’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빅오션이 아이돌을 준비하였을 때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세계적으로 공연을 다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에 한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형과 농구를 하면서 우리 형을 이기기입니다. 둘째, 거북이 마라톤의 완주 경험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주요 걷기 대회에 참여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보기입니다. 셋째 유럽 배낭여행을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축구공에 손흥민 선수 사인 받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우쿨렐레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사히 무지개 음악회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이 노래는 간디학교의 교가인 ‘꿈꾸지 않으면’입니다. 우리가 꿈을 쫓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손잡고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또는 타인에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꾸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영점 맞추기

아산 탕정초등학교
4학년 성시현

과학 시간에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먼저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영점을 맞춰야 한다. 평평하지 못한 곳에 저울을 놓으면 원래 무게보다 적게 나가거나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전자저울을 기울여진 곳에 놓고 무게를 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맞아 ‘대한민국 1교시’를 보았다. 나는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삶이 힘들 것이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1교시’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는 있지만 스포츠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 오션이었다. 청각장애인이 과연 아이돌을 할 수 있을까? 청각장애인은 당연히 아이돌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박자를 느낄 수도 없고, 음정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인 빅 오션은 TV에서 자주 보이는 보통 아이돌 그룹과 다르지 않았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밝게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춤을 출 때 박자는 모니터의 숫자나 반짝거림, 진동 스마트 워치로 맞춘다고 한다. 소리 없이 박자를 맞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치아’라는 스포츠도 새로 알게 되었다. 보치아는 장애인을 위한 공게임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금메달을 딴 보치아 최강국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본 것이 있다. 하나는 앞으로 ‘장애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다. 앞으로 장애인을 만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대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름’은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꿈꾸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지우개를 빌려주고, 보건실에 같이 가 주는 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이용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부모님과 식당에 갔을 때 계단 옆에 있던 경사로를 보았었다. 그 경사로는 분명히 계단이 없는 경사로였지만 유모차도 올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가파른 경사로였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차별과 편견의 시작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1교시’를 시청하기 전까지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장애를 다름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손을 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행복한 세상을 꿈꿔 본다.



동등한 눈높이의 꿈

대전 두리초등학교
6학년 임소윤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맞아 2025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했던 터라, 저는 별생각 없이 화면에 시선을 두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솔직한 심정으로선 지루할 테니 쉬는 시간이 어서 왔으면 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부터 예전에 좋아해서 자주 챙겨 봤던 크레이이터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고, 잠이 토끼처럼 확 달아났습니다. 빵 속의 효모가 된 것처럼 34분의 시간이 재밌을 것 같다는 부푼 기대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박물관에 견학이라도 온 듯 눈과 귀 모두가 즐거운 교육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더 현실감 있게 느껴져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섹션의 다양한 이야기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전개와 구성, 그 짜임새도 한몫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특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바로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 아이돌 그룹 ‘빅 오션’이었습니다. 빅 오션, 직역하자면 큰 바다 또는 넓은 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웬지 노래를 들어 보면 바다처럼 청량한 느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감싸고 있는 푸른 바다처럼 때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도 높이 치고, 어두움이 가득 찬 하늘 속을 헤쳐나가며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룹 이름만이 인상 깊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멤버 한 분이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케이팝(K-POP) 아이돌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해하는 것도 느리고, 말과 행동이 조금 어눌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는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하고, 놀이 시간에는 같이 보드게임도 하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가끔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와 지내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늘 어렵지 않다고 답했고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랑 노는 게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을 일인가?’ 그때 당시에는 되려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친구들은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생각했는지,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었고, 불필요한 배려로 오히려 특별 취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특별한 친구가 아닌, 그저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노는 같은 반 친구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제 친구처럼, 장애인을 보호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거나 망설이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희망을 만들고자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편견과 불편이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없어져 버리고, 희망과 응원이 가득한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꿈

서울을지초등학교
6학년 장하윤

‘대한민국 1교시, 우리 함께 꾸는 꿈’ 방송을 시청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 보려고 한다. 27회 ‘대한민국 1교시’에는 교육 만화, 초록여행, 워크온 슈트 F1, 보치아,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등이 나왔다. 전체적인 소감으로는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해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나온 교육 만화는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다. 특히 도윤이와 채원이는 장애인이지만 차별받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딸기를 따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아이들 모두 같이 모여 피자를 만들고 서로에게 칭찬해 주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이 합동해서 피자를 만들며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게 대단하고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 끝에 모두 꿈이 있다는 대목이 나왔다. 친구들끼리 서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확고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도 나의 꿈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영상 뒤에 나온 ‘초록여행’은 휠체어를 타 일반 차를 타기 어려운 분들도 탈 수 있는 편리한 자동차다.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면 멀리 이동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울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만들어 뜻깊은 것 같다. 또 여행 경비까지 지원해 주는 점도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에서 불편함을 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모두 행복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29살이라는 나이에 장애를 얻은 김승환 님께서 만드신 ‘워크온슈트 F1’에 대해 감상문을 써 보려고 한다. 나는 김승환 님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으셨다. 매우 힘드셨겠지만 사고로 인한 좌절을 이겨내고 걷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장치를 만드셨다. 한순간의 사고로 다리를 잃으셨는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지 않는 부분도 멋진 것 같다. 또 워크온슈트 F1을 만드시고 좋은 결과에 이어 자신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개발까지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김승환 님과 팀원들께서 만드신 워크온슈트 F1로 걷기 힘들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꿈

보치아는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과 운동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이다. 공을 굴려 목표 지점인 하얀색 공에 더 가깝게 굴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한국은 1988년부터 2024년까지 보치아로 10회 연속 금메달을 땀다고 한다. 보치아를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너무 자랑스럽다. 열심히 연습해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너무 뿌듯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 연습에 맞추어 좋은 결과가 따르면 좋겠다. 또 영상에 나온 충주 송덕하교 ‘권환희’님과 ‘전용환’님들이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무려 1등을 했다는 것 역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두 목표, ‘고등부 1등’, ‘국가대표’ 목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그룹이다. 처음 영상을 보았을 때, ‘세계 최고’라는 말에 놀랐다. 또 청각장애인이지만 멋지게 해외까지 활동하는 모습이 한 편으로 신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장치에 의존할 수 없어 팀원들이 다 같이 전신 거울로도 연습하고, 촬영도 해가며 춤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부분에서 ‘빅오션’ 팀원이 정말 많은 연습을 했구나’ 알 수 있었다. 안무 동작 하나하나가 다 맞고 칼군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또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다. 피나는 연습 끝에 좋은 결과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2025년 영상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모두 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잘 표현한 것 같다. 영상을 통해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해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다 감정을 느끼는데 손가락질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눈치 하나하나씩 상처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만들어져 아무도 억울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많은 생각을 글로 써 보았다. 나는 ‘대한민국 1교시’ 같은 방송이 더 늘어나 정말 많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적인 방송을 내 또래 아이들이 많이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 -‘대한민국 1교시’를 시청하고-

세종 다정초등학교
6학년 강하운

‘대한민국 1교시’ 방송을 시청하면서 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항상 내가 알던 아이들과 뭔가 다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너무 멋지고 대단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냥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장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해외에 나가 공연하는 것이 너무 멋있었다.

두 번째로 장애를 가진 중학생 아이 2명이 보치아라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나는 오빠랑 아빠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서 가끔가다 축구 경기를 같이 집에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오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냥 운동선수도 경기를 하면 힘들기 마련인데,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했다. 그렇지만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장애인을 배려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을 꼭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세 번째로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연구원분이 대회에 나간 내용이 인상 깊었다. 계속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본 분은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와서 잘 걷지 못하지만 자신이 직접 걸을 수 있는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대회에 나간 것이 너무 대단하고 훌륭했다. 우리 오빠의 장래희망이 로봇과학자인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직업이 더 멋있어 보였다. 오빠도 나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 그리고 하반신마비가 온 장애인이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0개의 종목 중 6개를 성공해서 1등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2등을 한 사람은 10개의 종목 중 2개를 성공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 -‘대한민국 1교시’를 시청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이분들처럼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에게 배울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친구로 대하고,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지 도움을 줘야겠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어른들도 보통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느껴졌고, 우리가 즐겨 하는 종목들을 장애인도 한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멋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항상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내가 부끄러웠고, 이제는 장애인도 나와 다를 것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 부정적으로 느껴지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랑 친한 친구 중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꿈을 꼭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바로 선생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나니 두렵지가 않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고 싶고 응원해 주고 싶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우리 모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장애인도 나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우리, 함께 꾸는 꿈

울산 온양초등학교
3학년 최유성

2025년 ‘대한민국 1교시’ ‘우리 함께 꾸는 꿈’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2학년 새 학기 전학 온 나의 친구이자, 우리들의 친구! 그리고 영상 속 소개된 빛나리 초등학교에서는 각자의 꿈을 향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며 함께 가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꼭 2학년 때 우리 반 같았어요. 그 친구와 짝꿍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수업을 했고, 또 그 친구는 자기에게 꼭 맞는 수업을 받기 위해 사랑 반에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즐거운 점심시간, 패스 패스 소리지르며 아이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친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반 선생님께서 친구의 마음을 아셨는지 친구의 두 손을 꼭 잡고 운동장으로 함께 뛰어 들어와 힘껏, 더 높이 공을 차며, 그 친구의 꿈을 그리고 우리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마음을 나누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꿈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영상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을 소개해 주었어요. 사고로 하반신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입는 로봇 “워크온슈트 F1”을 만드신 카이스트 연구원 아저씨!! 몸이 불편하지만 보치아 운동으로 한계를 뛰어 넘으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충주 송덕학교 형아들!! 들리지 않지만 진동 스마트 워치나 모니터를 보고 시각적으로 반짝이는 속도로 빠르기를 파악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

영상에 소개된 분들을 통해 꿈을 위해 장애란 장애물을 뛰어넘고, 일어서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부딪히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학년이 되어 나의 친구와 같은 반이 되지 못해서 함께 수업하진 못하지만 등굣길 마주칠 때면 먼저 다가와 인사해 주고 기다려 주는 내 친구!! 오늘도 내 친구와 함께 손잡고 한 발짝 더 크게 뛰어 뛸다. 꿈을 향해 서로 응원하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라서 한 발짝 더 내디뎌 뛸다.

모두가 같은 세상

용인 대일초등학교
6학년 방라엘

“장애인은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해교육을 받기 전 나는 항상 이렇게 장애인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차별과 편견으로 뒤덮인 말이란 것을 알았지만, 장애인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장애인해교육에서의 장애인들은 달랐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의 내면이 담겨 있었다. 겉은 다른 사람과 다를지 몰라도, 내면은 더 강인하다는 것을 장애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같았다.

‘대한민국 1교시’에 나온 초록 여행 자동차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에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장애인이 편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카이스트 연구팀과 김승환 연구원은 하반신마비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 세계 사이보그 대회 사이배슬론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장애인은 희망을 얻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방송에 나온 학생들은 뉴스포츠인 ‘보치아’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하기 힘든 것들을 계속 시도하며 ‘국가대표’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빅오션’이라는 아이돌도 학생들을 위해 조언해 주었다. 빅오션은 노랫소리가 잘 안 들림에도 진동 스마트 워치나 청력보조기기 등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깼다. 빅오션은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아이돌이라 그런지 힘든 점도 많았다고 했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빅오션이 대단해 보였다.

이 방송을 보고 난 후, 꿈을 향해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자신과 같은 힘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장애인을 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동요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담겨있는 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과거에 장애인을 친구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장애우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장애우는 어른이고 아이고 다 친구라고 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자, 장애우처럼 비하하는 말 대신 장애인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비하하는 명칭은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장애인 비하 표현은 질그릇처럼 생긴 장갑이라 해 지어진 ‘병어리장갑’이다. 병어리장갑은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심코 한 말 하나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병어리장갑 대신 손모아장갑으로 절름발이는 불균형적인 사람으로 고쳐 바른 표현으로 말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안경을 쓴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다 같은 친구이듯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같은 친구이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인식 개선은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다.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친구이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장애인이 상처받을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여도 항상 존중을 하며 나와 같은 친구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장애인식개선에 힘을 쓸 것이다.



장애에 대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경산 성암초등학교
5학년 이지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1교시’라는 영상을 보았다.

첫 번째로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했다. 자동차 뒷부분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마음껏 오르내릴 수 있게 했다. 이 자동차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준다는 점이 놀라웠다.

두 번째로 장애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올림픽 종목 <보치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흰색 공에 자신의 색깔 공을 가장 가까이 두면 이기는 켈링이랑 비슷한 형식의 놀이였다. 이 종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0연승을 했다고 한다. 이 기세로 쭉쭉 연습해서 20연승, 30연승까지 해서 보치아 세계 1위 나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카이스트 연구원들과 하반신마비장애인이 하반신마비장애인도 걷게 도와주는 로봇 기계를 만들어 대회에서 우승한 내용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로봇 기계가 필요하면 알아서 스스로 걸어와 주는 기계였다. 그 로봇 기계를 착용하고 대회에서 10개의 항목 중에서 6개나 성공해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한다. 10개의 항목 중에 2개를 성공해서 은메달을 딴 2등과는 엄청난 차이였다. 앞으로 그 로봇 기계가 더 발달해 값싸고 편리한 로봇 기계가 세상에 나와 다리가 불편해 잘 걷지 못해도 비장애인처럼 편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이 모여서 만들 아이돌 그룹 <빅오션>에 대해 나왔다. 소리가 안 들리지만 직접 노래도 만들고, 그 노래에 대한 수어도 짜고 무엇보다 팀원들과 안무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내는 빅오션이 너무 멋졌다. 최근에는 유럽에까지 가서 공연을 했다길래 나도 빅오션의 노래를 찾아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았다. 빅오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장애가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라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보면 언젠가는 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보고 장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도 멀리하고 꺼려 할 게 아니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주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어! 저 친구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장애인을 봐도 차별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르지 않은 우리

경산 성암초등학교
6학년 진소민

나는 '대한민국 1교시' - '우리 함께 꾸는 꿈'이라는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그분들이 꿈을 꾸고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안에서 나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나의 편견도 없어지게 되었다.

영상 속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소아마비가 있고 휠체어를 탔다. 만화 속 캐릭터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특히 장애인 운동선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뇌성마비 선수들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보치아 10연패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에 감동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보면, 조금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단지 몸의 일부가 불편할 뿐, 마음과 생각은 우리와 똑같고 정신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직접 장애인을 만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 중에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있다. 문턱을 오르기 힘들어 보이셔서 엄마랑 같이 뒤에서 밀어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엄마는 가게에 턱이 많아 죄송하다고 하셨다. 그 짧은 순간, 작은 도움이었지만 나는 정말 뿌듯했고 작은 배려로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이후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보면 자리 양보를 하거나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다. 계단만 있는 건물, 좁은 문, 음성안내가 없는 엘리베이터, 신호등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또 장애인을 이상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런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시설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도 내일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작년에 무릎이 아파서 반깎스를 했을 때 4층에 있는 교실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동생이 가방을 들어주어서 고마웠던 기억이 있다. 장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 없이 장애인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어야 한다.

앞으로 나는 장애인을 보면 피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친구처럼 다가가고 싶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용기 있게 다가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학교나 마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졌는지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나 혼자서는 세상을 다 바꿀 수 없겠지만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그러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이라는 영상의 제목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양한 꿈을 꾸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 비장애인이 무의미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진짜 세상이다.



장애가 있어도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면 안돼!

광주 건국초등학교
5학년 홍서진

〈장애가 있다면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김도운 학생은 아빠가 직장을 옮기서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도운 학생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며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도 이야기가 줄줄이었지만 생략하고 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운 학생은 지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운이 같이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고, 장애인이어도 똑같은 사람이니, 다 공평하게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결코! 절대! 안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친구도 그 불편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게 보이면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절대로! 놀리거나 웃으면 안 됩니다.

〈국제사이보그올림픽, 사이배슬론2024〉에서 대한민국 카이스트 연구팀이 우승했다 합니다. 저는 첫 글을 읽자마자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김승환 님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휠체어로 생활을 하였을 때 얼마나 힘들고 다칠까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았는데... 둘째입니다. 저는 방금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님이 엄청 대단한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합니다. 저는 보통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데, 김승환 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저도 장애인이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일 수도 있다 싶네요) 그리고 사이배슬론이라는 특별한 대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첨단 기술로 여러 가지 미션을 하는 국제대회라니 아주 이름만 들어도 멋진 것 같은 대회였습니다. 셋째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한 로봇의 이름은 워크온슈트 F1(WalkOn Suit F1)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징도 있다 그러니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특징은 지금까지 웨어러블 로봇과 다르게 장애인 혼자 입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다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직접 걸어와 로봇이 의자에 앉듯이 장애인과 하나가 되고, 로봇이 장애인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로봇을 보기만 해서 돈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트레인 미션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카이스트 연구팀만 성공하였고 총 10개의 미션 중 6개를 성공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헉!!! 진짜로 10개의 미션을 6개나 성공하다니! 진짜 로봇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였으면 6가지 미션을 거의 다 통과하다니! 진짜 이 글로는 !(느낌표)라고만 글이 자꾸 써지네요!

넷째입니다. 로봇 연구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다 같이 하니 정말 신나고 재밌었을 것 같네요! 워낙 혼자 하는 것보단 동료들과 함께 협동심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2~3시 훈련을 할 때도 있다니! 엄청나게 힘들고 그만 지쳤을 것 같네요. 그래도 로봇과 하나 되어 다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잊게 될 정도로 뿌듯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함께 협동하여 목표물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보치아〉

보치아는 생각보다 읽어보니 어려운 경기 같은데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도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멋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치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라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1988년 서울대회부터 2024년 패럴림픽까지 무려 10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니 아주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권환희 학생 목표 전용환 학생이 목표 등 꿈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

저는 5학년이 되자마자 약간 아이돌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인 아이돌도 있다니 참 새로웠습니다. 멤버는 막내 지석, 메인보컬 현진, 매행이자 메인 랩을 맡은 찬연, 이렇게 3명의 멤버가 있나봅니다. 세 멤버는 노래가 잘 안 들려 진동 스마일 워치나 모니터를 보고 시각적으로 박자나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청각보조기기를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케이팝 아이돌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냥 진짜 엄청 잘생겼고 진짜 장애인(청각)이라고 해도 저는 안 믿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하기도 했고 생각 느낌을 길게 썼습니다. 제가 조금 큰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봐주세요.

작은 관심

세종 연양초등학교
3학년 이도윤

‘장애이해교육이라고? 장애가 뭐라고 교육까지 하지? 장애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나는 평소 장애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작은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장애란 주차장의 한 그림판 속 휠체어 그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장애이해교육 첫 번째 시간에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았다. 영상 속에는 나와 이름이 같은 휠체어 탄 “김도윤”이 나온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웹툰 작가’라는 꿈을 꾸는 학생이었다. 생활 모습도, 생각도, 이름도 나와 비슷한 친구라서 신기했다.

다음으로 카이스트 연구원님이 나오셨다. 29살의 나이에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고 하셨다. 영상 속의 아저씨는 만화 속의 로봇처럼 멋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서 연구가 늘 즐거웠다는 아저씨의 말이 기억에 남았다.

영상을 보면서 꿈을 간직하고 이뤄가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나 역시 과학자라는 꿈이 있어서, 동물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뛰었다. 휠체어를 탔는데, 지체장애가 있는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다. 장애가 있어도 모두에게 꿈은 소중하고, 함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와 팔이 없었다. 연체동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밝은 표정으로 온몸을 이용해 마시고, 쓰고,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힘들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닉 부이치치에게 용기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달라졌다. 큰 능력과 용기와 에너지를 가진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루아침에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장애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장애인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도 알아보았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와줘야 한다. 둘째, 안내전이 하네스를 차고 지나갈 때 만지거나, 부르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 셋째,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들은 사실 노인이나 임산부, 아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겠다.

3학년이 되어 나는 안경을 쓰게 되었다. 안경을 쓰니 친구도 멀리서 알아보기 쉽고, 칠판 글씨도 잘 보여서 이해가 잘 되어 좋았다. 하지만 뜨거운 국을 먹으면 뿌영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물구나무 서기 할 때도 불편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여 더 편리한 안경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면 기술이 발전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불편함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서 장애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건물을 지을 때도, 행사를 할 때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힘쓴다면 장애인도 물론 아이, 노인, 임산부,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배려 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해줘야 할 것 같은 응원의 말 ‘포기하지 마세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말일 것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를 이겨내어 꿈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모두 다 함께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6학년 오윤아

오늘 6학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장애인해교육을 받았다. 이제 나는 6학년이 되었고, 그만큼 몸도 마음도 자랐다. 사실, 어릴 때는 나와는 다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신기했던 것 같다.

“저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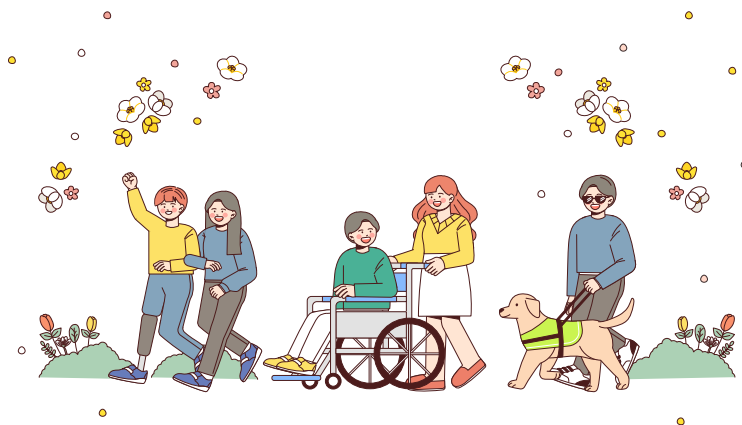
이런 생각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들을 기피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와는 다른 생각, 신체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와닿지 않으면서도 놀라웠다. 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날, 그날 난 우리 반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를 보았다. 그 친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영상에 나왔던 채원이처럼 말도 잘 하지 못했다. 거기다 특하면 옆 반으로 들어가기 일쑤여서 나도 처음에는 그 친구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런데도 하루는 그 친구를 도와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우리 둘은 차츰 가까워졌다. 소심하고 말수가 적어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나는 그 친구에게 알 수 없는 연대감을 느꼈었다. 어느 날은 내가 교실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 친구가 내 신발주머니를 들고 오더니 나에게 건넸다. 그 순간 나는 그 친구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친구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해 늘 특수 기기를 귀에 달고 다녔던 그 친구를 나는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한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채원이가 말을 더듬거나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 친구가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꿈을 품기만 할 뿐, 그걸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 이제 알았다. 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스트 연구원을 보며 알았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게 누구건 언제나 저 먼, 수업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뉴스를 보면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 앞에서 시위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늘 나왔다.

그리고 보니 나는 버스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평평한 경사로를 설치한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가상 현실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마련되어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초록여행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제대로 된 장애인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물며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갈 때에도 버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갖추는 것을 법으로 필수로 하도록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하려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노래 제목 중에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이 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다양한 신개념 장치를 이용해 우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통해 세상을 가꾸어 나가면 언젠가는 모두가 꿈을 이룬 날이 올 것이다.



‘장애인의 날’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6학년 여은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의 날’에 동영상과 보고 이 글을 쓰게 된 여은서라고 합니다. 저번에 5학년 때도 이걸 썼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보았습니다. 보치아라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스포츠)으로 우리나라가 1등을 10연속 차지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독서평설)에서도 봤었는데,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인 분께서 예상치도 못한 교통사고를 겪게 되어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다면 앞길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께서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어차피 장애인이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긍정적으로 “괜찮아! 안될 건 없고, 이 장애를 극복하게 노력하면 돼!”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슬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겠지만, 저는 그분의 멋진 생각을 바탕으로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인 장애인께도 희망을 주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로봇 기계를 만들어서 10개의 미션 중 6개를 성공해 금메달을 땀다고 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산 한강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학년 8반인 청각장애가 있는 한서라는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지만 복도에서 많이 마주쳐서 한서가 인사하면 저도 인사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항상 한서 옆에 같이 있던 “최예담”이라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예담이랑도 이번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담이를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서를 챙겨주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항상 특수학급까지도 데려다주고 매일 한서가 외로울까 봐 친구가 되어주는 예담이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담이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번에 한서의 도우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나 한서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서를 데려다주니 뿌듯했습니다. 한서를 도와주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오션이라는 남자아이돌 그룹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빅오션은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하였고,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보고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이돌이라는 꿈을 성취하기도 힘든데 청각장애를 가진 채로 아이돌로 데뷔한 그룹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 글을 다시 쓰더라도 ‘장애인의 날’에 내 친구 한서와 빅오션 이야기를 쓴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대해 정리하자면, 장애인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고 채워나갈 부분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서와 같은 반에서 함께 지내는 것도 나에게 찾아온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 해소 캠페인 같은 것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차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옳지 않은 생각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나의 꿈과 목표도 다 함께 성취하는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에 대해 쓴 여은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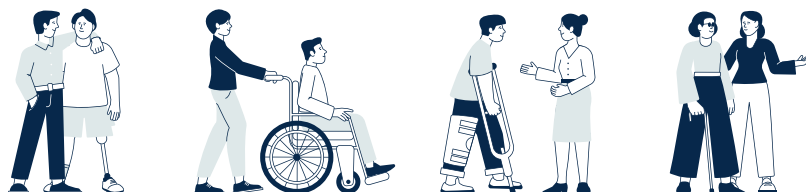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서울공덕초등학교
2학년 허유리

김승환 연구원님은 29살에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장애를 가져 걷지 못한 김승환 연구원님은 다른 연구원들과 입는 로봇을 만들어 대외에 나갔다. 그중에서 10문제가 있는데, 2등은 2개의 문제만 통과하고 김승환 연구원님과 다른 연구원님들은 6개의 문제를 통과했다고 했다. 김승환 연구원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든 로봇은 몇 원일까? 그리고 만약 김승환 연구원님을 만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보치아라는 스포츠가 있다. 장애인이 하는 스포츠다. 우리나라는 패럴림픽에서 10연속 금메달을 땀다. 우리나라가 10연속 금메달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10연속 금메달은 많이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10연속 금메달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다. 다음에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돌이다. 우리나라가 최초라니 너무 좋다. 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돌은 처음 봤다. 언니도 만약 지금 이걸 쓰고 있다면 언니도 처음 봤을 거다. 그리고 빅오션은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돌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게 너무 멋진 것 같다. 아이돌은 보청기나 방송에서 본 위치를 끼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다. 아이돌이 끼는 위치는 박자로 알아듣고 연습한다. 만약 내가 장애인이면 위치로 박자로 춤 연습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박자로 춤 연습을 하는 게 대단하다. 또 우리나라 최초라는 게 다시 또 대단하다.



장애, 이것은 그저 특징일 뿐입니다

서울양재초등학교
6학년 신지호

장애인이란 무엇일까? 4월 20일, 이날은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라 나와 있다. 이처럼 이런 뜻깊은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애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는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더 이상 사람들이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이 감상문을 적어본다.

이 동영상에선 장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대한민국 1교시’에는 장애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준 3가지의 사례가 나온다. 그중 첫 번째로는 김승환 카이스트(KAIST) 연구원이다. 김승환 연구원은 29살 때, 사고로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김승환 연구원은 첨단 기술로 만든 로봇을 이용해 국제대회인 사이배슬론(cyathlon)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인 보치아(Boccia)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대회부터 2024년 패럴림픽까지 연속 10회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보치아란 흰색 표적구 1개와 6개의 색깔 공을 던져 흰색 공에 가장 가까우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이처럼 보치아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아이돌인 빅오션이다. 빅오션은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들을 수 없으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동 스마트워치나 모니터를 보고 노래를 파악한다고 한다. 이렇게 빅오션의 많은 노력 덕분에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까지도 많다. 이처럼 ‘대한민국 1교시’에선 장애를 극복해 사람들이 장애인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난 이 동영상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마냥 슬퍼할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개성이라 생각하고 하늘을 가리던 손바닥을 치우고 더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그중 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인 빅오션이 가장 기억에 잘 남았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라는 명칭도 그렇고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끈기’라는 단어를 더해 ‘빛’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포기하지 말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돼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애, 이것은 그저 특징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저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런 사람들에게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은 책 <커피우유와 소보로빵>에 나오는 명언이다. 이 책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샘을 괴롭히고 놀리던 보리스가 샘과의 차이는 피부색밖에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인종 말고도 많은 차별을 담고 있다. 그중 장애라는 차별도 담겨있다. 만약 보리스처럼 인종이라는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처럼 장애도 장애라는 차이를 인정하면 장애인도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장애를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고 차이로 생각하면 장애인은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특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난 미래에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세상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우리와 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용기와 희망

인천담방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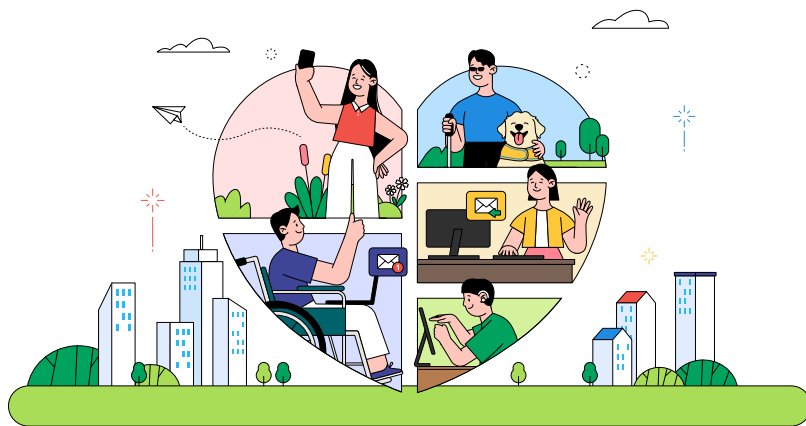
‘다르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는 인정하기 힘들 것이고, 누구는 간절히 원하는 단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인터뷰한 뉴스나 영상을 보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친절하게 말하고 대해주는 걸 장애인은 모를까? 어쩌면 빛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피자를 만들고 자신이 아닌 친구들의 칭찬까지 해주는 빛나라 초등학교 친구들. 내 주위에 장애를 가진 친구는 없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은 꽤 많다. 그런 친구들도 대하기 어려워하는 나인데 성장이 느린 아이. 다리가 불편한 아이와 친구들이 서로 모여 부족한 곳을 보충해 주며 끈끈한 관계가 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런 걸 대단하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었고 나도 앞으로 빛나라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누군가 봤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빛나라 초등학교 여상에도 나온 초록 차량.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된다. 오직 장애인만을 생각하며 무료로 직접 데려다주기까지 한다. 나도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발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무엇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장애인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을 위해 임신할 때 맞는 장애 예방 백신 주사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워크온 슈트의 설명을 듣고 장애인도 혼자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보호자도 편하고 장애인도 편한 방법인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당연한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이라는 것에 이런 연구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앞으로 내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여겨야겠다.

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보치아. 공을 굴려 빨간 공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공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스포츠다. 우리나라가 10번 연속으로 우승해서 10 연패한 값진 스포츠를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찬연, 현진, 지석이 빅오션이라는 그룹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날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과 꺾이지 않는 용기로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이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도전이며, 그 노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빅오션은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활동은 청각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빅오션이 장애를 이겨내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중학생

시
부문

다음에는 같이

서울 위례솔중학교
1학년 이성민

힘들게 완성한 한반도
색칠까지 열심히 칠한 한반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사라진 한반도
찾는 동안 사라진
내 쉬는 시간

1번부터 24번까지
다 찾아본 사물함
딱 그 아이 것만
못 찾아봤네

의심 가는 그 아이
차마 열지 못한 나를 보며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께서
사물함을 열어 주셨네

떡하니 내가 그린 지도가
너의 사물함에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며
아무 말도 못 하고
돌아섰네
다시 찾은 지도를 보니
내가 봐도 잘 그려서

너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되네

이제부터 행동이 아닌
말로 네가 나에게
한 발짝 더 오도록
웃어주고 말 걸어줄게

다음에는 같이
한반도를 그려보자



퍼즐 조각

고양 지도중학교
2학년 엄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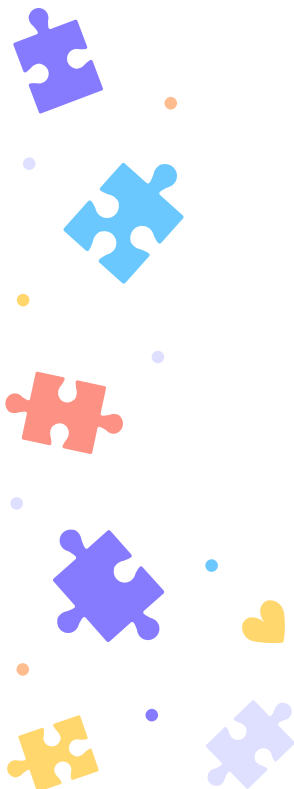
한 조각 빠진 퍼즐을
미완성이라 부르곤 한다.
완벽한 그림엔
모든 게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닌 여백이 되고
상상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모양이 다르다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니다
조금만 바라보면
그 조각도 꼭 맞는 자리가 있다.

어떤 조각은 튀어나오고
어떤 조각은 움푹 들어가지만
서로를 채워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우리 모두는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
혼자선 조각일 뿐이지만
함께 모여
세상을 완성한다.



선과 원

세종 도담중학교
3학년 김도혜

원은 맞았고
선은 틀렸다.

원과 선은 그저 모양새가 다를 뿐인데
우린 항시 다름을 두고
틀렸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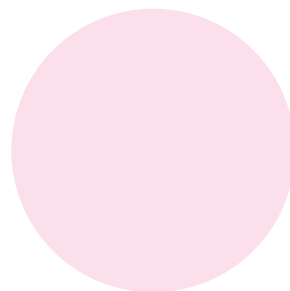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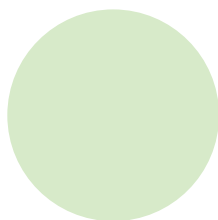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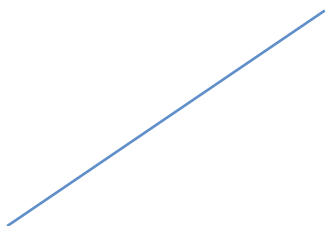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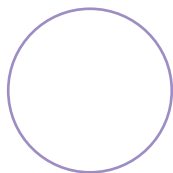
선의 끝과 끝이 손잡으면
결국 원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선을 보고
그리도 어색해했을까

그 선(線)은
우리보다 선(善)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선의 손을 잡아 원을 만들곤
울고 있는 선에게 말해줄 것이다.

너는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일 뿐이라고



똑같아요

전주서중학교
2학년 명하민

말투가 다르면 어떻나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똑같은데

행동이 다르면 어떻나요
표현하고 싶은 건 똑같은데

걸음걸이가 다르면 어떻나요
앞을 향해 가는 건 똑같은데

세상이 조용하면 어떻나요
느끼는 감동은 똑같은데

생김새가 다르면 어떻나요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소리 없는 춤

원주 북원중학교
2학년 서민지

우리는 다르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느낄 수 있다.

춤을 추며,
손끝에서 마음이 닿는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말해준다.

서로의 다름을 안고
우리는 함께 춤을 춘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다.



나는 고요 속을 걷는다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1학년 조은서

나는 고요 속을 걷는다.

나는 듣지 못해도
세상의 소리를 느낀다.
소리가 없다는 건
비로소 마음을 듣는 일이다.

사람들은 나를 불편이라 부르지만
나는 나를 가능성이라 부른다.

같은 길 위에서
조금 다른 걸음으로, 걷고 있을 뿐
그래서 나는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다.

침묵뿐인 하루가
나에겐 가장 감미로운
노래처럼 남는다.



손을 잡으니까

부산 연일중학교
1학년 오정현

처음엔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
다른 친구들이 쳐다볼까 봐
괜히 신경 쓰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잘 맞는 거 같아

손을 잡으니까
뭔가 달라졌어
그냥 친구, 그 이상이 된 기분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랑 이야기해 보니깐
게임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나랑 비슷한 게 진짜 많더라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멀게 느꼈을까?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쉬는 시간에
내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 친구는
내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도와주고

같이 걷는 마음, 그게 진짜 친구인 거 같아

우리 둘이



같이 걷는 이 길

충주북여자중학교
3학년 노연우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너의 속도에 맞추며 걷는 이 길엔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간다.

작게 삐걱거리는 너의 휠체어 소리
나의 구두 소리
그 아이의 흰 지팡이 소리
모두가 다른 악기처럼
세상을 노래하는 음악이 된다.

너의 감각들로 싱그러운 풀내음을 느끼고
나는 노을 지는 저 하늘을 바라본다.
그 아이는 풀 속 사이사이
풀벌레들의 노래를 듣는다.
우리는 달라서 아름답고
다르기에 더 깊이 이해한다.

비 오는 날엔 서로의 우산이 되고
눈 오는 날엔 함께 길을 쓸며
다름은 벽이 아닌
우리가 서로 만나는 다리가 된다.

같이 웃고, 같이 걷고
같이 넘어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빛난다.



오! 내 친구!

시흥 배곧해솔중학교
1학년 손지민

오! 친구다
내 손을 잡은 친구
나와 함께 가는 친구
같은 길을 가는 친구

오! 친구다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
나에게 정을 주는 친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

오! 친구다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친구
언제나 좋은 친구
그래서 좋다



함께

통영 충렬여자중학교
1학년 김연후

삐-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간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 멍뚱히 서 있었다.

뒤늦게 느껴지는 아이들의 답답한 눈빛,
비난처럼 꽃히는 수군거림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달렸다.

우리 반 서운이었다.
항상 비웃음만 당하던 나에게
내밀어 준 그 손은 따듯하고 부드러웠다.

아이들의 이상한 눈초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고요하던 내 인생에
폭죽이 터지는 거 같았다.



소원

대구 유가중학교
3학년 김아랑

내일 나의 두 발로
학교를 걸어가고

친구의 입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리고

학교에선 수어를 배우며

내 눈이 되어주는 사랑스러운
안내견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운동회에서는 풍경 감상보단
친구와 달리고 싶네

내일이 올 때 누가
내 이 소원 좀
들어줬으면...



꽃 그리고 그녀

대구 청구중학교
3학년 김동민

아주 예쁘게 자란 꽃이 있네
하지만 나는 못 보지

아주 향기롭게 자란 꽃이 있네
하지만 난 못 말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꽃이 있네
하지만 난 못 듣지

아주 부드럽게 자란 꽃이 있네
하지만 난 못 만지지

아주 잘 자란 꽃이 있네
하지만 말해보지 못하지

아, 불행하도다
나도 한 번 느껴보고 싶다.
아주 아름답게 자란 그녀를



마음의 무게

인천동방중학교
3학년 안지현

장애인이란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갑자기 나타난 여자
그녀는 나와 다른 비장애인
그녀는 나와 다른 사람
그녀는 이런 나를 챙겨주느라
바쁠 수밖에
그래도 그녀는 변함없이 챙겨주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언제부터인지
그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
어딘가에 버릴 수 없는 상태

사실은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나 생각을 해봤지만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한 나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
그 순간 나는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의 마음 덕에 없어졌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중학생

산 문
부문

세상을 잇다

청주 원평중학교
3학년 이예준

몇 달 전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걷는 한 남성을 마주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견은 조용히, 하지만 다부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인을 이끌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앞에 놓인 높은 턱이었다. ‘저 높은 턱을 어떻게 올라가실까’, ‘내가 도와드리는 게 맞을까?’, ‘그런데 내가 건넌 손길이 원치 않는 동정으로 비치면 어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돕고 싶다는 마음과 조심스러움, 그 사이에서 나는 망설였다. 그러는 사이, 그는 안내견의 리드에 따라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스스로 높은 턱을 올라가고 계셨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건, 내가 그때 처음으로 ‘장애’를 마주한 게 아니라 ‘나의 인식’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선한 의도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안엔 ‘스스로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찌면 이미 벽을 만든 건 아니었는지와 같은 부끄러움이 마음 한구석 가득 피어올랐다.

우리 사회는 ‘정상’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장애인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 낸 결과일지도 모른다. 높은 턱, 불친절한 안내 시스템, 시선 속 무의식적 차별이 오히려 장애를 우리가 인식하는 장애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을 돕는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끌어주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다가가겠다는 용기이고, 한 발짝 더 함께 나아가는 건 편견을 내려놓는 실천이다.

어머니와 함께한 봉사활동은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 보조 봉사활동이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보조 기구에 의지하고 있었고, 우리는 간식을 나누고, 놀이활동을 보조하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하루를 함께 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교실을 청소하고 바퀴에 낀 먼지를 털어내는 일도 빠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떤 말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말과 미소로 낯선 나를 먼저 반겨주었다. 그 따뜻함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나처럼 좋아하는 간식이 있었고, 장난을 좋아했고,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아하는 똑같은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식의 틀을 깨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울

세상을 잇다

수 있었다. 장애인식개선은 제도나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지나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이해와 배려,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아도 결코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손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편견 없이 바라보며, 실천하는 일이다.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양보하고, 횡단보도에서 몇 초 더 기다려주는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오늘 내가 내민 손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진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손을 잡는다는 건 도움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간의 약속이다.

장애가 있는 이들과 나란히 걷기 위해서는 단 한 걸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순간, 우리는 더 따뜻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손이 또 다른 손을 이끌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삶

대구 유가중학교
2학년 이태인

나의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할머니는 올해 95세이시다. 증조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시력이 조금씩 약해져서 지금은 시각 장애 1급이라고 한다. 어릴 때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 가끔 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할머니가 앉아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다들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그때 그냥 반가움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가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손과 귀라서였다. 증조할머니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중반쯤 철이 슬슬 들 때쯤이었나... 어쨌든 놀랍고 신기했다. 증조할머니는 엄마 어린 시절까지는 조금 보이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흐려져 낮과 밤만 구분하시는 정도다가 서서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시골집에서 항상 다니시는 길 물건의 위치 같은 것들이 몸에 다 익어서 집안일도 요리도 도움 없이 충분히 해내시고 특히 술빵과 단술을 그렇게 맛있게 하셔서 주말에 갈 때마다 해주셔서 엄마는 아직도 그 맛이 그리다고 했다. 바느질도 잘하셔서 항상 실을 길게 꽃아서 넣어두면 그걸로 이불도 옷 수선도 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면 항상 라디오를 듣거나 불경을 외우시는데 불경의 모든 구절을 다 외우신다고 한다.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외우셨냐고 물으니 증조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옆에서 읽어주시고 할머니는 듣고 외우고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반야심경, 천수경 등등 다 지금 머릿속에 있으시다고 한다. 눈의 감각을 잃으셔서 다른 감각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 90세가 넘는 지금에도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도 보청기 없이 잘 들으신다. 갈 때마다 엄마가 조금씩 용돈을 드리는데 봉투에서 꺼내서 손으로 만지고 얼마인지도 바로 아신다. 돈에 찍힌 그 동그라미가 내 감각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십만원이나 넣었나?” 하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다. 증조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으셔서 너무 힘든 삶을 사셨겠지만 다른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힘한 일 안 하시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나름 편안한 생활을 하시고 자식들이 늙어서 머리가 새하얗고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증조할머니 머릿속에는 젊어 보이실 때 그 모습으로 쭉 남아있으니 “우리 큰아는 양복이 그래 잘 어울려.”, “우리 영희는 애버서 우짜노”, “우리 경희는 까무잡잡한 기 매력이다”라고 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나쁜 것, 불행한 것은 보이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증조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슬프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이라는 말에 나오는 소통이 잘 안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 재밌고, 말도 잘 통해 좋았다. 어쩌면 장애인인 증조할머니와 비장애인인 나머지 가족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는 장애인을 엄청나게 배려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우러져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장애인이었다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봐 주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 가족 중 누구도 증조할머니가 눈이 멀어서 슬퍼하시거나 괴로워하시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마음속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을 현명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지금도 매일 증조할머니는 꿀 한 스푼과 이가탄 한 알, 홍삼 캔디를 꼭 드신다고 한다. 나의 증조할머니가 꼭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장애란, 다르지만 특별한 것

울산 다운중학교
3학년 위현주

2년 전의 난 길을 걷고 있던 중에 내 앞에서 걷던 사람과 시각장애인이 부딪히고 말았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아...'라는 소리와 함께 그냥 숨 떠나버렸다. 앞사람이 했던 걸 따라 하듯 나도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내 뒤에 있던 사람은 시각 장애인의 물건을 같이 주워주며 도와주었다. 이제라도 가서 나도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얼굴이 화끈해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평소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도 늘 그런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은 숨길 수는 없었다. 그 뒤로 나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항상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에는 그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속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편견이나 생각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 행동으로 나와, 큰 몫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박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마음속으로 다른 존재라 여기고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은 그저 '같이 지내기 불편한 사람', '우리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겪는 상황들이 비장애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의 배려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최근에 SNS에서 안내견과 함께 당에 온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가 비장애인으로 꽉 차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비켜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양보를 해주지 않아 정작 진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30분을 기다린 상황을 보기도 했다. 나는 우리의 이런 사회의 모습은 정말 반성하고 진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래로 우리 사회가 바뀌길 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장애란, 다르지만 특별한 것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와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이자, 장애가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장애만 보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람 간의 차이만으로 보는 미래이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구분하거나, 그 차이로 차별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그건 분명하게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그저 작은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차별과 편견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책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고 서로 배척하며 살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미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미래가 우리의 결으로 오고 있길 간절히 바란다.



단밤아! 사랑해!

인천예송중학교
3학년 서연지

‘단밤’이는 예쁜 내 여동생이다. 착하고 조용하고 내가 속상할 때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따뜻한 친구이다.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단밤이에게 세상은 사랑만 가득한 신나는 놀이터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사랑과 예쁨을 받는 행복한 존재이다.

작년 8월 삼복더위가 한창일 때 단밤이는 우리 집에 왔다. 내 품 안에 꼭 들어오는 이제 두 달 된 아기 단밤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무뚝뚝한 우리 아빠도 안고 다닐 정도였다.

배변 실수를 해도 예쁘고 물그릇에 귀를 적시며 자도 예쁘고 게걸스럽게 밥을 먹어도 예뻐다.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놀랄 때도, 까치와 고양이를 만나 신기해할 때도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처음 목욕을 하던 날 시끄러운 드라이기 소리를 이겨내고 간식에 집중하던 초롱초롱한 단밤이의 눈빛을 보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엄마는 나와 동생을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돌봐주시겠구나” 하는 몽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견! 바로 우리 단밤이의 명칭이다. 생후 2개월 무렵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훈련을 진행하는 퍼피워킹 중이다. 벌써 단잠이는 10개월 차 성견이 되었다. 꼬물이 단밤이가 의젓한 성견이 되기까지 우리 엄마의 얼굴과 손등은 매일 산책하며 햇빛을 받아 그을리고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항상 ‘우리 예쁜 단밤이~ 우리 애기~’ 하면서 행복하게 웃으신다. 누군가의 든든한 눈이 되어주길,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은 오늘도 단밤이와 함께하고 있다.

단밤이와 다닐 때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 같아 신기하다. 안전하게 점자블록을 찾아 나를 이끌 때는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길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들은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 단밤이도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조심조심 헤쳐나가는데 시각장애인은 어떨까? 비단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아쉽기만 하다. 또 단밤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알지 못한다. 엄마와 단밤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피해 인도로 다니려 노력하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 수는 없는지 안타깝다.

단밤아! 사랑해!

단밤이와 다니다 보면 예쁘다고 만지거나 소리 내어 부르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단밤이는 누군가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만져도 좋은지 물어봐 주시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시각장애인도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우리 동네는 핑크빛 벚꽃들이 만개하고 있다. 이제 곧 털보 공주 단밤이가 헉헉하고 더워하는 여름이 오겠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단밤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미래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어 파트너와 함께 하루하루 편안한 삶을 걸기를 기도해 본다.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단밤아! 사랑해!



‘손잡고 한 발짝 더’

충남 당진중학교
3학년 전은조

나는 중학교 1학년 정교은이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나는 종종 ‘특별한 아이’로 구분되었다. 특별하단 말은 나에게 있어 좋은 말은 아니었다. 마치 ‘나는 불편한 너와는 다르다.’는 말 같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는 아침마다 같은 길을 지난다. 학교 앞 별것 아닌 언덕.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낮은 언덕이 내겐 매일의 도전이다. 한 달 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나는 늘 잠시 멈췄다. 휠체어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혼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언덕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교은아, 같이 올라갈래?” 우리 반에서 활발하고 인기가 많은 소희였다. 하지만 소희와 나는 딱히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나는 당황했고, 속으로는 망설였다. ‘소희가 나를 민폐라고 느끼면 어쩌지?’ 하지만 소희는 오랜 내 망설임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얹어 언덕을 함께 올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소희는 무겁거나 어색한 기색 없이 담담했다. 마치, 이걸 그저 ‘같이 등교하는 일’일 뿐이라는 듯,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민다는 건, ‘도움’이라기보단 함께하자는 마음이란 걸.

그날 이후 나는 소희와 함께였고, 함께 웃었고, 가끔은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였다. 휠체어를 미는 손이 바뀌기도 하고, 나도 그냥 나란히 걷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수하는 내 휠체어 손잡이에 달린 작은 인형이 귀엽다고 했고, 유정이는 “나도 저런 거 가방에 달고 다닐까?”하고 말을 걸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는 차별 없는 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날은 조별 활동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조장을 정하라 하셨고,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를 추천했다. “교은이가 정리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잖아.”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뭘 못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날 스스로 날 울타리에 가두고 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날 나는 우리 조를 이끌었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과제를 마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가 아닌, ‘조장 정교은’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존재했다. 난 여전히 휠체어를

‘손잡고 한 발짝 더’

탄다. 계단이 많은 건물은 여전히 불편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단 걸.

한 사람의 손길, 용기, 말 한마디가 나와 같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단 걸. 소희와 나는 지금도 자주 함께 걷는다. 걷는다는 건 단지 두 발로 걷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나에게 걷는다는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고, 서로와 그저 함께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내게 말할 것이다. “교은아, 같이 가자.” 나는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응” 손잡고, 한 발짝 더.



파란 개미

창원여자중학교
3학년 권민서

한 개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개미는 유독 다른 개미들보다 색이 파랗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 개미가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른 개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파란 개미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성체가 되니 여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란 개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파란 개미에게 편견이 없는 한 개미가 다가왔습니다. 그 개미는 다른 개미들처럼 평범하게 생겼고, 검은색에 어디 하나 잘못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미들과는 달랐습니다. 편견이 없는 개미는 파란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저런 따가운 시선들을 견디는 거니?” 그저 순수한 호기심의 질문이었습니다. 파란 개미는 고민을 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이런 시선들이 익숙해져서 그럴 뿐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도 괜찮은 걸까 고민이 돼.” 편견 없는 개미는 파란 개미를 보며 안쓰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란 개미는 편견 없는 개미의 표정을 보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편견 없는 개미는 파란 개미에게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파란 개미야, 나와 함께 저 위로 올라가 보지 않을까? 따뜻한 햇볕을 받다 보면 좋지 못한 시선들도 잊고, 네 생각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거야.” 파란 개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굴 밖으로 나가기 전, 햇빛을 받으며 빛나는 편견 없는 개미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편견 없는 개미를 따라 올라오자, 따사로운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파란 개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파란 개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편견 없는 개미에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편견 없는 개미야, 너는 내가 싫지 않니? 난 다른 개미들과 다르게 파랗고 다리가 하나 없는데....” 편견 없는 개미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오히려 부러운 걸? 파랗고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결코 네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지. 편견과 시선은 결국 편견에서 나오기 마련이야. 그런 시선들을 받는다고 해서, 네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끝나치기 무섭게, 파란 개미는 투명하고 맑은 제 눈물을 가득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편견 없는 개미는 파란 개미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파란 개미

편견 없는 개미가 말했습니다. “파란 개미야,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에 사로잡히지 말자. 넌 아주 멋지고 특별한 개미잖아. 너의 하늘처럼 파랗고 넓은 마음은 너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파란 개미에게 편견 없는 개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란 개미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며, 저 햇살만큼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공간도 함께 마음도 함께

울산 다운중학교
3학년 정제희

작년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우연히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지하철 바닥에 누워서 절박하게 무엇인가를 외쳤다. 뉴스는 그 시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데 불편함을 겪었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경찰의 해산명령도 듣지 않고 지하철에서 눕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까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장애인의 시위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어차피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생각이 변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올해 1월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울산에서 인천공항까지 아주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였다. 물론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지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차를 타는 것부터 힘들었다. 서울에 도착하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고역이었다. 짐이 무거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는데 아주 멀리 돌아가야 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문득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까지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텐데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멀리 설치되어 있어 그곳까지 가는 것부터 힘들뿐더러 엘리베이터 안은 항상 사람들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일로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길거리를 걸으며 신기했던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거리에 많다는 점이었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길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의아했다. 캐나다와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언뜻 생각나지 않았다. 몇 주간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작지만 큰 차이를 알게 되었다.

캐나다에는 여러 건물 출입문에 버튼이 있어 눌러서 문을 연다거나 손을 흔들며 동작을 감지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많은 미닫이문처럼 문을 밀면서 들어가는 방식은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 것이다. 캐나다의 출입문 방식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뿐 아니라 손이 불편하거나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대부분의 버스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탈 수 있는 바닥 높이가 낮은 저상버스였다. 우리나라에도 저상버스가 있지만 아직 많은 버스가 계단을 타고 오르는 방식이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가 본 캐나다 버스들은 전부 저상버스였다. 이처럼 캐나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치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었다.

한 편 저상버스가 많다는 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휠체어가 버스에 올라타거나 내리는 순간에 뒤차들이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려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승객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신선하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한국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설과 장치들이 늘어나고 있고 법이나 제도도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아직 먼 것 같다. 나만 해도 몇 달 전까지는 장애인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게 하고, 학교시설을 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비장애인 학생들 모두 한 공간에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로 나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고 인식을 바꾼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간도 함께 마음도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장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

파주중학교
1학년 성지연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소외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런 장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겠습니다. 저는 장애에 대해 잘 몰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 장애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이 있을 때 집중해서 듣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워야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별하지 않는 말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놀리는 말이나 흉내를 내는 행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하고, 누구든지 존중하는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겠습니다. 우리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인사하고 말도 걸어볼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놀거나 공부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제가 먼저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차별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장애인을 놀리거나 따돌린다면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장애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내가 먼저 배운 것을 알려주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은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길이나 건물에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런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나 마을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이나 캠페인이 있다면 참여해서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분명히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장애 차별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은다면, 그 변화는 언젠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배려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부터 내가 먼저 시작하는 실천을 다짐합니다.”



함께 구르는 행복

거제 계룡중학교
1학년 박주연

얼마 전, TV에서 강원래라는 2000년대 인기를 한몸에 받던 댄스 그룹 클론의 멤버를 보게 되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며 음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 자신을 닮은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세월 자신과 싸워야 했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다.

그런 그가 다시 TV에 등장한 것은 “도와주세요.” 한마디를 외면한 비장애인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그는 셀프주유소에는 카드를 넣어야 하는 곳이 위쪽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옆에서 셀프주유를 하고 있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내가 왜?’라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누구나 도와달라는 말은 할 수 있지 않냐? 장애인인 내가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었냐?”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황만 보아도 알 것 같았다. 이는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시설뿐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을 꼬집은 이야기 같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강조하지만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회에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반면 양심이라는 이름하에 지켜지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사회를 살아가게 한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이름의 도덕이 문제인 것 같다. 도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름에 맡겨지는 도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불편하게도 하는 것 같다. 누군가에겐 꼭 지켜야 하는 질서 같은 것이 양심이라면 다른 이에겐 법 아래 놓일 때만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법보다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세상을 하하 호호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양심이란 녀석이다. 내 안에 양심이 있기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함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도움을 주는 즐거움과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배려라는 장치가 아직 미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분명 그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상 속의 한 명일 것이다.

김성운 작가의 ‘행운이 구르는 속도’는 딱 강원래씨 같은 하반신을 가진 하늘이가 등장한다. 하늘이는 이 장애로 인해 한 번도 현장체험을 갈 수 없었고 전동 휠체어는 비싸서 낡은 휠체어를 굴려야 했다. 그리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풀이 죽거나 친구의 우정을 의심해야 했다. 또 같은 반의 박구는 걸핏하면 하늘이를 놀리거나 무시해대기 일쑤였다. 이런 면에서 이 동화책은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하늘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웃음을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런 하늘이 앞에 외국인인 램프의 요정 마람이 나타난다. 마람은 한 달 동안 하늘이 곁에 머물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하늘이는 이 한 가지 소원 덕분에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된다. 신중하게 소원 한 가지를 고르다 보니 자신의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하늘이가 얼마나 따뜻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을 도와주는 태양이와 보라, 왕별이가 있고 엄마와의 인연으로 하늘이의 급식판을 들어주는 담담이가 있고 저상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하늘이까지 현장체험을 함께 하자는 담임선생님도 계신다. 그 소원 하나를 계기로 하늘이는 왜 하필 자신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통해 하거나 장애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지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이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장애이고 친한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에 하늘이는 장애와 더불어 잘 살고 있었다.

하늘이는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허황된 기적보다 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 결국 전동휠체어를 갖는 것으로 소원을 빈다. 손으로 밀어야 했던 휠체어는 하늘이와 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기엔 버거웠던 것 같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하늘이와 친구들의 발걸음 속도를 맞춰줄 수 있었고 하늘이는 현실적인 그 소원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몫을 살아갈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하늘이를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일원으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져서 배려하고 배려 받고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기적을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알맞은 속도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 같다.

밀어내기 금지

서울 공릉중학교
1학년 정예원

5학년 여름, 엘리베이터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보이는 20대 남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흰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30대 여성을 본 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내 시선을 느끼신 보호자께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제야 내 표정이 어땠는지를 깨닫고 ‘괜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한 후 내가 사는 층에서 내렸다.

나는 그 당시는 보호자의 표정이 미안함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다른 사람들이 제 아들을 이상하게 바라볼 거라는 것. 며칠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깨달았다.

내 행동에 대해 후회도 들었다.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지금도 그렇다. 사실 그 남성분도 많고 많은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데 굳이 그렇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었다. 장애인은 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 후 장애인의 인권과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 늘어났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의 수는 많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온통 비장애인만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달라진다. 대학병원 같은 곳에 가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장소에 모여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왜 우리는 장애인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장애인처럼 일상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한동안 주변을 주의 깊게 보았고 난 깨달았다. 몸이 더 불편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듯 보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가 그들을 고립시켰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사회 속 시설은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문이나 계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향한 동정의 시각. 이게 바로 고립이다. 정작 우리가 장애인을 고립시키지 않는 방법은 매우 쉬운 것인데도 말이다. 전혀 거창하지 않다.

첫째, 장애인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주기. 즉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묻고’ 도와주고 힐끔거리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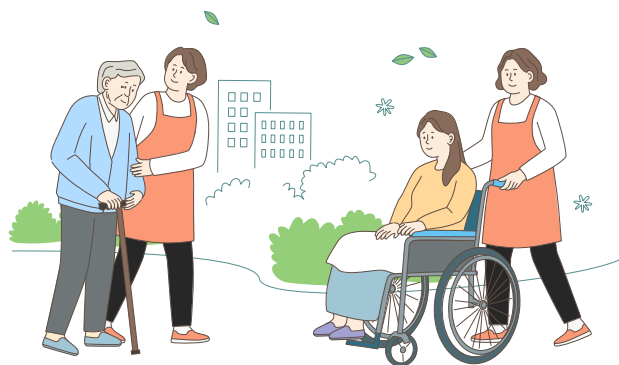
밀어내기 금지

조금 쉽게 생각해 보자. 자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나 피부가 진짜 뒤집어졌다 싶은 날. 다른 사람들이 자신 뒤에서 ‘불쌍해라’, ‘안됐다’라고 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힐끔거리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피부가 안 좋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어릴 적 아토피로 인해 놀림받고 이상한 동정과 관찰하는 듯한 시선도 느껴봤다. 그러기에 나는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가 만약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 것 같냐고.

둘째,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조금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나도 ‘장애인의 날’마다 하는 교육을 집중해서 듣고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 만약 내가 그때 그 남성, 혹은 그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토피를 향한 시선을 눈치챌 때의 마음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느낄 때의 마음과 같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기 금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손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누구보다 가장 빛난 아이

여수 안산중학교
2학년 윤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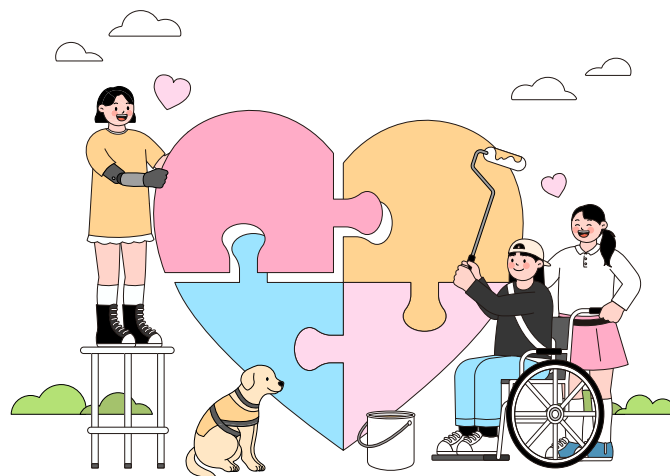
나에게는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다. 장애가 있는 친구인 범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난 그 친구를 만났다. 성격과 취미가 비슷한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범준이 하고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었다. 3학년 때, 우리 반은 시력 검사를 했다. 나와 범준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력을 검사하러 들어간 범준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잠시 후 시력을 검사하는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검사를 마친 범준이는 심각한 얼굴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범준아?" 난 놀라며 물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셔." 난 그동안 범준이가 눈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적잖이 놀랐지만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해 주었다. 그 뒤로는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어쩌다 마주칠 때 보면 범준이는 우울해 보였고, 눈에는 매우 큰 안경을 쓰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중학교 1학년, 우리는 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주셔야만 등교할 수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전국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못해 미국에 있는 병원까지 다녀오고 나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좌절감 때문일까? 그의 부모님은 많이 달라지셨다. 친구들의 방문을 모두 거절하시고, 범준이를 거의 아기 수준으로 보살피며 키우셨다. 어느 날 범준이는 나에게 "시력이 나쁜 것도 속상한데 부모님이 그러시니 더 슬퍼"라고 말했다. '장애'라는 고정관념 때문일까? 나는 그때 그에게 공감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난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이 매우 슬퍼 보여 나는 매우 걱정했다. '나는 이제 어쩌지?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 라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

전 학생이 모두 기다리던 체육대회 날, 난 들뜬 마음으로 체육대회 장소로 가다 범준이를 만났다. 인사하려고 하던 찰나, 우리 반 모두가 그를 보고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범준이는 친구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가볼게" 라고 말했다. 난 그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체육대회로 한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벤트 게임을 했다. 그 게임은 한 반에서 2명을 추첨으로 뽑아 협동하며 미로를 먼저 빠져나오는 게임인데, 놀랍게도 나와 범준이가 뽑혔다. 이 경기만 이긴다면 우리 반이 1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한쪽에서는 '과연 범준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모두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중간에 한 부분에서 대부분이 멈췄다. 바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손과 발이 되어 장애물을 빠져나오는 게임이다. 거의 모든 팀들이 그 부분을 빠져나오지 못해 찢찢매고 있었지만, 우리 팀은 달랐다. 내가 눈이 되어주고, 범준이가 손과 발이 되어주니 내 시력과 범준이의 뛰어난 몸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범준이의 시력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한 것 때문에 더욱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체육대회 시상식에 우리 반이 자랑스럽게 1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나는 범준이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 생각한다. 범준이를 몰랐던 유치원 때 나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몸이 아픈 사람"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범준이를 만나고 나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뀌었다. 어렸을 때 장애인이 있는 곳에 봉사 활동을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못생겼다' 아니면 심지어 '징그럽다'라고도 생각했지만 범준이 때문에 그 잘못된 편견과 인식이 싹 사라졌다.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니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모른 채 장애인에 대해 'always'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안타깝다고 많이 생각하고, 무작정 도우려고 한다. 선한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그 대상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장애인을 보는 시선을 'always'가 아닌 'often'으로 생각하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응원하며 지켜봐야 한다.



행복한 희망을 꿈꾸는 우리

제주중앙중학교
2학년 문준서

나에게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누나가 있다. 나에게 누나는 그냥 ‘가족’이다. 우리 누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처럼 ‘특별한 존재’도, ‘불편한 존재’도 아니다. 그냥 우리 누나는 엄마 아빠와 같은 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 후 집에 오면 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평범한 존재의 누나다. 언어가 느려서 표현이 서툴다 보니 감정 표현을 때로는 울음이나 표정으로 할 때가 있지만 나에게 누나는 그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다.

얼마 전 내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을 갔었다. 이날 아빠는 야간 근무를 가셔서 누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셋이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 응급실 출입을 할 수 있는 보호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규칙이 있어 누나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맹장염으로 아프기도 했고 혼자서 보호자 대기실에 있을 누나를 생각하니 마음마저 아팠다. 엄마가 누나 상황을 이야기하니 병원 관계자분이 약자에 대한 배려로 다른 대기실을 이용해 숙모가 데리러 오는 동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따뜻한 배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이나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시선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나는 이럴 때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고 신체발달은 늦지 않지만 각종 사고와 불의의 피치 못하는 경우로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당장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작년에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산문 부문에 도전하면서 나도 누나와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글을 쓸 때보다 누나는 조금 더 발달하여서 내가 하는 질문에 한 번씩 대답도 해주고 응급실에 갈 때도 “응급실, 응급실”이라고 하면서 나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이전에 누나한테서 느끼지 못했던 공감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은 장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 인식은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시선은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행동이 되고 말이 되어 결국 사회를 만든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누가 바뀌어야 할까? 결국,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 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도 누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때로는 걸음이 느릴 수 있어도,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다 같이 손잡고 한 발짝씩 더 걸어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청소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책을 소개하고,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작은 캠페인을 기획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또래 친구들이 장애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무시하거나 놀리는 행동을 봤을 땐 용기 있게 말리기도 할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과 노력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장애에 대한 시선 및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는 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누나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기를 바라면서 나는 오늘도 누나와 손을 잡는다. 누나, 앞으로 우리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나는 누나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 누나야~~우리의 앞날에 파이팅을 선물하자!!!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중학생

방송소감문
부문

너의 소원은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2학년 유리아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자마자 내게 떠오른 소원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이나 ‘아이돌’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원이 누군가에게는 사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주인공 지석이는 청각 장애가 있다.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며 소통한다. 하지만 인공와우를 끼면 무조건 잘 들릴 거라는 편을 가진 아이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지석이에게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는 건 아냐?” 하며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영어 듣기 평가를 치를 때에도 잘 안 들려서 속상해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뒤돌아 칠판에 쓰면서 수업한다. 체육 시간에는 움직임에 민감한 인공와우를 빼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선생님의 호령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혼자만 튀는 행동을 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체념하고 포기하는 지석이를 보는 내내 나도 속상했다.

생활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지석이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소외감을 느꼈을까? 특히 청각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지석이가 겪는 불편함은 엄밀히 말하면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친구를 보고도 아무 관심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정말 화가 났다. 동시에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자 부끄러워졌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청하다. 지석이가 청각 장애인인 할머니로부터 ‘소원 팔찌’를 사고 돌아서는 순간 청하와 세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청하는 지석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지석이의 소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지석이에게는 성적이 오른 것보다, 아이돌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었을 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 왔을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막막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해졌다. 계속해서 소리 없는 외침을 했을 텐데 못 들어준 거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면서 아픔에 공감해 주고, 동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청아에게 지석이는 마음을 열게 된다. 너무 힘들어서 사라지고 싶어 했던 지석이는 청아 덕분에 용기를 내고 도전해서 댄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너의 소원은

청아, 도한, 지석이에게 배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지석이를 보면서 청아도 학업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한 사람의 관심과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드라마에서는 ‘소원 팔찌’ 덕분에 지석이와 소통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석이’가 힘들어할지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다. 장애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지?’, ‘이건 힘들 테니 도와줘야 해’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차별과 동정은 장애인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닌 소통하고자 하는 진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문을 연 지석이와 그의 손을 잡아준 청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함께이기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함께’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지석이의 장애인 친구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젠 내가 그들과 손잡고 한 발짝 나아가야 할 차례이다. 자신의 장애가 소원을 이루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유의 소감문

원주 복원중학교
3학년 허성유

오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했는데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 주인공은 지석이와 청아, 넓게 보면 우림이까지인 것 같았는데 나는 지석이도 정말 대단하지만 청아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지석이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청아네 학교에 전학을 온 것 같다. 청아는 처음에 지석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학교 앞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께서 파는 팔지와 연결이 되었을 때 지석이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약 청아라면 그 속마음을 듣고 알았을 때 지석이에게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했을 것 같다.

나는 장애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져서 청아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청아는 지석이를 쫓아다니면서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잘 챙겨줘서 정말 멋있었고 만약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생긴다면 청아처럼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석이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청아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고 미웠을 것 같다.

지석이는 춤을 추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지만 처음에는 음악이 안 들려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나도 교내 댄스동아리를 3년 동안 하면서 음악 없이 연습을 한 적이 1번도 없을 정도로 춤을 출 때는 음악이 크면 클수록 힘이 나고 파워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지석이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을 것 같다. 남들보다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불만 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닮고 싶다.

내가 지석이라면 “난 왜 장애가 있는 걸까?”, “진짜 장애인은 춤을 추기 어렵나?”,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며, 지석이처럼 끈기 있게 내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 영상처럼 비록 남들보다 조금 뒤에서 시작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내 꿈과 내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특이함과 특별함

김포 통진중학교
3학년 노지현

학교에서 틀어준 ‘장애인식개선 드라마’인 ‘렛츠 댄스’를 시청하였다. 내 의지로 보게 된 영상은 아니었지만 다 시청하고 나니 많은 내용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영상의 내용은 한 할머니가 팔던 팔찌를 사려던 청아는 결국 팔찌를 사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 영상의 또 다른 주인공인 지석이 다가와 팔찌를 사 간다. 지석은 평소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아직 발음이 어눌하고,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해야 이해가 잘 되는 등 아직은 불편함이 많다.

그런 지석이 새로운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청아와 부딪히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청아는 지석과 부딪힌 이후로 지석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속마음과 그 내용으로 인해 청아는 계속해서 지석을 신경 쓰게 되고 챙겨주려 한다. 하지만 지석은 그런 청아의 호의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호기심을 갖거나 동정하는 것일까 봐 청아를 경계한다. 지석은 그동안 겪었던 차별과 시선으로 인해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지석의 속마음을 들은 청아는 지석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 유일하게 지석을 외면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준 것이다.

그 뒤에는 같이 팀을 짜 음악 수행평가로 춤을 추기도 하며 지석과 청아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후반부에는 대회에도 나가 멋진 활약을 한다. 많은 과정 속 요인들이 지석을 방해하고는 했지만 결국 청아와 지석은 그것을 이겨냈다. 나는 이 영상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내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청아와 지석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청아가 처음 지석과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지석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좋아하기는커녕 왜 저러는 거냐며 질색할 뿐, 하지만 이 수행평가를 기점으로 둘의 관계는 바뀌기 시작한다. 전까지는 지석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서도 제대로 말을 전하지 않는 청아가 답답하기만 했다.

항상 날이 서있던 지석의 태도도 그저 불편하기만, 전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서서히 풀어지는 그들의 스토리와 속내를 바라볼 때 나의 생각도 점점 변해갔다. 청아가 지석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은 이유는 그의 속마음이 들렸기에, 그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에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적인 지석의 태도 때문도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 보자는 청아의 의견에도 지식은 변화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의견을 받아들이자 좋은 결과가 잇따랐고 둘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였다.

나는 이때까지 장애인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변화하라 말하는 것은 실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장애인도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무엇보다 제안일 뿐인데 그들이 무작정 싫어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렛츠 댄스’ 영상을 보면서 장애를 배려해 주려는 나의 태도가 배려보다는 편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청아가 말하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았지만, 내가 함부로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다. 특이함과 특별함,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라는 요소는 특이한 것, 특별한 것, 평범한 것 등 그들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수식이 붙을 수 있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이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며 나의 가치관을 키워나가고 싶다.



함께 춤추는 우리

거제 장목예술중학교
1학년 손지윤

‘렛츠 댄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영상이 단순히 춤을 추는 장면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렛츠 댄스’는 단순한 댄스 영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장애인식개선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주인공 지석이 등장한다. 지석은 움직임이 느리고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빠르게, 느리게, 혹은 정교하게, 그들 각자의 스타일로 춤을 추면서, 그들은 나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바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춤을 추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신체의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에 여러 명이 함께 춤을 추는 부분이었다. 그 순간, 각자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랐지만, 그 다름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보며 나는 ‘같은 동작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 춤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춤’이라는 기준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춤을 추고,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도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있긴 했지만, 그 교육은 단지 책에서 읽는 이론에 불과했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주 교류하거나,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내 생각은 단편적이고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렛츠 댄스’를 보고 나서는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결코 불편한 존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로만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립적인 존재들이다.

‘렛츠 댄스’는 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한다.

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보여주는 춤 속에서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게 되었다. 우리는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하거나 낯설게 느낀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어찌면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차별하거나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잘 모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더 자주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이라 믿는다.

‘렛츠 댄스’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만들어 주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자는 것 같다. 춤을 추는 것은 단순히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춤을 추는 것은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 영상을 본 후, 나는 더 이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나와 다를 바 없이, 나와 함께 춤추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제 그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과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춤을 추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렛츠 댄스’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렛츠 댄스, 우리 함께 춤을 추자!”

진심이 들리는 순간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배세윤

고등학생 청아는 철저하게 성적만을 쫓는 삶을 산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청아에게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청각장애를 가진 전학생 지석이 반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지석은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 학생으로 조용하지만 춤을 출 때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아이다. 하지만 주변 시선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딘가 외로운 구석이 있다.

어느 날, 청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석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지석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진심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담겨있다. 청아는 처음엔 이 능력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점차 지석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지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지석은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한다. 말로 하지 못하는 감정, 자신이 누구인지 춤에 담아 표현하려고 한다. 청아는 지석을 응원하며 함께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고, 점차 그의 열정을 공유하게 된다. 둘이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청아는 지석을 통해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보진 않는다. 장애에 대한 편견, 주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지석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한다. 그 과정 속에서도 청아는 포기하지 않고 지석의 곁을 지키며 마침내 지석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춤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작품은 진짜 소통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석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지만 이 드라마는 지석을 그리 불쌍하게 그리진 않는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준다. 춤은 그에게 목소리이자 세상과의 연결이다. 그리고 청아는 그 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첫 번째 친구가 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객 역시 지석의 춤을, 침묵 속 외침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들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특히 청아의 성장 또한 큰 감동을 준다. 처음에는 공부만이 인생의 해답이라 믿던 아이가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사람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은 단순히 지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청아 자신이 사람으로서 성장한 여정이었음을 말한다. 이 드라마는 장애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은 그저 마음을 여는 일이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서울 여의도중학교
2학년 성시온

1. 들리지 않는 목소리

지석이는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 드라마 초반에 지석이가 같은 친구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그런 지석이를 멀리한다. 인공와우를 착용해도 입 모양 없이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지석이를 보며, 나는 원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인공와우가 뭔지 찾아보았다. 달팽이관에 기계를 이식하고 전자파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며 인공와우가 뭔지 궁금해할 때만 해도 그런 기계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내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날도 아침에 머리가 조금 아팠던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었다.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귀가 아프고 먹먹한 느낌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반 친구들의 목소리가 반쯤 안 들리는 지경이 되었다. 친구들에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조금 크게 말해달라고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삐-하는 기계음과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되었고 어지러웠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한 끝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선생님은 귓속 모형을 보여주시며, 이 병은 주로 달팽이관 옆의 신경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치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쯤에 나는 앞이 막막해졌다.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수어를 배워야 하나, 인공와우가 비싸다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청력은 3일 만에 많이 돌아왔고, 지금은 가끔 들리는 이명 외에는 거의 다 회복을 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의 불편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임을 뱉속 깊이 느꼈다.

2. 늘 들어주던 그 친구

당연하게 생각한 청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런 불편과 고통을 일상적으로 겪는 지석이의 이야기가 좀 더 가깝게 다가왔다. 그리고 지석이를 이해하고 지석이의 이야기를 들어준 청아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었다. 청아는

지식이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사실은 청아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픔이 있다. 친구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아서 포기한 듯한 지식이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청아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며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청아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도 못 하고 학교에 몇 없는 동양인이라 친구들이 선입견을 갖진 않을까 걱정되었다. 적응하며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이었다. 실제 청력은 문제없었지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나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 친구들은 그런 나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었다. 선생님들도 다르지 않았다.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고,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친구 중 특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늘 귀 기울여주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전학 간 첫날 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넌 시온이지? 난 키아라라고 해.” 키아라는 내가 듣고 있던 말든 계속 옆에서 말을 걸어줬다. 갸 답답하지도 않은지, 어색하고 달팽이처럼 느린 나의 영어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었다. 참 인내심이 많은 친구였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하루에 5번씩 물어봐도 전혀 짜증 나는 기색 없이 한결같이 웃으며 “난 키아라야” 하고 대답해 주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었던 나에게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었고, 힘든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마치 드라마 속의 청아처럼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그렇게 키아라의 경청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느리지만 한마디씩 하게 되었다. 나는 키아라를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다.

3. 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줘

우리 학교에는 특별반이 있고, 우리 반에는 그 특별반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냥 은호라고 하겠다. 처음에 특별반이라고 하길래 어딘가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남자아이기도 하고, 내가 선불리 다가서면 은호가 불편해할까 봐 처음엔 말을 걸지 못했다. 학기 초 나는 은호의 뒷자리였는데 어느 날 은호가 뒤돌아서 나를 반히 보며,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다. 낯을 가리는 나는 사실 처음엔 은호의 인사가 하고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다. 같은 반이었지만 대화를 딱히 해본 적 없는데, 특별반 친구가 내게 먼저 다가온 데 대한 놀라움이 컸던 것 같다. 나는 어쩌면 신기한 마음으로 은호를

지켜보았다. 은호는 나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먼저 인사해 주었다. 학기 초라 나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지도 못했는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은호가 놀랍기까지 했다. 내가 은호에 관해 뭔가 혼자 벽을 느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은호에게 느낀 나만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고 체육활동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그 친구를 도와줄 ‘또래 도우미’를 모집하였고, 나는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다.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먼저 다가가는 것의 중요함과 필요함을 나는 여러 일을 겪으며 배웠다. 어쩌다 그렇게 용감하게 자원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의 배려를 통해 많이 배웠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보통은 성별이 같은 친구 중에서 또래 도우미를 뽑는데, 나는 은호를 잘 도와줄 것 같다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드라마의 끝부분에 지석이와 청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멋진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지석이의 장애를 뛰어넘어, 서로 맞추어가는 연습을 통해 드라마 제목처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2학년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또래 도우미로 은호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 중 대단히 특별한 것은 없다. 이동수업 때 은호와 함께 이동하고, 짝으로서 수업 시간에 은호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친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잘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배드민턴을 꽤 잘하는데, 은호 역시 나와 랠리가 오래 이어질 정도로 배드민턴을 잘한다. 그리고 첼로 연주도 할 줄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 반의 다른 중2 남자애들 같지 않게, 말이 부드럽고 예의 바르다. 아마 2학년이 끝날 때쯤 되면 특별반 친구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친구로 남을 것 같다. 지석이와 친구들이 이루어낸 멋진 무대처럼.

너의 소리, 나의 소리, 함께 듣는 소리

영암 삼호중학교
1학년 정아린

최근 시청한 '렛츠 댄스' 드라마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드라마는 청소년 장애인해교육 드라마로,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성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인 청아와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청각 장애 학생 지석이다. 우연한 계기로 청아는 지석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지석이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석이가 청각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알게 되면서 청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지석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청아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드라마는 지석이가 겪는 답답함, 소외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두 주인공이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면들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석이에게 춤은 소중한 존재였다. 청아는 지석이의 춤을 통해 그의 감정을 느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이해하게 된다. 춤 연습을 함께 하면서 청아와 지석이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장애를 넘어 우정을 쌓게 된다.

마지막 무대에서 지석이가 소리는 못 들지만 진동과 서로를 느끼면서 박자를 맞추고, 청아와 우림이는 그 옆에서 웃어주며 셋이 눈빛으로 소통하는 장면이 감동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며 느낀 것은 서로를 '이해' 한다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겉모습이나 다르다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친구'가 되는 시작점인 것 같았다.

이 드라마는 청각장애가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인 관계와 소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장애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는 한 부분임을

일깨워 줬다. 또한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기보다는 작은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됐다. ‘렛츠 댄스’는 청소년들이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장애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나 편견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드라마 속 청아처럼 그들의 ‘속마음’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소통의 방식은 다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의미 있고 인상 깊은 드라마였다.

드라마를 통해 나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내면과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다. ‘렛츠 댄스’는 단순한 교육 드라마를 넘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렛츠 댄스’ 감상문

제주 신창중학교
3학년 진은서

오늘은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에 ‘렛츠 댄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다. 이 영상의 줄거리는,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여학생 ‘진청아’가 청각장애를 가진 전학생 ‘김지석’을 만나고, 우연히 뺨고 넘어지게 된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께서 만드신 팔찌 때문에 ‘청아’가 ‘지석’의 속마음을 듣게 된다. ‘지석’은 처음에는 ‘청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청아’는 ‘지석’이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학교 수행평가인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지석’과 함께하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둘의 수행평가는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고, ‘청아’와 ‘지석’은 인기 스타가 되며 ‘지석’은 그토록 원하던 댄스동아리 ‘콜아웃’에 스카우트를 받게 된다. ‘청아’는 ‘지석’과 앞으로도 함께 춤을 추기로 약속하며, 이 과정에서 ‘청아’는 ‘지석’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청아’는 자신의 마음이 헛갈린다는 것을 깨닫고, 친한 친구 ‘우림’에게 조언을 듣게 된다. ‘우림’은 ‘청아’에게 “개 말고, 너의 마음은 어떤데?”라고 하면서, ‘청아’가 진정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콜아웃’에서는 선배의 탈퇴와 ‘지석’의 추천으로 ‘청아’를 새 멤버로 영입하고, 이들은 경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다. ‘청아’는 ‘지석’의 속마음을 듣지 않기 위해 팔찌 할머니를 찾아가고, 청각장애인 할머니는 자신의 소원은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지석’도 자신처럼 그런 누군가를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속마음을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지석’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에게 늘 압박을 가하는 엄마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신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경연 날이 밝고, ‘지석’의 인공와우가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본 ‘우림’은 그냥 모른 척한다. ‘지석’은 인공와우를 보고 당황하고, 긴장감에 쓰러져 병실로 입원한다. 병실에서 ‘지석’은 ‘청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편견 없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한다. 곧이어 ‘청아’는 ‘지석’에게 속마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행동을 하고, 새 소원을 빌어보라고 한다. 그에 ‘지석’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 회복된 ‘지석’은 엄마의 응원과 함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림’은 ‘지석’에게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어떤 학생이 할머니의 팔찌를 사 가면서 영상이 마무리된다.

내가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초반에 ‘청아’가 ‘지석’에게 속마음이 들린다고 하며 쫓아다닐 때 ‘지석’이 ‘청아’에게 ‘동정, 연민에 모자라서 이제는 내 속마음이 들린다니’라며 불쾌해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도와주려는 ‘청아’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지석’의 상점이 어떨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학 온 첫날부터, 하물며 평소에도 사람들은 ‘지석’에게 원치 않는 동정과 연민을 가득 담아 이타적인 배려로 위장한 무례들을 종종 내뱉었다. 영상에서도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공와우를 떼봐도 되냐는 등, 귀가 안 들리는데 춤은 어떻게 추냐는 등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궁금증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듣는 ‘지석’의 입장에서는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할지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에서 ‘청아’와 ‘지석’의 감정을 모두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내가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비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그들은 사람으로서 편견이나 차별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다른 점도, 비슷한 점도 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거나 같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도 나의 소중한 특성이다. 우리는 왼손잡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옆자리 짝꿍이 나와 머리카락의 색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해서 그 짝꿍을 싫어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손 크기가 다 다르듯이 그와 나도 다른 것뿐이다. 그러니 편견에 휩싸이거나 배척하지 말고, 배려롭히고 지나치게 다르게 대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도 안 된다. 영상에서 ‘지석’이 말했던 소원처럼 타인과 그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배려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하고, 장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름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름이 걸림돌이 아닌 개성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손을 잡고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다.

특별한 ‘우대’보다는 평등한 ‘대우’

청주 생명중학교
2학년 김민서

그동안의 나는, 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장애는 그저 ‘배려받을 수 있는’ 우대권이자 혜택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를 마음대로 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신경 써주니까, 똑같이 해도 칭찬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더’가 일상화되어있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한 숨겨진 아픔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점점 깊이 묻혀갔다.

학교에서 ‘장애인식교육’, ‘장애이해교육’에 관한 이벤트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면 ‘이미 충분히 양보 받고 있지 않나?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거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며, 더 성숙해지며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날들이 많아지니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 ‘렛츠 댄스’라는 장애인식개선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렛츠 댄스’는 주인공 청아에게 청각장애인 지석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이다. 지석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춤’을 추는 것이었다. 청각장애인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결국 이러한 나의 느낌도 ‘넌 장애인이니깐 안돼. 남들과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거야.’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반성했다. ‘도와주겠다’, ‘불쌍하다’, ‘불편하겠다’라는 말들은 지석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동정들이 지석의 마음의 벽을 더 쌓아 올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긴, 조금 불편한 것뿐인데 거기에 자신들의 감정과 연민을 멋대로 붙여 판단하는 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그냥 나 자체로, 신체나 외모로 감점이나 이점을 받는 일 없이, ‘나’로만 평가받는다는 게 어찌면 세상의 ‘지석’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 드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와 그다지 다를 게 없다. 청아는 이러한 지석을 이해해 주고 자연스럽게 대했다. 지석이 불쌍해서,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보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다. 동정이나 연민 따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팔찌를 파시던 할머니는 지석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간절한 소원을 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원은 청아의 마음속 ‘용기’가 되었다.

특별한 ‘우대’보다는 평등한 ‘대우’

결국 사회가 만든 차별이라는 막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춤을 추는 지식의 모습을 볼 때는 내 마음까지 벅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공연할 때의 지식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일부러 노래를 크게 틀어준 것도, 앞에 실시간으로 가사가 떠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장애는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리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가능과 불리한 몇 글자 차이지만, 그 속의 가능성의 차이는 크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특별한 ‘우대’가 아닌 평등한 ‘대우’인 것 같다. 누구나 남들보다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는 것처럼, 장애로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특성의 차이일 뿐이지, 이 차이가 사회적 지위로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구리 갈매중학교
1학년 강지은

EBS 인강을 보고 있을 때, ‘자막’ 기능을 발견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영상에 있는 자막 기능. 그때 엄마와 짧은 대화가 오갔다.

“엄마, EBS에도 자막 켤 수 있어, 몰랐네 신기하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야”

그 말을 듣자 문득 ‘자막 기능이 없으면, 청각장애인은 불편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엔 장애인을 고려한 것들이 널리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어색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많다. 나도 그중 하나이다. 나의 생각이 드러난 작은 행동이, 장애인의 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인 지석이의 생각이 들리는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 먼저, ‘소원을 들어주는 팔찌’를 파는 백발 할머니. 지석이와 백발 할머니를 보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알 수 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일반적인 시선’이다. 먼저 다가가 주진 못해도, 마음속에서 평범한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많은 깨달음을 준 대사 중 가장 인상 깊은 대사는, 지석이의 속마음인 ‘장애 내세워서 점수 판다는 소리 듣기 싫어.’이다. 나 역시 지석이의 수행평가 조건이 불공평하다 느꼈다. 하지만, 앞서 청아의 ‘우리 좀 특별하잖아’라는 대사에서, 내 생각의 잘못됨을 자각했다. 몇몇 장애인은 혜택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만이 받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석이는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한정되어 있어 노래를 부르기 어렵다. 이처럼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청아의 말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다졌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석이와 그의 엄마와의 관계이다.

엄마는 무의식중에 지석이와 비장애인을 비교한다. 실제로도 장애를 극복해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많은데, 지석이의 엄마는 그의 꿈을 물어버리기 바쁘다. 이 점에서 지석이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바라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장애인의 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다행히도 후반부로 갈수록 둘의 관계는 대조적이었던 모습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변화가 이 드라마의 따뜻함과 앞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세 번째 포인트는

‘콜아웃 댄스동아리’이다. 지석이의 장애로 인해 콜아웃에는 다사다난한 일이 일어난다. 중요한 대회의 준비 과정, 그리고 당일에서까지 위태로운 모습이 비친다.

처음에 차가웠던 멤버들의 태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 격려하고, 사과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석이는 본 무대에서 청각 보조 장치인 와우가 빠지는 사고에도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장애인의 실수를 타박하지 않고, 힘을 북돋아 주는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지석이가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 청아는 ‘안 망했어’라고 말해준다. 자칫하면 지석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난 안되나 봐’라며 꿈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을 탓하며 포기하는 게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용기를 낸 지석이가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포인트는 장애인의 감정이다. 나는 이 점을 이 드라마가 독특하고 흥미롭게 다뤘다고 생각한다.

보통 소셜 미디어나 책에선 장애의 편견을 깨고 꿈에 도전하는 성장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선 그것과 함께 청소년의 길을 걷고 있는 지석이의 풋풋한 사랑도 담아냈다. 드라마 속 ‘비장애인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라는 표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랑 면에서 그려진 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졌단 이유로 그런 감정들마저 안 된다 여기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지석이와 청아처럼 수어를 쓰거나 어두운 밤 손전등 기능으로 입모양을 비추는 등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간다면, 그 선을 지워낼 수 있을 것이다.

공부에만 몰두하던 청아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던 지석이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일어나는 변화를.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각기 다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때, 현실 사회에서도 작은 손길이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주제를 모아놓은 듯해 마음에 와닿았던 엔딩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콜아웃 멤버들은 마치 한 몸처럼 춤을 추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똑같은 존재, 하나라는 메시지를 명쾌하게 전한 것 같다. 또, 장애가 있어도 좋아하는 일인 춤에 몰두하는 지석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라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준다. 늘, 동등한 시선에서,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지석이에게, 지석이가 쫓던 춤이자 영화의 제목을 크게 외쳐주고 싶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울의 틀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지석아, 우리 ‘함께’ Let’s Dance”

이해의 소중함

칠곡 석전중학교
3학년 정서영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주인공 김지석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동정과 관심을 꺼리면서도 장애를 티 내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짜증을 냅니다. 장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는 비장애인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자신을 비장애인과 같이 대우해 주길 바라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개그 소재로 쓰는 코미디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희화화하고 유머로 삼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지만,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가 유머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한 주제에 대해 백 명의 사람이 있다면 백 개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도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 지석처럼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렛츠 댄스’의 주인공 지석과 청아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석은 청아를 ‘괜한 동정을 하는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고, 청아는 지석에게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고 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해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장애인식개선, 만들어가요

광주서광중학교
2학년 백은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보았다. 청각장애인의 마음, 생각이 들리는 주인공과 청각장애인의 이야기였다. 청각장애인 지석이는 한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고 소개를 할 때 인공와우에 대해 같이 소개한다. 이때 지석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말해버린 선생님의 결정이 지석이에게 매우 당황스럽고 조금은 화도 났을 것 같아 지석이가 불쌍했다. 계속 지석이를 배려해 준다는 이유를 말하며 인공와우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선생님을 보며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았다. 여주인공인 청아가 지석이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석이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다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청아라도 지석이의 마음, 생각을 알고 말해주는 게 마음이 따뜻해서 보기 좋았다.

청아가 지석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니 지석이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미인 춤도 공유하고 속마음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장면에서 내가 뿌듯해졌다. 새로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춤으로 관심받게 되는 지석이가 인공와우로 주목 당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 느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지석의 장애를 나쁘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장애는 욕먹을 게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니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을 좋지 않게 놀리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참는 지석이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도 장애는 나쁜 것이 아니고 놀림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만약 놀림을 당했을 때 느낄 장애인의 기분을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진정한 마음은 알 수 없었다.

또한, 그런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하고 이 소감문을 적으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에는 이 영상은 시청하고 소감문을 적는다는 말에 하기 싫다는 부정의 마음이 컸다. 그러나 장애인식개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알찬 시간이라고 느꼈다.

우리 학교에 지석이 같은 친구가 전학을 온다면 청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고 만약 상처를 받았다면 좋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장애인식에 대해 좋지 않게 인식하던 사람들은 옳은 인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좋은, 옳은 인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렛츠 고!’

대구 유가중학교
3학년 한채현

드라마 ‘렛츠 댄스’를 통해 저 역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거리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속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작은 배려와 공감의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렛츠 댄스’가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제게 ‘렛츠 댄스’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마음을 울린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싶은 일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을 대할 때 불필요한 동정이나 거리 두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나 일상에서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본다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보려고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관련 책이나 TV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쌓이면 그만큼 편견도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고,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심코 상처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도울 기회를 지나치지 않거나, 교내에서 시각장애 학생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정한 집단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투,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감정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렛츠 고!’

앞으로 저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렛츠 댄스’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고, 함께 웃고 춤추는 세상은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렛츠 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 그들에게 진정으로 닿길 바라는 나의 꿈

인천 용현여자중학교
3학년 전근영

학교에서 난 수어 동아리 부장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대로 된 수어를 접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어를 취미로 배우고 동아리까지 들어가게 됐다. 부장이 된 지 몇 주 안 됐을 때,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내게 백일장을 알려주셨고, 나가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랫츠 댄스는 공부에만 관심 있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의대를 노리고 있는 학생 청아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전학생 지석이의 마음을 듣게 되면서 생기는 일을 담은 드라마이다. 지석이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청아가 자신을 신기해 하거나 불쌍히 여겨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차갑게 대한다. 하지만, 후에 지석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청아가 지석이의 불편함을 하나씩 알 듯 모르게 챙겨주며 지석이도 점차 청아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다가 음악 수행을 같은 조를 하게 되고, 서로 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서로 끌어웃이라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간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라는 긴장감 때문에 지석이가 기절하게 된다. 병원에 있으면서 지석이는 정말로 청아가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평범하게 봐주고 자신도 자신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다.

이 영상을 보며, 난 나의 꿈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난 어릴 때부터 수어를 접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자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난 ‘내가 저 사람처럼 못 들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저 사람처럼 앞이 안 보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말을 못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래와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상을 접하게 되고 나서, 어릴 때 했던 생각들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지석이처럼 못 들었다면, 나는 과연 지석이처럼 하고 싶은 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상의 끝을 보고서야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장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 난 내가 원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난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사회에 들어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 겸 장애인이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게 다루며 오해와 편견을 깨는 소설가가

그들이 원하는 소원, 그들에게 진정으로 닿길 바라는 나의 꿈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흔히들 나의 꿈에 대해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일 것이다,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백일장을 하게 되면서 나의 생각은 다시 한번 단단해졌다. 만약 나 한 사람만이라도 장애라는 편견과 오해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시선을, 그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그들에게 포함되는 차별을 없앨 수 있다면, 돈은 못 벌어도, 그만한 뿌듯함과 행복함을 대신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나의 꿈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게 만들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일하거나, 장애인의 사회에 들어간다거나, 장애인의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나, 쉬운 다짐이 아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자격이 따르고, 그에 따른 일들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창작물을 쓴다는 건 그만큼의 자신감과 지식이 따르는 일이다. 내가 겪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사전 지식과 자신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에, 난 비장애인이기에 더욱,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게 장애인을 주제로 한 모든 창작물이다.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듯이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해 완벽하지도 않은 설명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마냥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작은 호의라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위한 작은 호의는 어쩌면 그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대하고, 같이 어울려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호의일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지석이가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빈다. 난 그 문구를 보고 생각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이 날 대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장애인도 우리가 그들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그제, 모든 장애인의 소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렛츠, 함께!

전주 호성중학교
3학년 김주향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기준으로 나누어진 두 아이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것 같은 두 아이는 춤으로 하나가 된다. 드라마 ‘렛츠 댄스’ 이야기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 청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힘든 소녀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청아 곁에 춤을 좋아하지만 청각장애를 가져 좌절하는 소년 지석이 나타난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청아는 그의 속마음이 들리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출 기회까지 생기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며 ‘장애’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짧지만 이제껏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힘들겠다’, ‘아프겠지’, ‘도와줘야 하나?’, ‘불쌍해....’와 같은 생각들을. 그리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생을 살기에 꽤 힘들 거라고. 장애 때문에 바로 그 장애 때문에.

하지만 장애는 불행한 것도, 불쌍한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었다. 진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럴 거라 단정 짓는 편견과 시선, 그리고 마음속 장애였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지석이뿐만 아니라 청아도, 지석의 엄마도, 청아의 엄마도, 청아의 친구들도,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존재하고 있었다. ‘할 수 없다’, ‘못할 거다’, ‘불행하다’ 같은 마음속 장애는 커지고 커져 인생에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장애인, 장애인으로 나눌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장애인이기도, 아니기도 했다. 그러니 장애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장애는 당연한 것이었다. 특별히 챙겨주고 다르게 보아야 하는,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 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한 것 말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장애보다 사람들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속 장애가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었다.

이 드라마는 말한다. 마음속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속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밀어 준다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해 준다면 어떤 장애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장애를 겪는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고, 장애 따위 모두 집어던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해 주겠다고 말이다. 우리 모두 렛츠, 함께다!

지석이의 소원

제주중앙중학교
2학년 문성원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불편함도 다른 것 같다. 나는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헤드셋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는 주변에 바람 소리를 듣고, 풀벌레 소리, 음악 소리, 새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등 즐겁고 안전하게 해주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살아온 것 같다.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도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셨다. 매우 불편하셨을 텐데, 할아버지께 따뜻한 위로도 못 해 드렸다. 그리고 이 드라마 ‘렛츠 댄스’를 보면서 청각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 지석이는 청각장애로 인해 인공와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이었다. 지석이의 청력은 100% 손실된 게 아니라서 인공와우로 음역대에 차이는 있지만 들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지석이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댄스동아리 활동을 하는 멋진 남학생이었다. 땀나도록 춤을 추는 모습이 매우 행복해 보였다. 지석이의 같은 반인 청아라는 친구가 나온다, 처음에는 지석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지만, 할머니의 소원 팔찌로 인해 지석이의 마음이 들리게 된다. 하지만 지석이는 그 관심이 자신을 신기하고 불쌍하다 여겨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불쾌한 마음을 표현한다. 나도 지석이의 입장이 조금 이해되었다. 우리는 장애를 조금 신기한 듯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후 음악 수행평가 시간에 지석이는 청아의 관심이 자신을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 아마도 청아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춤도 추고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사이가 돈독해진다.

댄스동아리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전단지를 본 지석이 엄마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임을 왜 하나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장애 때문에 보상도 못 받는다면 댄스 페스티벌에 나가는 걸 심하게 반대하셨다. 상처받을 아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석이는 생각이 달랐다. 보상을 받을 필요 없고, 항상 장애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엄마라며 서러움을 이야기한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가끔 부모님과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속상했던 적이 있다. 가족이라서 서로 사랑해서 그런 것 같다. 지석이도 지석이 엄마의 마음도 알 것 같다. 서로 걱정스러운

마음인 것 같다. 결국 지석이는 노력 끝에 무대에 서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대회 당일 인공와우가 의도치 않게 충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무대에 선 지석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쓰러지게 된다. 근처 병원으로 간 지석이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청아가 팔찌에 조각을 넣으면서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졌으니 너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용기를 주었다.

지석이는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소원을 빈다. 그 소원이 얼마나 지석이에게 간절했는지 모른다. 다시 공연이 시작되고, 멋지게 춤을 추는 도중에 인공와우를 떨어뜨리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연습해왔던 걸 멋진 모습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모두가 지석이를 응원해 주었다. 마지막 장면이 나에게도 감동적이었다. 지석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도 장애를 가진 친구를 혹시 만나게 되면,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 속 지석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청아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이해하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다름을 이해하는 일

화성 송산중학교
3학년 김요셉

삼성화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렛츠 댄스’는 청소년들이 장애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시청자 스스로 장애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청각장애를 가진 전학생 지석과 그를 둘러싼 학교 친구들, 특히 댄스를 좋아하는 동급생 청아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서먹했던 둘의 관계는, 청아가 지석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청아는 지석이 세상과 단절된 듯 느끼는 외로움, 소통의 벽에서 오는 답답함을 직접 체험하고, 그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키워갑니다. 이 변화는 곧 우정으로 이어지고, 둘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진짜 친구가 되어 갑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다름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감성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석은 말하지 않아도 춤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청아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어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우정은, 보는 이의 가슴을 조용히 울립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이해란, 상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렛츠 댄스’는 누구나 불편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 수어, 장면 해설을 포함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배려는, 드라마의 주제와도 꼭 맞닿아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시청 환경에서도 모두를 위한 콘텐츠로 완성된 것이죠. 또한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이채연, 지석, 김동한 등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면서 몰입감을 높이고,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화려한 춤과 생생한 연기가 어우러져,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뒤, 나는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다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불편함을 이유로 관계를 피한 적은 없었을까. 렛츠 댄스는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 주었고, ‘이해’와 ‘배려’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태도만으로도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렛츠 댄스’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보고, 함께 느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춤과 미술, 꿈을 향한 도전

밀양 동강중학교
2학년 최민서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렛츠 댄스’를 보면서 나는 춤이라는 매개체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를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마의 주인공 지석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춤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지석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도 부족했지만, 춤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지석과 청아를 비롯한 친구들이 함께 댄스대회를 준비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춤을 함께 추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춤이라는 것이 단지 즐기기 위한 활동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지석이와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출 때 장애라는 단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우정을 쌓게 해주는 소중한 수단이었고,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보는 내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나와 똑같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지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용기를 얻는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나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미술을 정말 사랑하고 장차 훌륭한 화가 또는 시각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드라마 속 지식의 모습을 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 미술에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임을 깨닫게 되었다.

‘렛츠 댄스’는 단순한 ‘장애인식개선 드라마’를 넘어 나에게 도전과 열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려주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 드라마 덕분에 나는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소원

광주서광중학교
3학년 조유리

‘렛츠 댄스’. 이제부터 이 영상에 대한 내 감상을 영상 속 등장인물의 소원에 발맞춰 찬찬히 거닐며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발자국, 백발 할머니의 소원. 백발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소원 팔찌를 팔고 계셨다. 그 팔찌를 밟고 넘어진 후 청아는 전학 온 지석의 속마음이 들리게 되는데 청아는 그 이유가 소원 팔찌에 있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곤 백발 할머니의 소원을 듣게 된다. “내가 그 소원을 빌었거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도했지.” 청아가 밟고 망가진 팔찌가 할머니, 흩어진 팔찌 조각을 주운 지석. 그리고 청아를 이어주었나 보다. 수어를 알아볼 수 있는 지석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청아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린 것을 보니 말이다. 할머니의 웃음도, 청아의 웃음도, 할머니와 청아 곁에서 파스스 파스스 소리 내 웃는 푸르른 나무도, 장애인도, 비장애인으로. 생명 깃든 모든 것의 웃음은 한없이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발자국, 지석의 소원. 지석은 백발 할머니와 같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석의 소원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지석은 어느 날 엄마와 대화하다가 갈등을 겪는다. “수어 쓰지 말랬지!”, “비장애인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어? 청력 떨어지면 어쩌려고...” 지석은 엄마에게 수어로 “얘기하기 싫어요!”라고 말하지만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엄마는 수어로 말하는 아들을 이해한 것 같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한 곳은 정말 말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그래서 답답했을 마음이 크게 울리는 것만 같은 장면이었다. 영상에서 지석은 소원을 빌 때 ‘오늘도’라는 표현을 쓴다. ‘오늘도’에는 지석이 그 소원을 빌었을 긴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 지나감에도 변하지 않았을 ‘오늘도’ 그런 지석에게 전학 후 만난 청아는 매우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 청아는 팔찌에 빈 소원 때문에 그저 ‘속’마음이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점차 ‘진짜’ 마음을 알아주게 되었다. 나 또한 이제는 지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것일까? 등 돌리고 설명하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등을 돌리고 ‘잘 들리니?’ 물어보는 선생님. 나도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인공와우 쓰면 다시 다 잘 들리는 줄로만 알았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 탓에 지석의 소원의 ‘오늘도’가 더 길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 나도 조금은 지석을 더 이해하고, 지석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세 번째 발자국, 청아의 소원. 청아의 잊고 있었던 소원. 그것은 바로 백발 할머니, 지석과 같은 소원인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청아의 소원은 지식을 만나며 이루어졌나 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통한다는 건 착각이야” 청아는 이 말이 틀렸음을 지식에게 증명해 주었고 지식 또한 청아에게 그러하였으니까. 마지막 발자국,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내가 다른 이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는 것이다. 영상에서 “보상 안 받아도 돼, 좋아서 한 거니까”라는 말이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감상문은 지식이 나에게 준 감동의 소원이다.

나도 지식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때문에 나는 지식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사랑하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것들을 옹계 쓰고 싶다. 따라서 일상 속에 녹아있는 장애에 관한 잘못된 표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나부터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여 잘못 쓰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위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찾아보고 배울 것이다. 나도 일상 속에서 청아 같은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지식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것이다.

청아는 지식이 학교생활을 하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알고 도움을 주려 힘쓴다. 예를 들어, 칠판 말고 학생을 보며 수업해 주시기를 선생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지식도 불편함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애쓰신다. 이처럼 다른 이를 돕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 속 백발 할머니는 소원 팔찌를 곳곳으로 전하신다.

영상을 본 우리도 각자 마음에 팔찌 하나씩 받았을 것이다. 파랑(靑) 팔찌로 연결되어 ‘나의 소원’ 빌 이들의 영향이, 마음이, 행동이, 배려가 파랑(波浪)처럼 멀리멀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본다. 여러분의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이 수많은 지식의 ‘오늘도’가 끝나도록 하는, 수많은 백발 할머니와 청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빛나는 소원이기를. 많은 이들이 그런 소원을 비는 날이 멀지 않았거든.

‘렛츠 댄스’ 방송소감문

하노이한국국제학교
8학년 김주혁

나는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왼쪽 귀의 청각이 손상된 장애인과 다름없이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살며 한쪽 귀가 마비된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깨달아 왔다. 귓속말이나 작게 말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없었지만 친구들은 그런 나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 한쪽 귀가 마비된 것도 불편한데 귀 두 쪽이 모두 들리지 않는 것은 나도 괴로울 것 같았다.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나만 평범하지 않을까?”, “나도 귀 두 개로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갖가지 장애들이 존재한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하반신마비. 나는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청각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곱디고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영상 속의 지석기도 와우를 사용하며 배터리가 소진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지만 옆에서 같이 있어준 청아 덕분에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은 옆에 누가 있어주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국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장애인을 사랑하며 비장애인 취급만 해주어도 그들에겐 세상을 다 가진 사람 못지않을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 나를 평범하게 생각해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한다. 꼭 장애를 차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자. 그들의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그럼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모두 행복하게 자신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깨우는 다름

하노이한국국제학교
9학년 황윤서

1교시 우리가 시청한 영화의 제목은 ‘렛츠 댄스’였다. 영화의 제목을 보면 그저 춤을 추자고 친구들끼리 권유하는 내용이 상상되지만 영상 시청 후 보니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춤을 추자는 제안을 거리낌 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럼 제목에서도 암시하듯, 사람들이 장애인과 대화할 때나 권유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사람이며 비장애인 중에서도 모두 다른데 왜 장애인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걸까? 어느 정도 장애라는 말 때문인 것 같다. 장애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애라는 단어로부터 큰 벽을 느끼는 듯하다. 나 또한 친구가 장애가 있다고 소개한 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장애라는 말에 집중이 되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비장애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이 만들어낸 장애인의 ‘틀림’ 때문인 것 같다. 세상에서 맞고 틀리다는 말은 수학 문제를 풀 때뿐이지 사람에게 맞고 틀리고 뭐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을 지키고 싶은 것 같다. 말을 할 때, 걸을 때, 연필을 잡을 때 등 좋은 성과를 내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름 대신 틀림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로봇처럼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들로 장애인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나 물체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대부분 알 것이다.

자신도 언제 어디서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장애인을 어렵게 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도우려 노력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다름의 기준이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와 친구들, 학생들부터 시선을 고치고 먼저 다가선다면 우리의 다름은 세상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중학생

웹툰
부문

무제

남양주 도농중학교
1학년 변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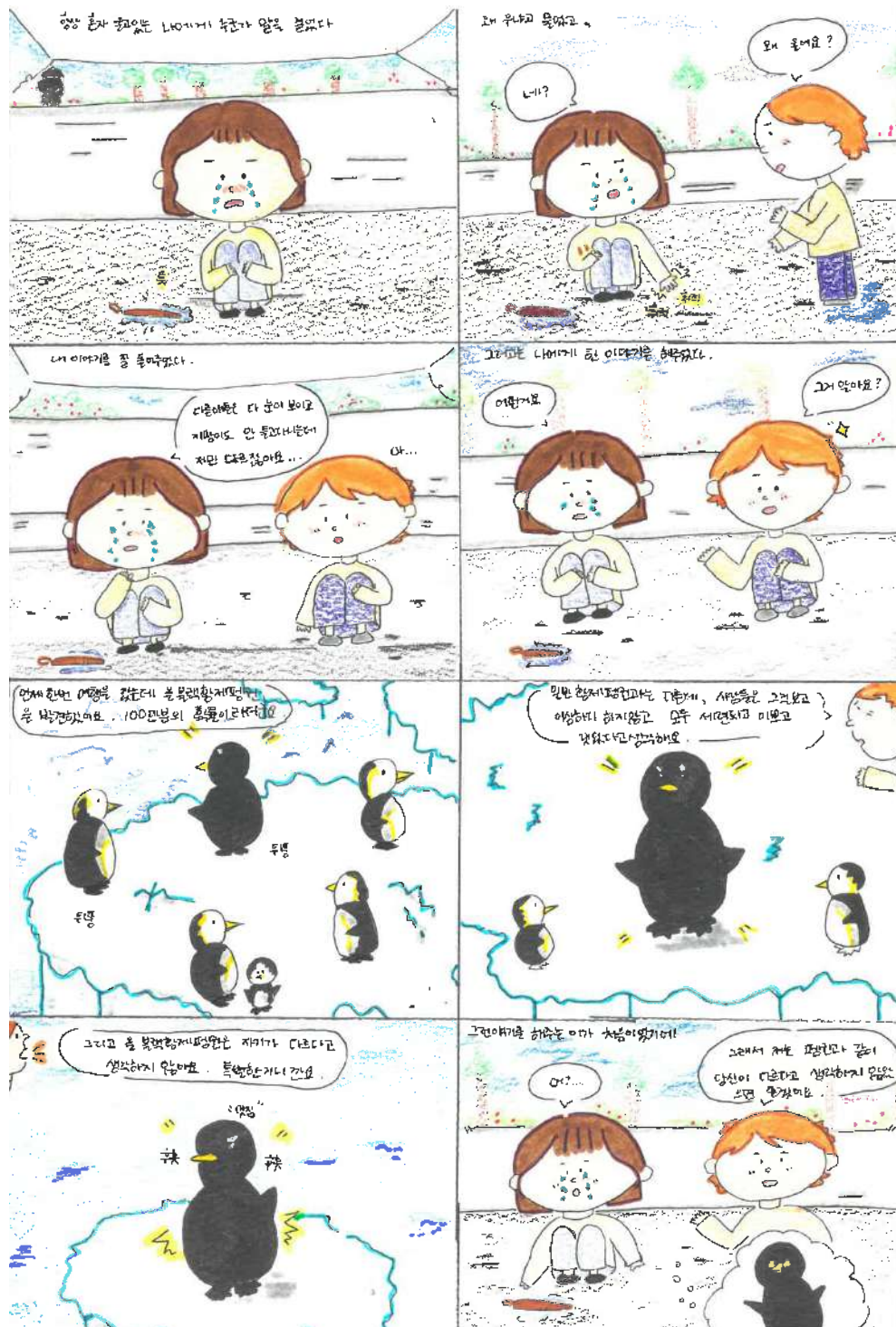






다르다는 것

광주 치평중학교
3학년 김정은





내가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2학년 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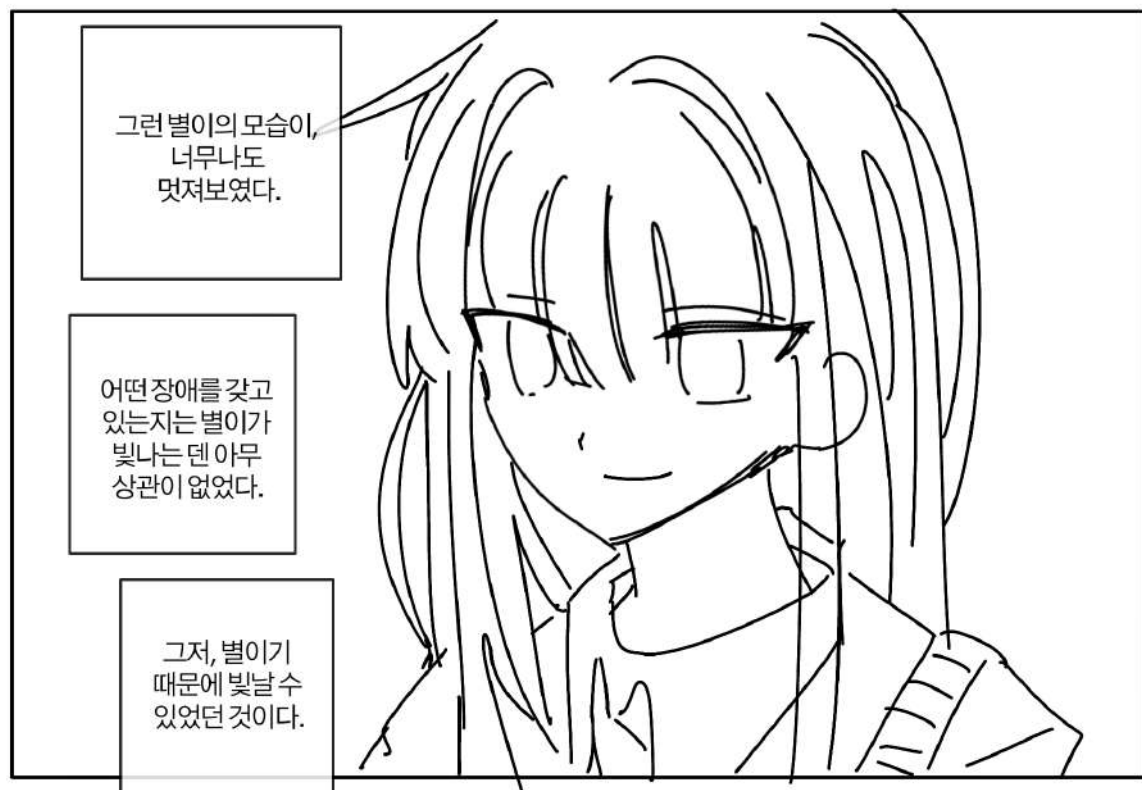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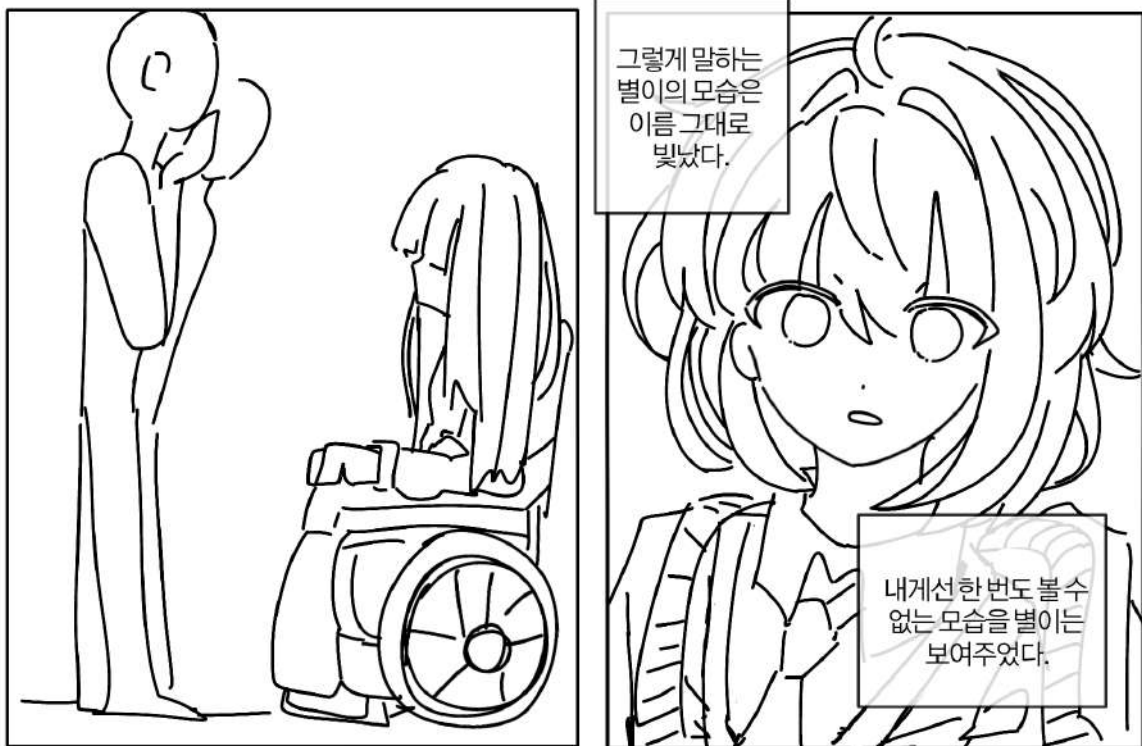


별처럼 빛나는

부산국제중학교
3학년 김민솔











행복한 미래로!

서울 중암중학교
1학년 임은재





보이지 않아도, 꿈은 보여요

여수웅천중학교
1학년 김소울



출처: <근대 장애인사>



세종대왕
- 시각장애인
(2급 정도)
(1397 ~ 1450)



원균
- 뇌전증
(1464 ~ 1526)

원균을 정1품
정승으로 등용하노라.
- 중종

원균은 실력이 있는 자이다.
등용할 터이니 그리 알게.
- 중종

아니 되웁니다, 전하.
- 신하 일동

명..., 받들겠습니다.
- 신하 일동.



숙종 (1661 ~ 1720)
- 시각장애인
(완전히 실명)



체제공
- 사시
시각장애
(1720 ~ 1799)



순종
- 자폐증
(1874 ~ 1926)



**유도선수
이정민**
- 시각장애
(1990 ~)

나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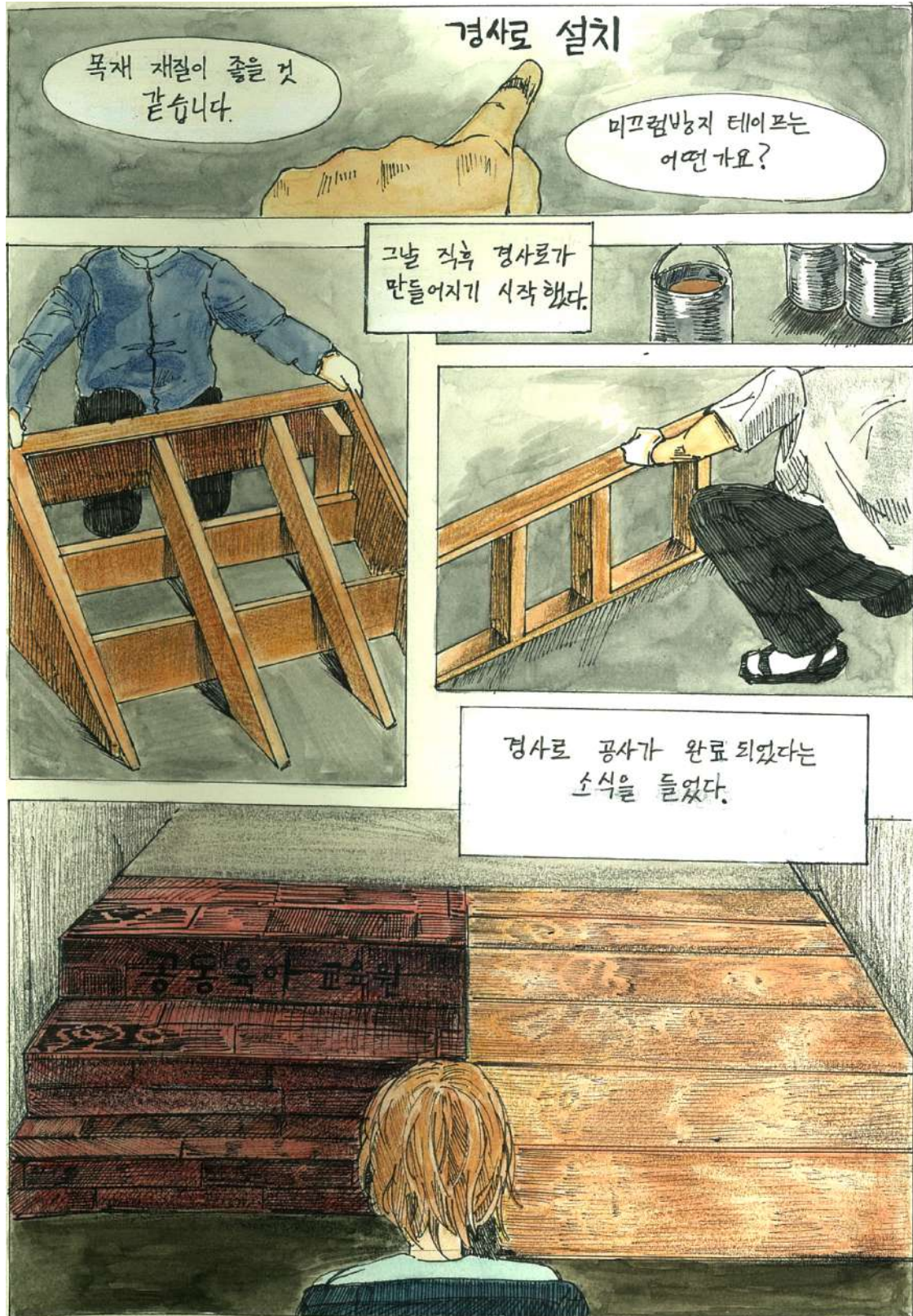


함께 여는 행복한 길

천안 성환중학교

2학년 박서현







꽃은 꽃이다

고양 지도중학교
1학년 정수안



만약 내가 눈이 안보인다면
안내견의 도움을 받으면되고,

귀가 안들린다면 보청기를 이용해
조금라도 소리를 들을수있다



다리가 불편하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면되고,



손가락이 없다면
의수를 쓸수있다



우리는 이들을 피해야 할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대해줘야한다

난

부천 소사중학교
2학년 김지유





편견 없는 우리들

용인 문정중학교

2학년 이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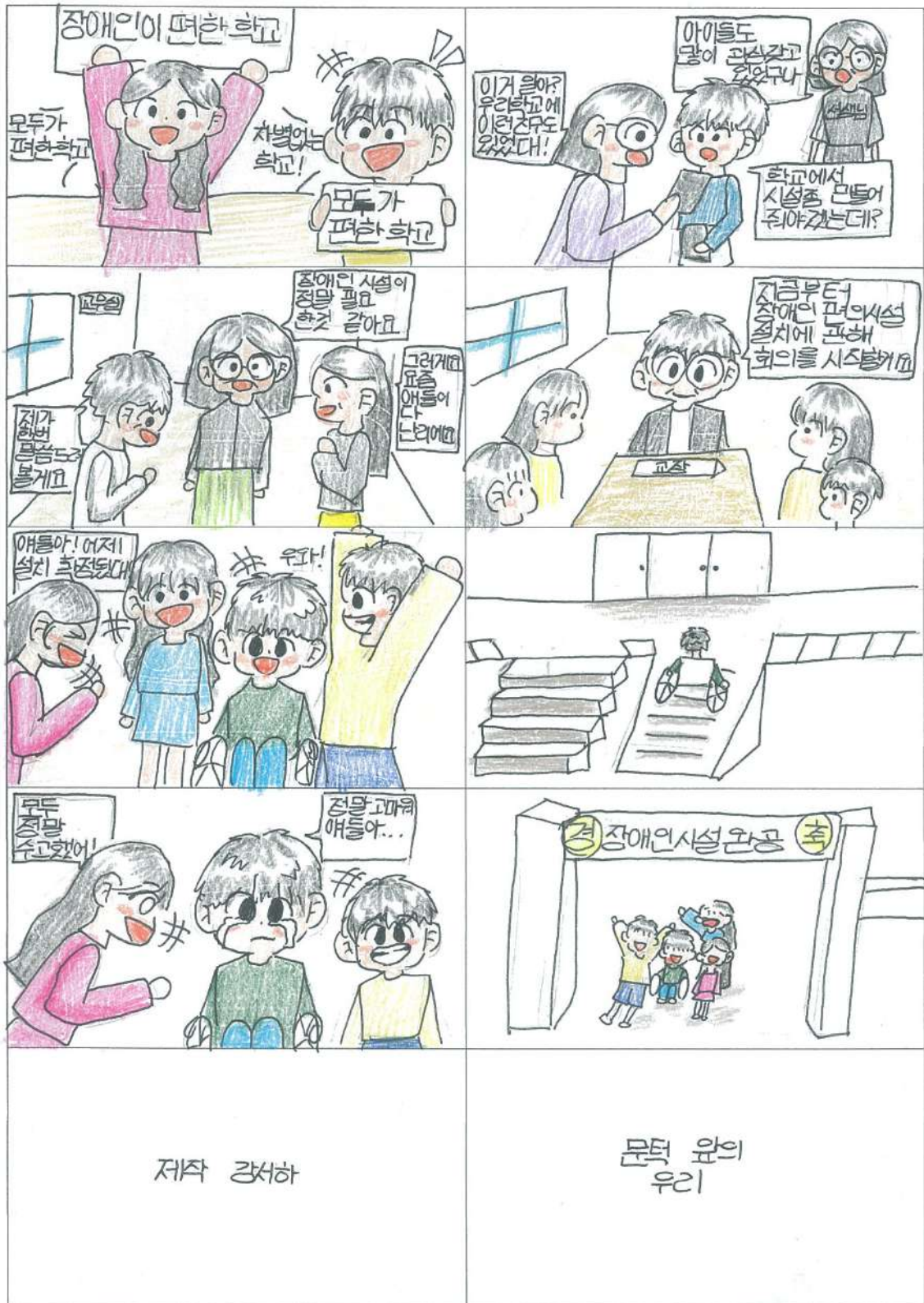




문턱 없는 우리

김해 가야중학교
2학년 강서하





우리들의 마을

경산 삼성현중학교
1학년 송유진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고등학생

시
부문

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찬결

나는 어렸을 때 자동차를 좋아했다.
내 꿈은 레이싱 선수였다.

바람을 가르고 트랙을 달리는,
핸들을 돌리며 커브를 도는,
내 모습을 꿈꿔왔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은 나에게
그리 가지고 싶던
자동차를 선물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온 친구들은
괜찮냐며 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이야기하셨다.

“레이싱 선수는 힘들겠지만,
다른 멋진 일도 훨씬 많을 거야.”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나를 무너트리기에는
너무나도 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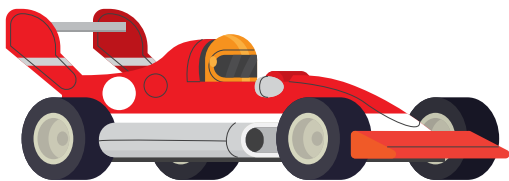
그 후로,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TV를 켰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트랙을 달리고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포기했던,
꿈을 되찾았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
괜찮다.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자동차를 좋아한다.
내 꿈은 레이싱 선수이다.



네 세계는 빛으로 말하지 않아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현아

너는 말했지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하늘이 어떤 색인지
온 세상을 감싸는 저녁노을이 어떤 색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나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내겐 너무도 당연한 풍경이
너에겐 상상으로만 피어나는 거라니

하지만
너의 손끝이 닿는 공기엔
내가 보지 못한 빛의 여운이 퍼져있었고

너의 걸음이 멈추는 자리엔
내 눈엔 없던 조용한 빛이
숨 쉬고 있었어

너는 보지 않아도
느낄 줄 알았고
나는 보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문득 알게 되었어

우리 둘은
같은 세상을 걷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언어로
그 아름다움을 읽고 있었던 거야

오늘 나는
너의 세계에 잠시 머물렀고
눈을 감은 채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어

그리고 알게 되었어
진짜 ‘본다’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걸



너의 속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3학년 이채연

세상은 늘
빨리 가는 것만을 칭찬했지
하지만 너는
천천히 걸으며
나에게 멈춰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
햇살이 머무는 시간,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너는
진짜로 '사는' 사람이야
너의 속도는 느린 게 아니야,
깊은 거야



미안해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1학년 박주영

반에 들어왔을 때
너를 처음 보고 당황해서
미안해

네가 날 쳐다볼 때
눈을 피해서
미안해

혹여나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너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미안해

너도 나와 같다는 걸
잊고 있었어
미안해

지금처럼
멋지게 너를 보여줘!
고마워



춤이 말을 걸다

사천 삼천포공업고등학교
3학년 이범희

처음 마주친 너의 눈빛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듣는 귀는 있었지만
너의 침묵은 듣지 못했다.
너의 손짓, 너의 걸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보고
말없이 마음을 나눴다.
서툴게, 하지만 진심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지

그 춤은 다름을 넘어서
같음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는 점점 닮아갔고
서로의 세상에 스며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심은 말보다 깊고
춤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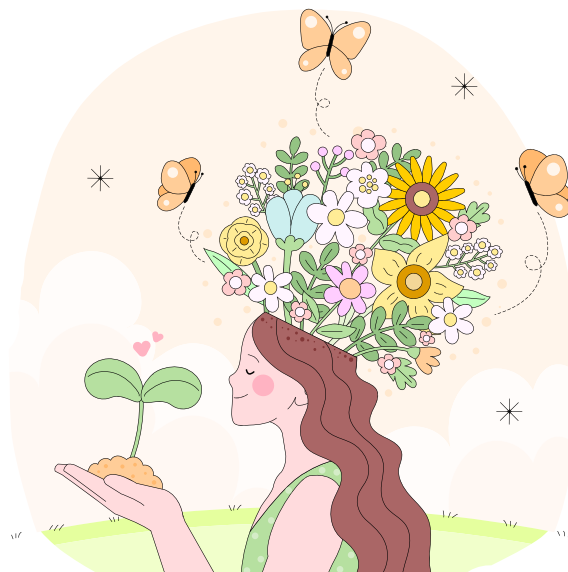
고요의 언어

수원 숙지고등학교
3학년 김용한

세상은 늘 소리로 말하지만
나는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인다.

바람이 부는 소리 대신
나뭇잎의 흔들림을 읽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입술의 곡선을 따라간다.

너의 목소리는 듣지 못해도
너의 마음은 들린다.
우리의 대화는
소리 없는 음악처럼
가슴 깊이 울린다.



나는 나로 살아간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예

거울 속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비껴간 그림자

누군가의 안타까움 속에서
내 존재는 자주 미완성으로 불린다.
걸음은 느리고, 말은 더디다.
손끝으로 세상을 만지기엔
세상은 너무 바쁘게 흘러간다.
나는 뒤쳐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

“불쌍하다”라는 말은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조용히 찌른다.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웃음 뒤엔 눈물이 있고
침묵엔 외침이 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 위에
나는 오늘도 나를 일으킨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내 세상은 여전히 찬란하다.
비록 다르더라도
나는 너와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한걸음, 더 가까이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이나경

가끔은

혼자서 걷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

마음은 지치고, 발끝은 무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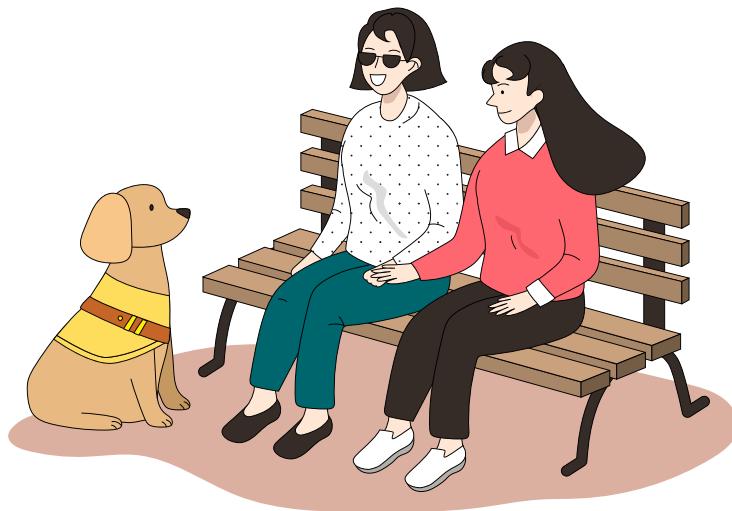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

그럴 땐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그저 네 손을 살짝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어줄게.



모두가 아름다운 꽃이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임서현

우리는 말했다.
앞이 제대로 피지 못한 꽃은
아름답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보았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꽃도
있는 힘껏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앞이 제대로 피지 못한 게 아닌,
다른 개성으로 피어난 것일지도

너의 미완성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고등학생

산문
부문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충남 논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구은아

“너 말이야, 그 동아리엔 왜 들어간 거냐, 너랑 관련도 없잖아.”

승민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승민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빛이 어두웠던 시야를 걷어내며 눈을 찔러대는 바람에 눈이 자꾸만 찌푸려졌다.

“그냥 시끄러운 게 싫어서.”

내 시원찮은 대답에 승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고등학교 동아리를 고작 그런 이유로 정해도 되는 거냐며 연신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유독 시끄러운 걸 싫어했다. 복도에서 울리는 웃음소리, 목소리가 전부인 줄 아는 아이들까지.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 들었다. 조용한 세상이 되는 것.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랐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던 하루였다. 시끄러운 장소를 피해 조용한 교실을 찾아다녔다. 그때 유독 조용한 교실 앞에서 멈춰 섰다. 문 앞에는 ‘수어 동아리’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나는 작은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모두가 책상에 앉아 손끝으로만 대화하고 있었다.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을 때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문을 박차고선 나를 향해 걸어왔다. 혹여나 잡은 고기를 놓쳐버릴까 초조해하는 어부처럼 내 손을 낚아채며 말했다.

“우리 동아리에 신청하러 온 학생이니? 여기가 워낙 조용한 곳에 있어서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잘 왔다!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거다” 대답하기도 전에 쏟아진 말들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어 동아리’ 부원이 되었다.

동아리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주로 수어를 배우며 대화하는 게 전부였다. 수업을 듣는 건 귀찮았지만 ‘수어’ 발표 수행평가 때문에 새겨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수어를 배워본 적 없는 나의 손짓은 하나하나가 전부 어색했다. 그런 나를 향해 선생님은 손짓뿐만 아니라 표정도 중요하다고 시범을 보였다. 나는 그런 선생님을 따라 입꼬리를 올렸지만 청각 장애인인 시아의 앞에서 수어를 할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똑딱거리는 내 손과 표정을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찌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시아는 여전히 조용했다. 어쩐지 침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학교가 끝나고 수어를 연습하기 위해 동아리실로 향했다. 자기소개와 꿈에 대해 발표하는 거였는데 아직 인사조차 하기 어려웠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니 시아가 보였다. 나는 괜한 머쓱함에 목덜미를 매만지며 시아의 앞자리에 앉아 수어 책을 펼쳤다. 하지만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손의 움직임은 더 둔해졌다. 시아는 내 행동을 보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었다. 그 뒤로 나는 방과 후 시간마다 시아에게 수어를 배웠다. 시아는 동작을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하며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었지만, 어느새 나는 시아의 손짓 하나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아의 수어는 단지 말을 대신하는 것의 수단이 아니었다. 표정, 시선, 리듬까지 모든 것이 담겨있는 언어였다.

발표 당일, 잔뜩 긴장을 한 탓에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서 지켜보는 이들과 선생님의 시선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시아가 내 앞에서 괜찮다고,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라며 수어로 말했다. 나는 시아의 손 모양을 읽자마자 긴장이 풀렸다. 준비한 그대로 펼쳐낼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나니 시아가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말 한마디 없음에도, 모든 말이 들리는 듯했다. 순간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시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언어는 그 어떤 말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시끄러웠던 소리들이 더 이상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정말 간절했을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한 세상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다. 나와 시아 사이에 다름이 없는 세상, 특별함만이 숨 쉬는 세상,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오직 세상이 더 다채로워졌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내가 꿈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 강일고등학교
3학년 염기홍

특수학급학생을 처음 가까이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입학 때였다. 고등학교 교복은 초·중학생 교복과는 다르게 입시와 바로 직결된다는 생각 탓인지 설렘이나 기대보다는 입시에 대한 두려움 탓인지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책임감이 더 앞섰다.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입학식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5~7명 정도의 조금은 시선을 끄는 학생이 있었다. 특수 학급 학생.. 인문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나? 의아심을 품을 때쯤 휠체어를 탄 학생이 휠체어 바퀴로 내 발을 밟고 지나쳤다. 힐끔 쳐다볼 뿐 너무나 익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강당에 들어섰다. 어! 이걸 뭐지? 입학식 내내 특수학급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크게 떠들거나, 옆 친구의 휠체어를 끌고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는 등 자꾸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으로 시선이 가게 했다.

그 후 내가 대하는 특수 학급 학생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으로 겉으로 내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불평과 부정적 편견 가득한 무시로 일관했다. 어쩌다 특수 학급 학생의 휠체어를 돕거나 급식을 대신 받아주는 선의를 가진 친구들을 웬 오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야? 라는 편협한 시선으로 냉랭하게 그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된 일이 최근에 생겼다. 이번 해에 부모님께서 주일 유아유치부 교사를 지원하시게 되며 발달장애 유치부 학생과 예배를 드리며 일어난 일을 주일 점심때마다 들려주며 생각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어머니가 지원하신 유아 유치부에 지적 능력이 조금 낮은 장애인과 발달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유치부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예배가 끝이 나고 돌아온 엄마 손등은 꼬집힌 자국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나기도 하고 얼굴과 목, 등은 10cm가 넘게 굵힌 선명한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한번은 머리끄덩이가 잡혀 머리가 한 움큼 뽑혀 오시기도 했다.

우리 엄마는 굉장히 엄하고 무섭다. 내가 삼 남매인데 조금이라도 말싸움이 격해지면 엄마는 절대 봐주는 분이 아니었다. 작은 몸싸움에 한두 번 치고 밀기라도 하면 그날은 지독할 정도로 잔소리와 훈육에 온 시간을 뺏길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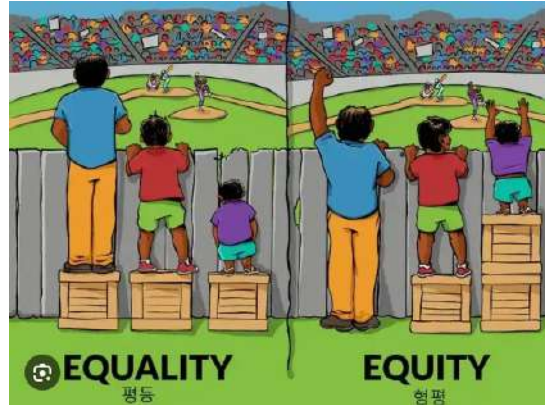
이 정도 상처면 누구랑 싸웠나? 엄마가 맞았다고? 아님 그 친구들은 엄마보다 더 한 상처가 있나? - 처음엔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엄마는 상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대신 발달장애인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하시기 시작했다. 또한 직장 내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이 있었다며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교육도 신청하셨다고 하셨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아니!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발달장애인에 대해 엄마가 공부를 하지? 주일 예배엔 엄마밖에 없나? 왜 엄마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지? 교회에서는 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유치부를 예배에 오게 하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피해를 주지? - 궁금증이 화로 바뀔 때쯤 그날 주일예배에 돌아오신 엄마의 얼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치료를 받고 오신 모습이었다.

“엄마! 이제부터 봉사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 부모들이 사과했어요? 치료비는 받았어요? 그 정도면 교회에 오지 말게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날선 질문과 불평으로 짜증이 날 때 엄마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사진 몇 장 핸드폰으로 보냈으니 그거 요즘 유행하는 Chat GPT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 봐..”라고만 하셨다.

사진은 엄마가 말씀해 오던 주일마다 엄마를 꼬집어 상처를 준 유치부 남자아이와 환하게 웃는 엄마의 사진이었다. “엄마가 말한 주원이야. 정말 이쁘게 생겼지. 7살인데 아직도 입에서 젖 냄새가 나. 또래보다 덩치가 작은 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가 봐.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지 아직 전혀 흥미가 없더라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인지 자꾸 바지를 만지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니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화장실만 2번을 갔다 왔어. 화장실 바닥에 갑자기 주저앉아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신발 신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라며 전혀 내 불평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림 하나를 보여줬다. 그 그림은 아래와 같다.



“기흥아! 이 그림 속에서는 공평과 형평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 나는 지금껏 너희들을 키우면서 공평한 기회, 공평한 사랑 등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할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며 키웠어. 그런데, 살면서 공평보다는 형평이 더 중요하고 형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있다는 걸 요즘 배운다. 엄마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니? 너 임신 5개월 때 임신 장애 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태아 뇌실이 1.5CM 이상으로 발달 지연 장애일 확률이 크다며 장애인 출산 가능성에 대해 말했었어. 그 후 2주마다 2번의 검사를 더한 그 한 달이 너를 키우며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는 정말 눈만 떠도 눈물이 나고 세상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의사선생님께 출산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던 게 내 생애 가장 큰 용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 네가 초산이 아니었다면 네가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 때도 똑같은 선택을 했었을지.. 자식을 키워보니 시간에 따라 남들과 같은 발달을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더라. 그런데 그건 내 선택권이 아닌 똑같은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누가 받아서 뜯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흥아! 나는 너를 키우면서 장애인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자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있었어. 그런데 유치부 주원이가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랜덤박스의 선물 같은 선택지를 받지 않은 거뿐인데... 함께 사는 학교. 아파트. 교회. 직장에서 장애인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얼 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까이에 사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란 걸 까맣게 잊고 산 거야.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나서야 한다는데. 그 한 아이가 우리는 비장애인을 말했던 게 아닌가 싶어"라고 말씀하셨다.

망치로 뭔가를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장애인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판정이 났었다고요?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본 우리 학교 특수학생들은 엘리베이터는 우선적으로 타고, 우리 발을 밟아도 사과도 하지 않고, 항상 급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먹으면서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되레 우리에게 욕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해요. 어느 때는 권리가 의무인 줄 아는 애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기흥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 네가 걷는 걸 선택할 거야. 네가 급식을 좀 늦게 먹더라도 네가 먹고 싶은 거 스스로 더 퍼가며 먹는 걸 선택할 거야. 그리고 장애인 친구라고 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야. 정상인은 욕하고 남을 밀치고 가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 조금 불편한 친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고 형평에 맞는 배려 아닐까? 후천적 장애인이 90%래.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근에 허리 수술하시고 장애등급 받으셨고 뇌출혈이나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화난 얼굴로 대꾸하셨다. "그럼 주원이 잘못으로 발달장애인이 된 거니? 그 부모님이 잘못해서 주원이가 장애인인 거야? 너네 학교 특수학급 친구는그래도 비장애인 또래 학생과 충분히 학습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이어서 일반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 부모님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거고..."

그런데 기흥아! 나는 네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했다고 해서 고마워한 적이 없어. 왜 나는 고마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분들은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하니? 물론 나도 편견이 아주 많아. 공격적으로 보이는 장애인이 상동 행동을 한다거나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한 모습을 보면 선뜻 손을 잡거나 가까이하기 무섭기도 해.

우리의 편견이고 사회적 편견으로 편의시설 제공도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장애인은 우리의 호의에 항상 고마워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욕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우리보다 기죽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던 거 같아. 그런데, 누군가 내 자식을, 나 자신을, 내 가족을 그렇게 이유 없이 동정심으로 대하기만 하면서 불쌍한 존재, 본인 요구 표현을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편견으로 대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 조급함을 버리고 장애인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 안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들의 장애가 약점으로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우리와 전혀 다른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장애가 없다는 건 감사할

일이지 내 선택도 권리도 당연한 것도 아니야.

엄마가 어렸을 적엔 여러 장애인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어. 그때는 특수 교육도 없었던 것 같고 기관이나 교육은 더 나빴을 거야. 그냥 그런 친구들이 학급에 있으면 지저분하고 좀 지능이 낮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놀리지 않는 것만으로 놀렸던 친구들보다 나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며 지낸 것 같아. 지금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편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생애 주기에 맞춰 형평에 맞는 공평한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거더라. 혼자서 다 감당하도록 내버려두고 무조건 동정하거나 밀어내기만 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겠니?

너네 학교 특수 학급 학생에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봤니? 말을 걸지 않아도 돼. 네가 사교적인 친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친구들을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진 않았니? 그렇다면 네 문제지 그 친구 문제가 아니지 않니?”라고 말씀하셨다.

엄마와의 대화 이후 장애인 부모님들이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성인 된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내주어 보게 되었다.

물론 이 동영상으로 내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특수학급 친구를 아무 부정적 시각 없이 대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엄마의 말처럼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해서 대학으로 진학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국가에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이어받기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의 경험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실감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개선점과 필요사항이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나에게도 기대한다.

작은 편견이 벗겨지는 순간, 휠체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친구가 보였다. “야! 너 먼저 타.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있어줄게.” 단 한 번도 눈 마주침 없었던 어제까지 낯선 타인이었던 그 친구가 내게 화답했다. “나 타고 너도 타. 공간 남아. 내가 안에서 버튼 누르고 있어줄게” 엘리베이터

내가 꿈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안에서 찬찬히 보게 된 그 친구 어깨는 체육학과를 진로로 삼고 있는 친구보다도 더 단단해 보였다. 온 팔로 휠체어의 무게를 버티고 움직여야 하는 그 친구는 좁은 공간과 한정된 시간에 매일매일 급하게 움직였겠구나! 싶으니 비장애인 위주의 모든 시설물이 불편할 수 없었겠구나 싶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신체의 불편함. 주변의 시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미안함이 밀려왔다.

아주 작은 거부티, 내 주변 장애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봐 줘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주 작은 생각의 편협함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활기분해졌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가르는 편견은 신체. 정신의 불편함이 아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편협임을 알게 되었다.



무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0학년 이하은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 치료사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남들보다 익숙합니다. 또한 중학생 시절 반에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 아이들은 그 애를 망신시키거나, 수업 시간에 이상한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 친한 동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은 동정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하였고,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은근슬쩍 막아주었습니다. ‘렛츠 댄스’라는 드라마도 남들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우라는 기계는 들리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은근한 역차별과 동정,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비장애인을 좋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장애라는 것도 너무나 미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장애인을 배려해 준다면 역차별을 하며, 동정 어린 말을 내뱉습니다. 이 드라마의 청아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격을 느끼고, 남들이 도와준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아는 청각장애인인 지식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지식의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청아의 행동이 지식에게에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며, 그 행동 자체가 동정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친구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청아의 행동 또한 배려가 없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이라 해도 비장애인보다 잘해도 비장애인보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한 와우를 착용한 상태라도 다가가서 놀라게 하는 행위는 배려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드라마가 시각장애를 미화한다고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보다 월등히 지체장애인이 현재 우리나라를 살아가기 더 힘듭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거절당하거나 취업도 제대로 못 해서 알바를 해도 기본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항상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일장도 진정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적어도 시·청각장애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으며, 비교적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일하기 힘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체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줘야 고등학생인 저희가 커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 부당한 대우가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가 대중교통에 올라가기 쉽지 않으며, 취업이 힘든 장애인을 꼬드쳐 염전, 공장 등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말고, 이해하라고만 배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드라마로 미화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주며 대외적 이해와 배려 속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학생 이하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포용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이예나

나는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토요일을 활용해 서울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기초 체육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왔다. 4년간의 봉사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사회가 어떻게 장애인을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질문하게 했다. 활동을 통해 만난 발달장애 아동들은 체육 활동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이 아닌,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구조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는 서울에서의 봉사활동을 넘어 강원도 횡성 지역 거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확장하고자 했다. 지역 내 종합복지관과 협력해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을 때, 복지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학부모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그 현장에서 들은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서울에서는 어렵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도조차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서,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였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조차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형 사회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장애인 체육 및 사회 참여 활동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 및 사회 참여 공간에 장애 아동 맞춤형 시간대 및 프로그램 확보, 특수체육교육 지도사가 지역별로 배치되도록 국공립대 체육교육학과와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매칭 프로그램 운영,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동형 체육교실' 및 '가정 연계형 사회성 프로그램' 도입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분리된 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특수한 존재'로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육 수업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다름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포용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만들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에서도 음악줄넘기나 뉴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아이들은 언어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했다.

장애 인식 개선은 결국 '경험'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가 말하는 '포용'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유로 관계를 나누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비장애 학생이 장애 친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게임을 하고, 실수도 하고, 웃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편견은 차츰 무너진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러한 통합형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와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정규 및 비교과 활동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강원도에서 학기 중 생활을 하며 서울에 올 때마다 봉사를 병행한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장애 아동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공정'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삶을 내 일상 속으로 들여오는 일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포용은 제도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거창한 말이나 일회성 캠페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질문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며 조금씩 만들어가는 변화다.

그 변화의 시작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닿기를 바란다.

천천히 함께 걷는 시간

경기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어예진

학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되지만 그 하루는 매번 다르게 채워진다. 어떤 날은 웃음이 많고, 어떤 날은 고요하다. 매일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들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교실은 이름 없는 기억들로 가득해진다. 처음에는 친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조용해서 누군가 먼저 주목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문득문득 그 친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교실 구석에 앉아 언제나 같은 자세로 수업을 듣고, 운동장에서도 혼자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보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누구와도 특별히 가까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머물렀다.

어느 날, 점심시간 우연히 그 친구와 식판을 나란히 들고 이동하게 되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줄을 서고, 식탁에 나란히 앉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천천히 연결되는 경험이 있다는 걸, 그냥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체육 시간엔조를 나눌 때 자연스레 같은 팀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속도를 맞춰 걷고, 그 친구는 가끔 웃음으로 답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과서 대신 그림을 보는 방식, 수업 중 반복해서 필기를 멈추는 순간들, 조용히 흘러가는 관찰과 기다림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조별 과제를 함께 하게 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서로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효율만 따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시간이 더 걸릴 때는 한 템포 쉬어 가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준비하고 발표를 마친 날, 발표 내용보다 더 큰 박수를 받은 것은 우리 조가 보여준 태도였다. 누구도 그 박수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교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누구에게나 익숙하던 속도가 아니라, 다양한 속도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함께 어울리는 방식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까지의 거리도 짧아졌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고, 기다린다는 것이 곧 배려임을 알게 되었다. 교실은 점점 더 조용한 변화들로 가득해졌다. 연습이 필요한 활동에는 서로 시간을 내주었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내심이 생겼다. 누군가의 걸음이 느려도, 누군가의 말이 더디어도,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같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런 나눔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계획이나 제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마음이고, 서로를 지켜보며 닮아간 태도들이었다.

그런 변화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변화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모여 있는 곳이 학교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눔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 남는 작은 여운 속에 있다. 잠시 걸음을 맞춘 그 순간, 말없이 곁에 있어 준 시간,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향해 눈을 맞추는 그 태도 속에 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말이 적고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다. 가끔은 그 침묵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는 그 친구 덕분에 멈춰 서는 법을 배웠고, 기다림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교실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시작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나눔은 매일 새롭고,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하다.



같은 세상, 다른 시선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권예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초록색 신호가 짧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운전자들은 신호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모두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동 수업을 가다가 발목을 다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계단만 있는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핸드레일과 같은 배리어프리 시설이 누구나 이용하는 학교 건물에 설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직접 겪고 나서야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학교 바깥의 더 큰 세상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배리어프리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좁은 복도를 지나다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사용하기 어렵고, 버스를 이용할 때도 저상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인도나 턱이 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위험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에는 음성 안내 장치가 없는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재난 정보가 울렸을 때 불빛, 진동과 같은 감각적 경과가 없다면 위험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시설 부족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천부인권 중 자유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장애 시설 부족 문제만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도 매체를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학교나 정부에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의식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하거나 특별한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제가 선불리 판단하여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매번 도와줘서 고맙지만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이 그 친구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을 편협한 잣대로 한계 짓고 불필요한 동정을 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유명한 관광 도시 경주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만큼 관광안내소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장애인 혼자 여행을 온다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족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주에는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가 있지만 1군데 밖에 없어서 경주 곳곳에서 쉽게 이용하기엔 여의치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 혹자는 소수를 위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와 약자가 보호받고 존중되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경주부터 무장애 도시로 거듭난 후 대한민국까지 지속 가능한 무장애 국가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 9 다른 듯 같은

대구 현풍고등학교
1학년 김민기

사람을 숫자로 비유하자면 비장애인은 10, 청각장애인은 9라는 생각이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떠올랐다. 10은 만약 10·9 중 제일 완벽한 숫자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10이 완벽한 숫자라고 말하고 9는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게 어렵다.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떠드는 소리, 각각의 개성이 담긴 음악 등 우리는 당연시하게 여겨오던 것들이 어찌면 그들에겐 제일 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처음에는 귀가 안 들리면 여기서부터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한글, 더 나아가 말은 어떻게 배우지?”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아까의 영상에서도 그렇고 요즘 릴스에 뜨는 장애를 가지고도 유쾌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손으로 말하고 표정·눈빛 등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한다.

생각 없이 비속어를 내뱉으며 툭툭 이야기하는 우리보다 몇 배는 공을 들여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더더욱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쉽게 거짓말을 치고 가볍게 행동하지만 눈빛, 행동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특이한 점에서 그들은 더더욱 진실성이 있고 따뜻하게 보인다. 이처럼 9는 숫자 하나가 10에 비해 부족하긴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장점과 매력이 있다. 숫자 10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것이 아니라 9도 완벽할 수 있다. 꼭 우리처럼 말을 제대로 하고 소리를 들어야만 세상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소리를 못 들어 음악을 마음과 찬란하고 화려한 무대 조명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이한 장점으로 다가와서 더 멋진 거 같다. 어찌면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다른 이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일상을 당연시하고 막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은 10들을 보다가 사뭇 다른 9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등 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9들이 10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른 것뿐, 나는 9와 10이 이제 그리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1차이 밖에 안 나는 다른 숫자일 뿐이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 다 소중한 존재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졌다고 안 소중한 것은 아니다. 우리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는 진짜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같은 사람

완도 수산고등학교
3학년 장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서로 다른 생김새로 태어난다.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이상하다고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들과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지구상의 한 생물체일 뿐이니깐. 나는 장애인해교육을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 장애가 특별한 건가? 그저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말이다. 꽃에 꽃잎 하나 떨어졌다고 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세잎클로버 사이 잎 하나가 더 자라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되는 걸까 싶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기에 그들이 용기 내 먼저 다가와 준다면 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다닐 수 있다. 먼저 다가오는 게 힘들다면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줄 수도 있다. 몸이 불편한 친구라면 난 그 친구의 오른팔이 되어줄 수 있고 말하는 게 불편한 친구라면 고개 숙여 그 친구 눈높이에 맞춰줄 자신감도 있다. 서로 같은 높이에서 누구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어제보다 더 나은 인식을 가진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초·중학교 때까지 장애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랬던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럽지만 세상을 조금 더 살아가다 보니 결국 그 사람들도 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용기를 내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에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과 나와 경쟁을 하고 있었고, 나와 밥을 먹고 있었고 더 넓게 보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가끔씩 다 함께 캠핑을 하거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떠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막 놀 생각에 신나고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것에 기대하게 된다.

언제쯤 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런 행복한 날들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빠르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을 것만 같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나와 내 친언니가 다른 성격,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틀린 게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이니까 서로 한 발짝씩 다가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 좋겠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때론 마음이 안 맞아 사소한 걸로 다투기까지 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더 나아가 이 지구에서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차별은 더더욱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하나의 세상, 같은 사람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현예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며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여 상처 주는 것이 그릇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다 큰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작년에 나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장애학생의 생활을 보조하고 함께 놀아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벗이 되어 주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하며 어색해했지만, 일 년 가까이 매주 만나다 보니 감사하게도 장난도 치고 고민도 들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아이유의 노래를 좋아하고, 공놀이를 재미있어하며, 동화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특수학급 친구들을 보며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라는 프레임 속에서 아이들을 대했던 과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봉사활동으로 장애학생과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나만의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귀한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꼭 봉사하여야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원해서 생각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사회가 더 큰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든 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우리 사회가 변화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일상에서 장애인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옳지 않은 행동들을 정의 내리고 장애인들의 불리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기울어진 우리의 ‘생각의 저울’의 기준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대하는 것이 아닌,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함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불합리적으로 누리고 있던 특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변화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할 수 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언젠가 아플 수 있으며 다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고등학생

방송소감문
부문

함께 날아오르자

제주한국국제학교
12학년 오승찬

- 암컷과 수컷이 눈과 날개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 새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게 된단다.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 ‘렛츠 댄스’를 시청하며 외할머니가 들려주셨던 비익조에 대한 전설이 떠올랐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지석과 청아의 소원이 마치 날고 싶은 파닥임 같아서였다.

지석과 청아의 여린 날갯짓 중 어느 쪽이 더 힘든지 따져보고 싶지 않았다. 그늘처럼 내려앉은 상처를 장애와 비장애로 나눌 이유도 없었다. 단지 사라지고 싶어 하는 지석과 청아의 상처를 감싸주고, 함께 비상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춤을 추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사랑의 말이었다. 하지만 지석의 어머니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라는 이유로 아들의 꿈을 막으려던 어머니께 나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드라마 중간에 지석이가 친구들과 물을 마시는 수돗가를 보세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수도꼭지들 중에 하나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수도꼭지가 위로 향하건 밑으로 향하건 갈증을 풀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석이 혼자 하늘을 향한 수도꼭지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어머니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과 수도꼭지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을 나누면 갈증 없이 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 “소리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

지석이 던진 이 말에 물음표를 던졌다. 지석에게 인공 와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 귀와도 같은 인공 와우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친구들, 수업하며 입 모양을 보여주지 않는 선생님, 소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지석이 주위 사람들에게 갖는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뿐이었다. ‘조용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진공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라던 지석의 그 말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청아의 귀를 두 손으로 감싸주는 지석을 따라 내 귀를 막아보았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소리만 뻗돌았다.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먹먹함이었다. 내 안의 소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라는 지석의 배려 같았다. 따뜻함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사람도, 소리도 함께 손잡고 날 수 있는 두 번째 걸음이 될 것 같다.

“같이 해볼까?”

댄스를 준비하던 청아가 어려워하자 지석이 던진 말이었다. 장애인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말과 같았다. 과제가 끝나고 지석은 춤 잘 추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함께 할 줄 아는 춤 잘 추는 친구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행 평가를 통해 지석과 청아는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다. 같은 반 친구들도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서는 동아리 원들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지석과 청아가 힘든 혼자로 남아있었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드라마는 혼자는 힘들고 외롭다. 하지만 여럿이 하나가 되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빠른 사람이 느은 사람을 기다려주며 같이 가다 보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가다 보면 조금 늦어도 행복하게 날 수 있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만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통한다는 건 착각이야.” 마지막으로 지석의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들 모두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 댄스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면 더 즐겁고 신나는 것처럼. 같이 있다는 건 벌써 마음이 통했다는 거야. 혼자서는 날 수 없지만 하나가 되면 날 수 있는 비익조의 전설을 우리들은 현실로 만들 수 있어.”

우리는 함께할 때 빛난다

세종 반곡고등학교
2학년 신혜린

우리는 함께할 때 빛났다.

그저 춤이 좋았던 소년이 있었다. 하지만, 소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청각장애라는 이름은 소년을 점점 고립되게 만들었다. 사회의 차별 섞인 시선도 버겁기만 한데, 부모마저 소년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장애인이니까. 비장애인과는 엮일 수 없을 거야.’ ‘나의 꿈은 너무 막연하기만 한가.’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런 생각 하기 싫어.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리고 또 다른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성적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자신의 생일보다도 영어 듣기 평가가 우선이었다. 겉모습은 그랬다. 하지만 소녀는 누구보다 외로웠다. 오늘도 소녀의 집은 공허하기만 하다.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소녀에게 소년의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학교 앞에서 봤던 소원 팔찌 때문일까, 소년과 실수로 머리를 부딪쳐 넘어진 까닭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소녀는 소년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렛츠 댄스’는 청각장애를 가진 전학생 지석이와 그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청아가 함께 꿈을 쫓는 이야기이다.

청아와 지석이의 청춘을 보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그 애는 참 이상한 친구였다. 항상 뭐가 그리 좋은지 헤실헤실 웃었다. 지금 되새겨보니 정말 순수하고 예쁜 웃음이었는데, 당시에 나와 반 친구들은 그 웃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다. ‘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남들과 언뜻 달랐던 그 애는 참 어려웠다. 그래도 그 미련을 버릴 수 없었기에, 다른 이들의 시선이 그 애를 외면할 때, 나의 시선은 그 애를 향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저 애의 머릿속을 한 번만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애의 보충수업 도우미를 하게 되면서 천천히 깨달아갔다. 그 애는 그냥 강아지를 좋아했고, 놀이터를 좋아했다. 연필의 사각거림을 좋아했고, 보드마카의 보드거림과 칠판 앞에서 손을 휘젓는 선생님의 팔을 좋아했다. 어라,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사실 나와 별다를 것이 없었다. 그냥…좀 웃음이 많았던 친구일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빛난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려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의 답은 한결같았다. ‘장애’라는 껍질 뒤에 ‘인’으로 바라보자. 어쨌든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다큐멘터리에 나온 장애인도, 그들의 보호자도, 지식이도, 같은 것을 바랐다. 동정도 혐오도 필요 없으니 평범한 이들처럼 바라봐 달라고. 길을 가다 넘어진 아이를 보고 함께 책가방에서 쏟아진 책을 주워주는 것처럼. 오르막을 오르는 할머니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땅히 돕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장애가 주는 다름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청아의 반 친구들이 지석이가 춤을 춘다는 말을 의아해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쉽게 보이는 다름만을 느끼고, 그것이 곧 차별이 된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 그들에게 부딪히면, 그대로 파고들어 자신이 ‘장애’인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비장애인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그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투명해진다. 투명한 벽 너머의 눈동자를 마주 보는 날이, 우리가 함께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어질 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계속해서 묻는다.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려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아도 아이는 일어난다.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지 않아도 수레는 굴러간다. 우리 사이의 도움이 없다 해도 우리는 살 것이다. 빛이 메말라 갈라진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할 때 눈을 맞출 여유가 생기고, 사회를 비로소 빛나게 한다. 빛나는 초원에 핀 웃음꽃 사이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분명 아름다우리라.



우리 함께 춤출 수 있을까?

평택 진위고등학교
1학년 오민찬

우리 사회는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언의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스스로의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렛츠 댄스’는 이런 모순을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춤’이라는 보편적 예술을 매개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이라는 계단을 넘어 ‘함께’라는 의미를 일깨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그릇되었던 것인지 성찰하게 되고, 진정한 포용과 공감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청각장애를 가진 남학생 ‘지석’입니다. 지석은 춤을 좋아하고 무대에 서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앞에는 ‘다름’이라는 높고도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 친구들은 처음에는 지석을 꺼려 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석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태도로 연습에 몰두하고, 그의 진심은 점차 친구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되고, 지석은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닌, 함께 어울려 춤추는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지석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는 친구들의 변화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서로 다른 박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고, 결국 같은 박자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것은 ‘함께함’이 주는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

이야기의 흐름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매우 일상적이고 은근히 사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너는 이걸 못 할 거야”,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식의 선입견은 때로는 동정으로, 때로는 배척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불쌍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고,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렛츠 댄스’는 장애인을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 중심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춤출 수 있을까?

특히 영상 속에서 ‘춤’은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춤은 말이나 언어 없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지석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소통이 반드시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며, 마음을 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렛츠 댄스’는 단지 장애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포용과 배려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드라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다양성 속에는 장애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마음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다른 박자를 가진 이와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렛츠 댄스’는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함께 춤출 수 있다.”



‘렛츠 댄스’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예재현

이번에 보게 된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영상은 단순히 ‘장애를 이해합시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넘어, 삶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이야기였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냥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을 다 보고 난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얇고 일방적이었는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그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 진심으로 깨달았다. 영상의 주인공 지석이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인공와우라는 기계를 통해 소리를 듣지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리는 아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왜곡된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거나, 친구들과 빠르게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석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기로 했다. ‘다르다’는 사실은 때때로, ‘틀리다’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그게 지석이 마음속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석이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석이를 특별하게 대하거나, 불편해하면서 피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석이와 함께 어울릴 방법을 찾아갔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이 꼭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춤 연습을 하면서 지석이가 박자를 놓치더라도 기다려 주고, 때로는 함께 다시 맞춰가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다.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같이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생각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석이와 친구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이었다. 지석이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무대 위에서는 더 크게 드러날까 봐. 혹시 실수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줄까 봐 겁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지석이를 비난하거나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괜찮아, 너의 속도로 해. 우리는 같이 할 거야.”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약점을 보이면 그것을 숨기라고 남들에게 들리지 말라고 조언하곤 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석이에게 약점을 숨기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지석이를 받아주고, 함께 빛나게 해주었다. 그것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렛츠 댄스’

우리 주변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나는 단순히 듣는 것,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석이는 결국 무대에 섰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고, 친구들은 그 걸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지석이가,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 낸 용기와 우정의 결과였다. 공연이 끝난 후, 지석이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해낸 경험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서로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꼭 실천하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가고 싶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진짜 소원은 나를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 나는 이 영상이 가르쳐 준 소중한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간직할 것이다.



존중받는 존중하는 소중한 존재

대전 계룡디지털고등학교
1학년 서정원

‘렛츠 댄스’를 간단히 해석하면 춤을 추자란 뜻인데 이 춤을 통해 지석이가 청아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춤이란 매개체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낯선 인공와우란 단어도 찾아보게 되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자신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도했다. 그 소원이 팔찌를 통해 청아가 지석이의 말에 귀 기울여줬고 서로 춤이란 매개체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도 가족 중에 외삼촌이 청각장애를 가지셨다. 각자의 언어표현 방식이 다르니 많은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다. 그냥 손짓, 발짓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그런 나를 위해 항상 환하게 웃어주셨다. 딱 거기까지였고 더 이상의 소통은 없었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공감을 통해 마음을 서로 교감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다. ‘렛츠 댄스’란 드라마를 통해 장애에 올바른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 드라마를 보고 조금이라도 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린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석이도 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꼭 응원해 주고 싶다. 나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석이처럼 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석이도 청아도 나도 모든 사람들도 장애가 있든 없든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생각들이 장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평범하게 바라봐 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이나마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

‘콜아웃’이란 팀으로 청아와 지석이가 나간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서의 구호가 생각났다. ‘누구든 덤벼라 우리가 최고다’ 힘찬 이 구호가 나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고 큰 힘이 된 것 같다. 이 드라마를 통해 꿈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린 모두 존중받는, 존중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듣고, 춤으로 나눈 우정

논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서주원

청각장애를 가진 전학생 지석과 친구 청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렛츠 댄스’는 단순한 청소년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 영상은 내게 장애를 다르게 바라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불편함’이나 ‘특별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써의 장애. 그 시선을 처음 경험하게 해준 이야기였다.

‘지석’이는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입 모양을 읽어야 했고, 주변 소음에 민감한 장치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의 불편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친 건 아닐까?’라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춤을 통해 소통하는 부분이었다. 춤은 말이 필요 없다. 리듬을 몸으로 느끼고,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지석이는 말을 잘 듣지 못하지만, 춤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청아’와 함께 댄스 클럽에 가입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아가 지석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상력 장치’는 마음으로 듣는 공감을 의미하는 것만 같아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상 속에서 지석이는 ‘배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당당한 존재’로 그려졌다. 그런 모습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돕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불쌍히 여기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기’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댄스 페스티벌 무대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순간, 모두가 함께 지석이를 응원하며 무대를 완성해 낸 장면은 특히 감동적이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한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우리의 학교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친구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이라는 것이 커다란 장벽이 되어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진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손 잡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나의 일상 속 실천을 고민하게 되었다. 말할 때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기, 수업 중 발표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기 같은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장애는 결코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차이’는 ‘특별함’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 ‘렛츠 댄스’는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성장을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다. 나 역시 앞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며 함께 한 발짝 더 걸어가고 싶다.

렛츠 댄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1학년 이은성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렛츠 댄스’를 봤다. 매년 하는 행사, 귀에 박힐 정도로 많이 듣는 장애이해 교육, 솔직히 매년 다른 방식으로 교육해서 막 엄청 지루하진 않았지만 같은 내용만 귀가 닳도록 듣고 매번 같은 말로 감상문과 새로 알게 된 점. 앞으로의 다짐과 같은 것을 돌려 막기로 억지로 해와서 솔직히 이번 교육도 별 기대는 안 했었다.

근데 이번 교육은 좀 달랐다. 장애인 친구를 차별하거나 과하게 배려하는 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드라마와 댄스, 청소년기, 극단적인 선택 생각을 넣어 더욱 흥미 있게 교육을 들었던 것 같다. 이전에도 보여줬던 장애인식개선 드라마는 너무 직접적으로 장애인 친구를 비하하거나 그 친구의 고통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렛츠 댄스’는 제목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인데 제목이 ‘렛츠 댄스’? 궁금하다!”와 같은 흥미 유발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았다. 극 중 청각장애를 가진 지석이와 공부만 하는 청아. 청아의 친구 우림이, 이 셋의 관계를 보는 사람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하여 더욱 몰입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 드라마 재밌다.’가 끝이 아닌 ‘만약 내가 청아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 내가 청아가 되어 마음으로 같이 지석이를 생각해 주고 챙겨주고 있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말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영상 속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생각해 보면 나도 장애인 친구를 배려라는 말 뒤에 숨어서 더욱 부담으로 주고 불편한 상황을 의도치 않게 만든 적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 하였다. 나는 친구를 배려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매번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장애인 친구한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오는 것 같다. 어떤 장애가 있던 그냥 비장애인처럼 대우받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텐데 나는 그런 점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춤도 출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노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렛츠 댄스’ 속 청아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챙겨주고 아무 일 없듯 바라보면 진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런 행동을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기보단 내가 먼저 행동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최대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서로 도우며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말처럼 쉽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제는 교육을 안 받아도 몸과 정신에 각인될 정도로 생각하며 살 것이다.

‘렛츠 댄스’를 보고 - 인간관계와 상반된 다정함을 중심으로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박예지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렛츠 댄스’는 성적을 쫓던 여학생 청아가 우연한 계기로 청각장애를 가진 소년 ‘지석’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시작한다. 처음 지석의 마음이 들렸을 때, 청아는 수업 듣는 데 방해된다고 짜증 냈지만 이 능력은 통해 지석과 친해진다.

해당 영상을 보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다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인공 청아는(묘사적으로 말하자면) 햇살 같은 다정함이다. 청아는 지석을 명시적인 행동으로 도와준다.

지석이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적으로 나서고, 이해나 용기가 필요할 땐 그것을 기꺼이 제공한다. 그리하여 지석은 청아의 도움을 호의로서 받아들인다. 반면에, 지석의 어머니의 다정함은 구름이 끼서 흐릿하게 내리쬐는 햇볕이다. 지석이 어머니의 다정함은 청아보다 더 짙고, 깊은 것이다.(다정함을 판단할 수 있다면) 다만, 지석이 어머니의 다정에는 걱정, 미안함 같은 감정이 섞여있다. 따라서 원래의 감정이었던 다정함이 온갖 걱정, 미안함에 가려지게 된 것이다. 비유하자면, 청아의 다정함은 ‘어린이용 딸기맛 해열제’이다. 향도, 맛도 기꺼이 삼킬만하고, 효과도 괜찮다. 반면 어머니의 다정함은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이다. 온갖 좋은 약재들이 다 들어갔지만, 그 맛과 향이 너무도 써서 삼킬 수 없는 약이다. 두 다정함 모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유용했던 치료 방법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기도 하는 것처럼, 지석에게 맞는 것이 우연히 청아의 다정함이었을 뿐이다.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해 봤던 점은, 지석이의 소망이었던,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장애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지석이는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평범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는 누군가를 바라왔다. 그리고 지석이의 바람대로 청하는 지석을 똑바로 봐주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받고, 정당화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책 어린 왕자의 여우와 어린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 천천히, 서로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의도와 마음은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게, 조금한 마음은 숨겨놓고,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

하노이한국국제학교
12학년 박효은

이번에 시청한 방송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장면들 하나하나가 인상 깊었고 특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학교 안의 장애 학급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도 됐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조금씩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간식을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제가 이름을 불러주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며 줬는데 그 작은 웃음이 저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내용도 결국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차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차이’가 편견이나 무관심 속에서 벽이 되곤 합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의 시선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제가 했던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특별하거나 불쌍하게 보지 않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마음의 작은 변화라도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따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고등학생

웹툰
부문

할 수 있었던 것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11학년 이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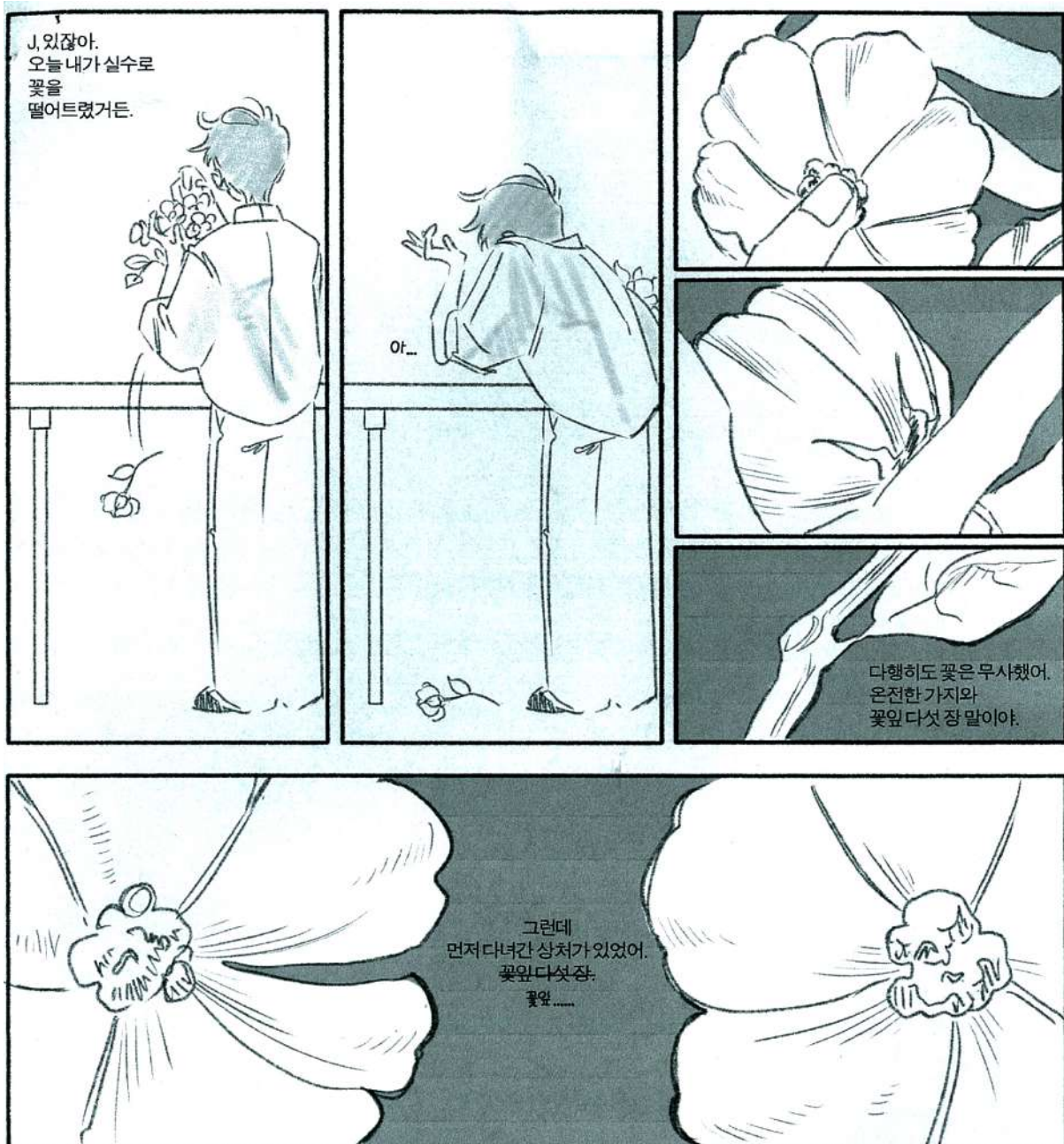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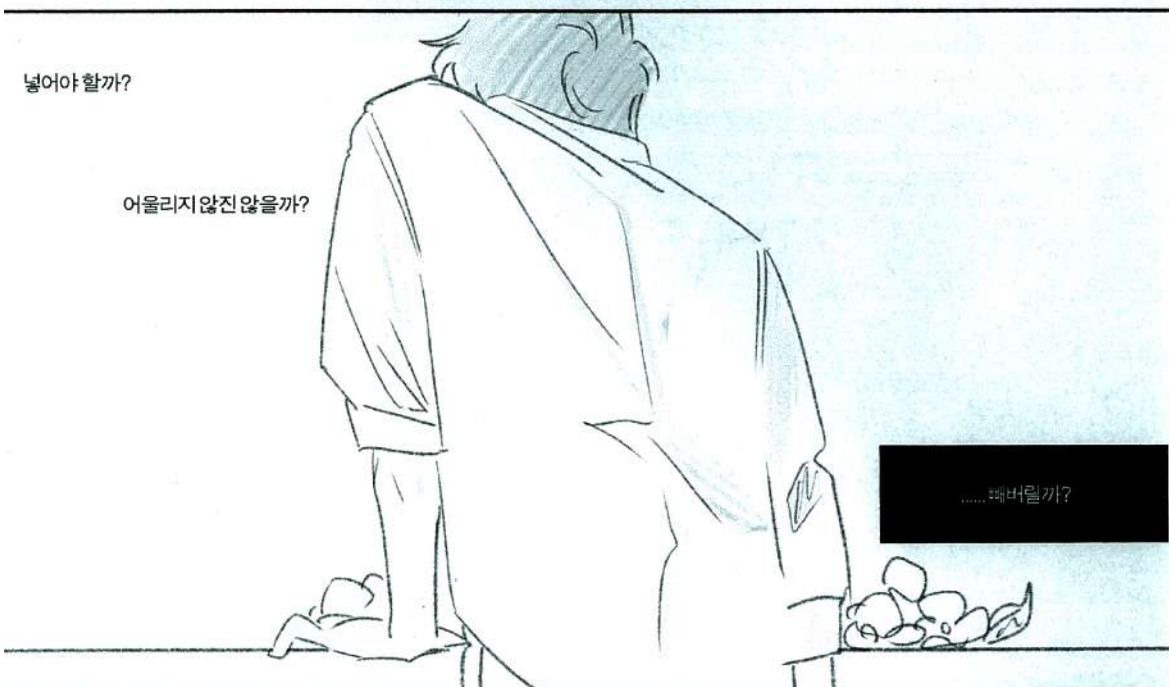




달라도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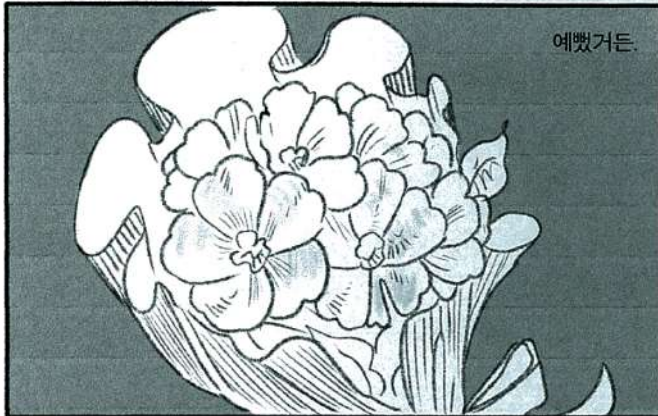
경기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하늬





달라도 아름다운

사실 그건 엄청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예뻐거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꽃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꽃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
조금 다를 뿐

여전히 향기롭고 아름다웠어.

여전히 소중한고 조화로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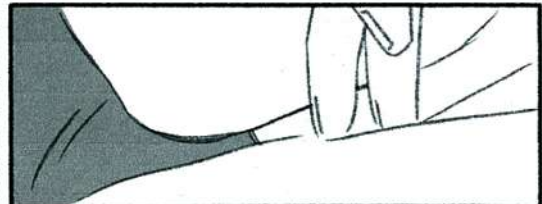


꽃들도 우리와 같았던 거야.
우리도 꽃들과 같았던 거야.

J...



쿵쿵



조금 다를 뿐,

(무슨 일이야?)

(내가 만들었어, 어때?)

서로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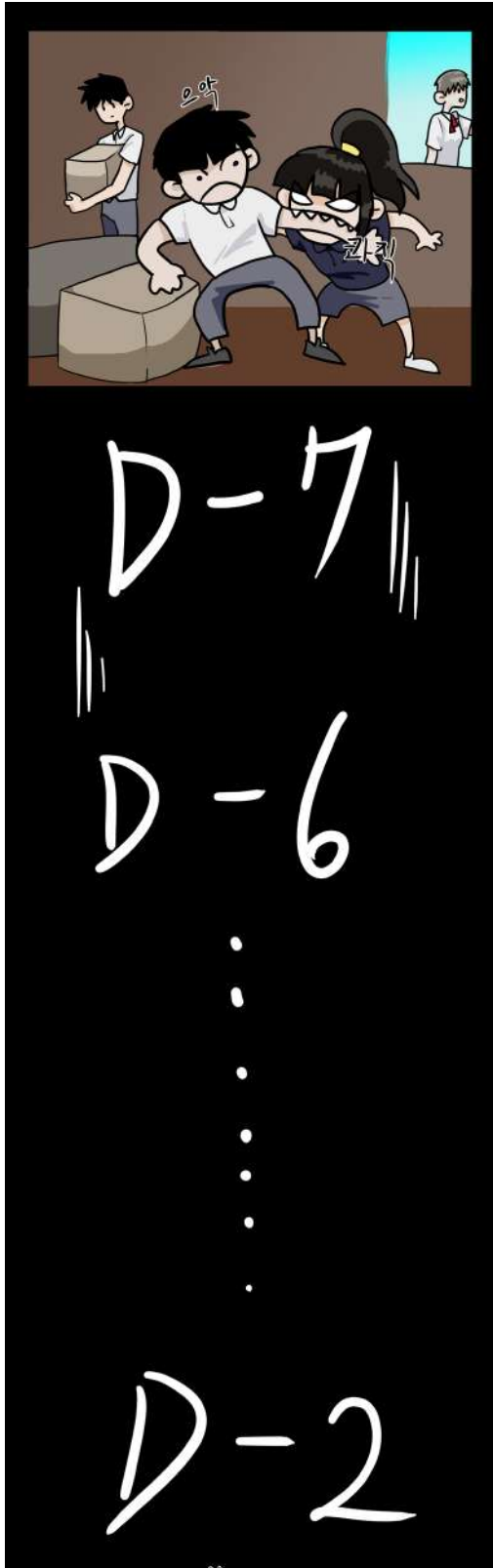
나애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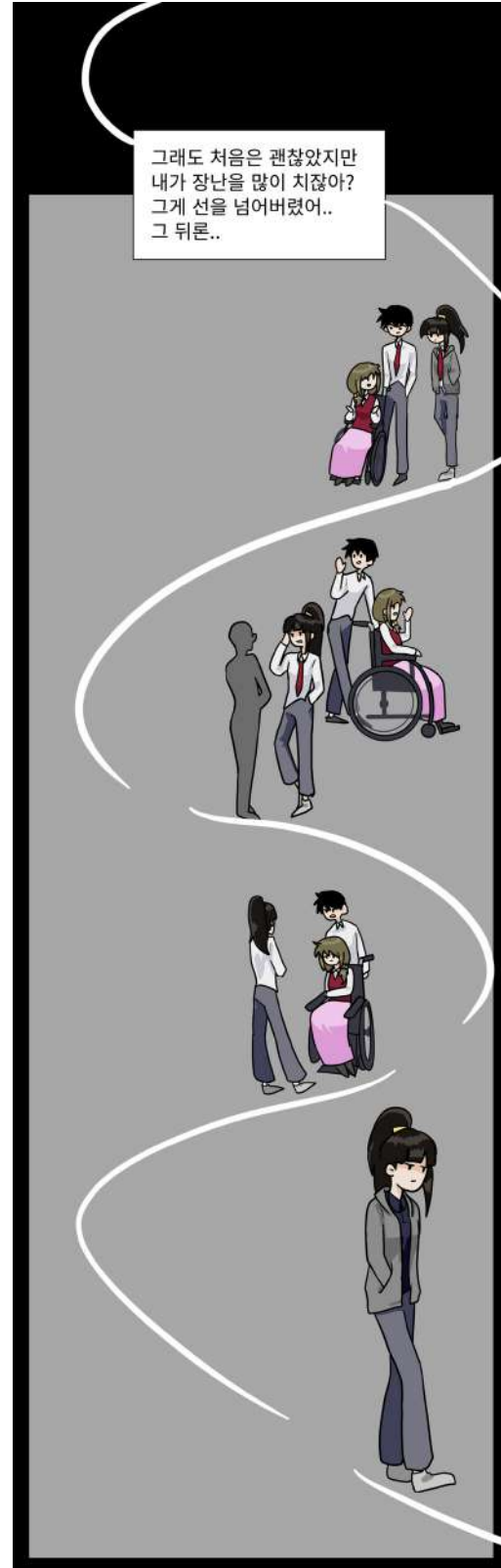
수원 한봄고등학교
2학년 구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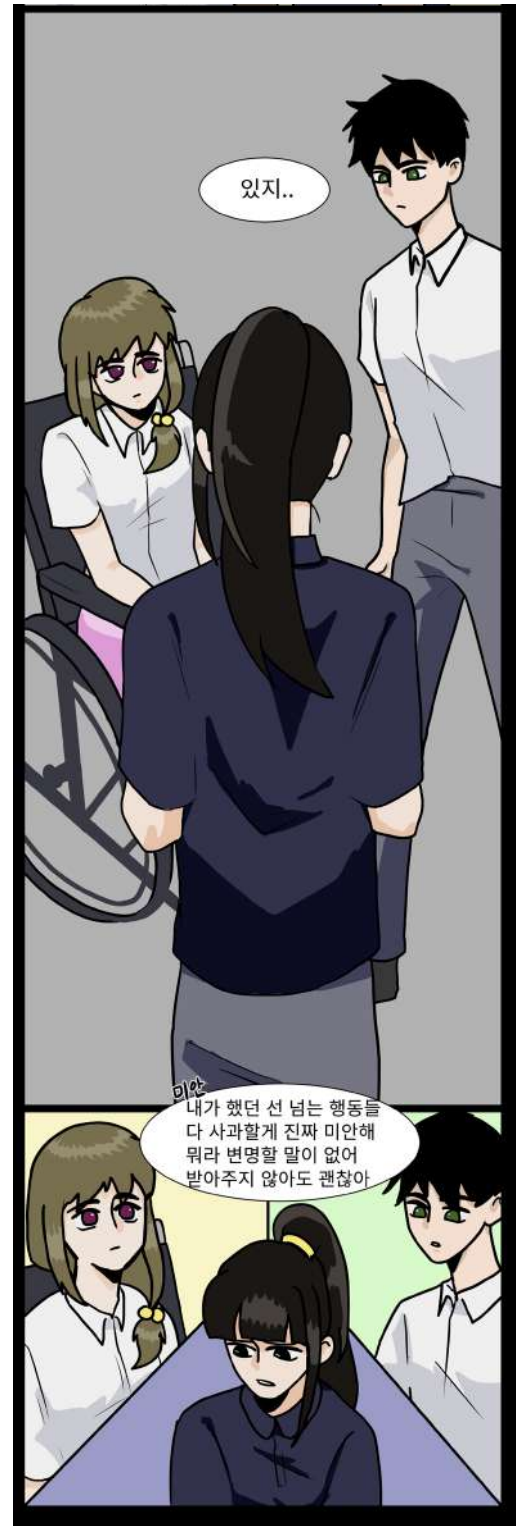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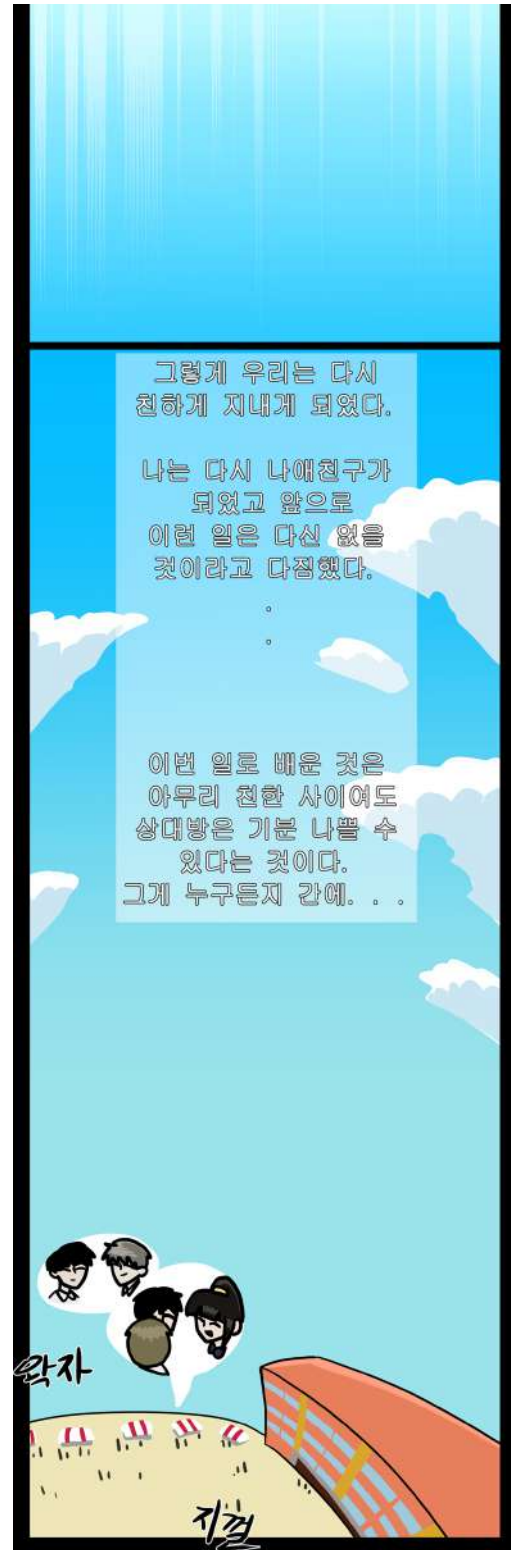












덕분이야! 나의 꿈은

수원 한뫼고등학교
2학년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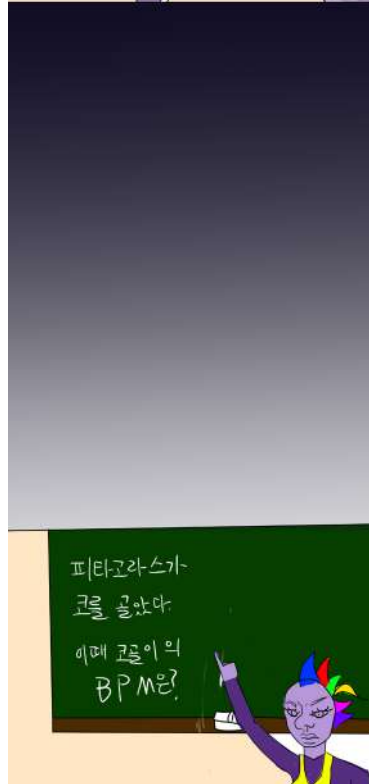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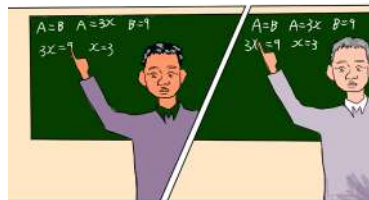
그런 나도 얻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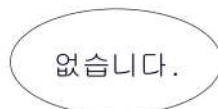


오늘도 어김없이 졸고있다.



꿈 맞네.. 무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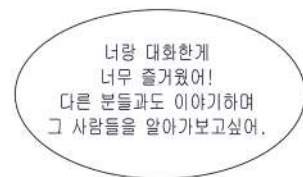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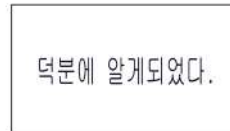




선우의 말을 듣고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주고 싶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덕분이야! 나의 꿈은



수업 끝!
다들 집 잘가라.



엄마! 나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

갑자기였지만 엄마에게
꿈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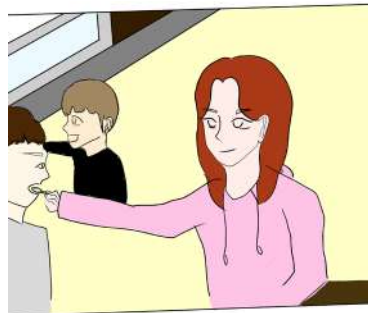
진짜?
축하해 딸~

나의 꿈을 들은 엄마는
함께 기뻐해주며 응원해주었다.

그 후로



용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했고



부모님과 함께
봉사도 다니며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한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들의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장애인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

너 덕분에 알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서울 홍익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김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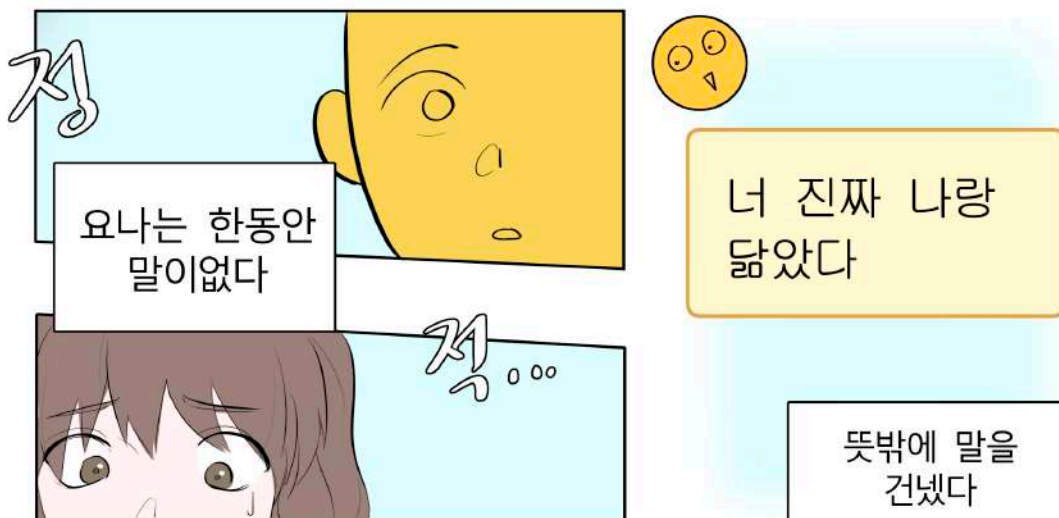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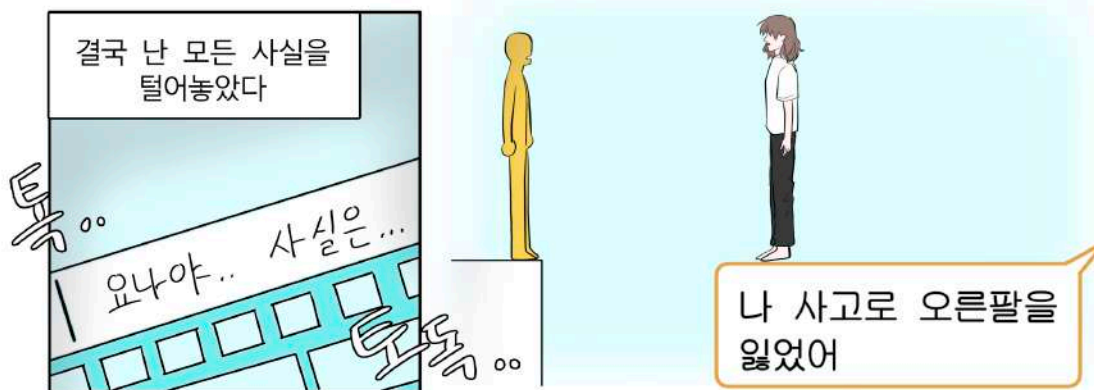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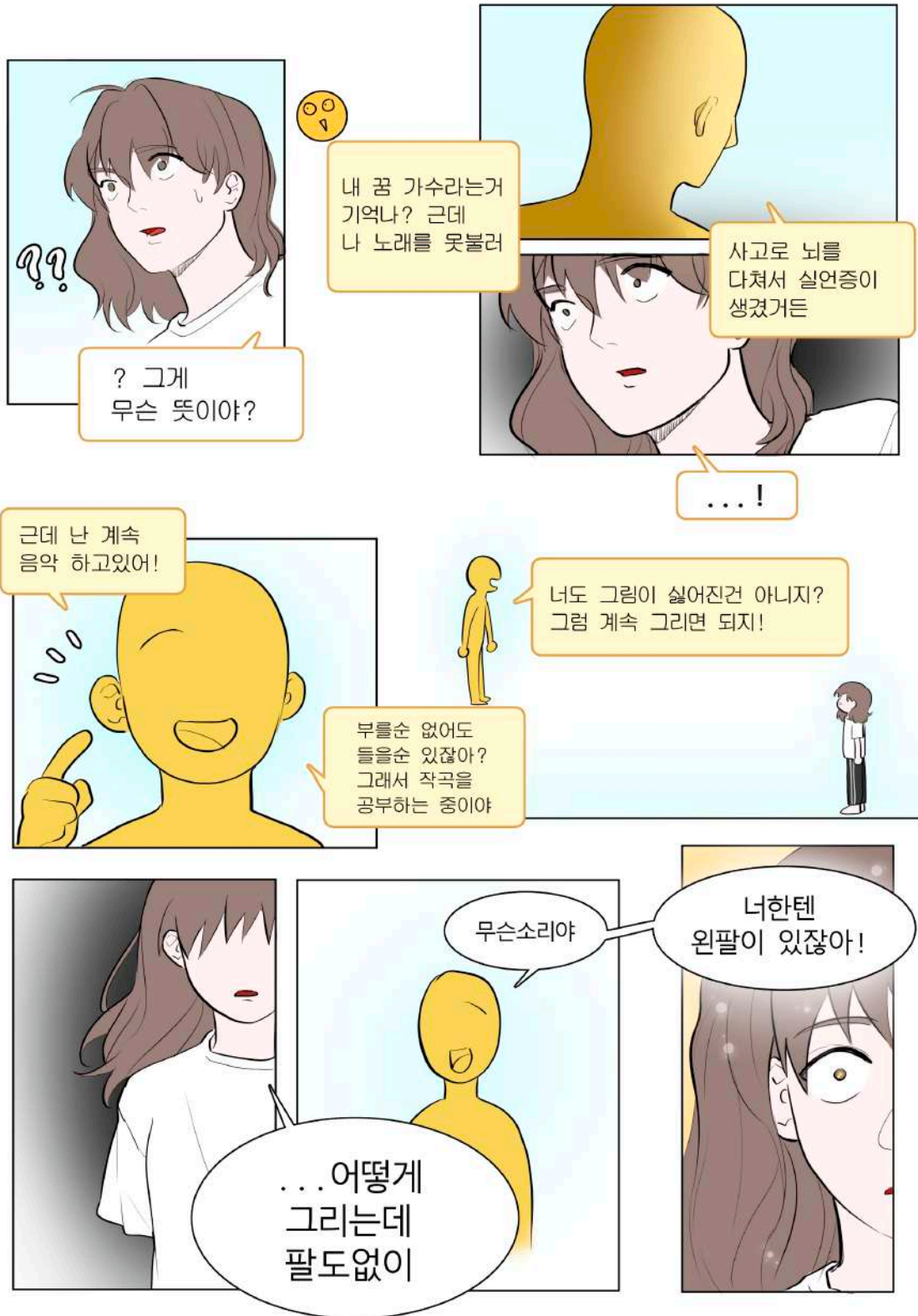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꿈

수원 한봄고등학교
3학년 조예현











무제

원주 문막고등학교
3학년 이수인



나, 너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윤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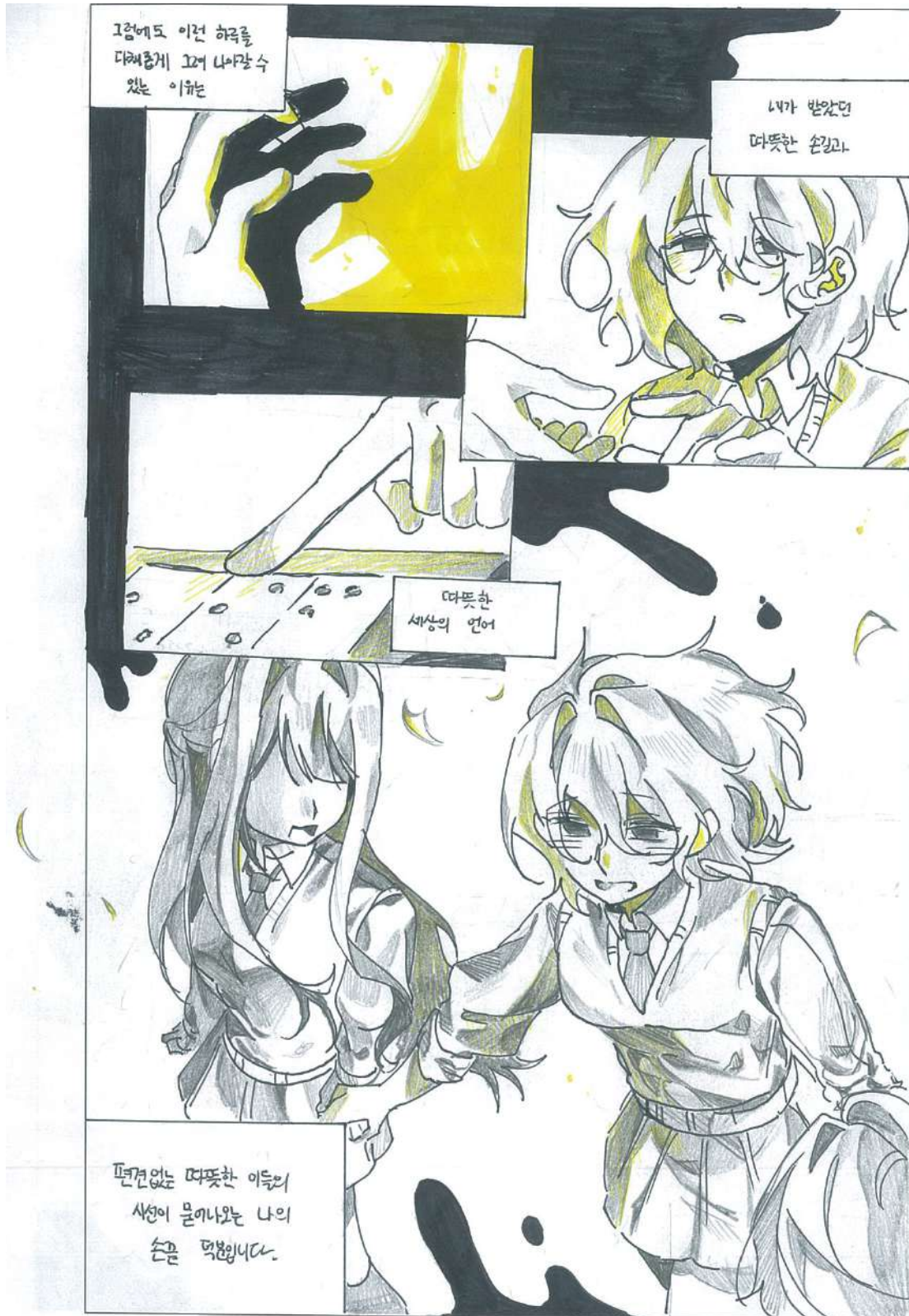




어둠을 밝힐 재료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학년 이승희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우수 작품집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 발 행 일 : 2025년 11월
- 발 행 인 : 이수성 이사장
- 편 집 인 : 이지연 본부장
- 발 행 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아이에스BIZ타워 1차)
- 전 화 : 02-784-9727
- 홈페이지 : <http://www.wefirst.or.kr>
- 디자인 및 인쇄 : 아임디자인 02)701-3767~9



제2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마음이 모이면
꽃이 피어요

주 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소년한국일보·삼성화재

후 원 : 교육부·보건복지부·KBS·WBC복지TV·사회복지공동모금회·KIA